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24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3월 25일(음력 2월 29일) 수요일(주간)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 조계종 총무원장)는 3월 1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경제난 극복 · 국민화합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을 부제로 봉행된 이번 기원법회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지관 스님 등 각 종단 총무원장스님, 정 · 관계 불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됐다. (관련 기사 12면) 공동취재단

"호미 든 원력으로 불교 중흥"

정토원 관음성상 봉안 50주년 기념 세미나 등 개최

1959년 4월 5일, 젊은 불교학도 31명이 심신 · 사회 · 경제 · 사상 개발의 원력을 세우고 호미 든 관세음보살상을 김해 봉화산에 봉안했다. 발고여락(拔苦與樂)하는 관세음보살은 그 날 이후 세상의 고통을 뽑고 희망을 심기 시작했다. 관세음보살상을 봉안한 이듬해 4 · 19혁명이 일어나 민주국가의 기틀이 다져진 것을 시작으로 한국은 경제대국 10위권에 진입했다. 관음성상을 모시던 날 나무를 심으러 올라왔던 많은 봉하 부락 중학생 중에는 노무현 前 대통령도 있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닌 간절한 발원이 이뤄낸 일이었다.

호미 든 관세음성상 봉안 50주년을 맞아 대중불교운동의 기치를 드날릴 의미 있는 법회가 열렸다. '관세음보살 봉안 50주년 기념세미나 준비위원회'(위원장 손안식 · 권오현)는 3월 20일 서울 BBS 불교방송국에서 관세음보살 봉안 5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승불교 100만 결사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등 200여 주요인사가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시대 상황에 맞게 능동적이며 생산적인 불교운동을 상징하는 호미 든 관세음성상 봉안 정신을 계승해 정보산업사회에 맞는 새로운 불교를 제시하기로 결의했다.

봉화 정토원 선진규 원장은 인사말에서 "호미를 든 관음성상이 새로운 불교중흥의 원력을 발하며 기원해주고, 불자들이 함께 일어선다면 큰 변혁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서윤길 명예교수가 진행한 세미나에서 원각불교사상연구원 권기종 원장은 '노동과 생산에 대한 불교적 관점'에 대해 발표했다. 권 원장은 "사원의 경제적 자립과 국민들의 빈곤탈피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던 20세기 중반 젊은 불교도들이 호미 든 관음상을 봉안하고 노동과 생산을 통한 불교 발전과 민중개도에 앞장선 것은 20세기의 새로운 불교운동"이라고 설명했다.

동국대 정병조 교수는 '실천불교의 사회적 의미'를 통해 "봉화산 청소년수련원 설립 운영은 최초로 재가불교역량을 결집시킨 실천 · 응용불교 활동"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이봉춘 교수는 '호미 든 관음상 봉안의 불교사적 의의'에서 "관음성상 봉안을 기점으로 자력불교로의 신행방향 제시와 참여 · 대중불교 운동의 선구로 현대 NGO활동 · 호스피스 등으로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前 불교방송 권오현 전무, 동국대 고영섭 교수 등이 참여해 '대승불교 100만 결사운동' 의지를 천명했다. 대승불교 결사운동은 동국대 불교대학출신, 군법사 예비역, 대불련 출신을 주축으로 승속이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준비위는 동국대 불교학과 총동문회 홍영춘 회장, 기원학사 법우회 이재형 회장 등으로 꾸려졌다.

한편, 준비위는 4월 5일 11시 봉화 정토원에서 봉안 5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한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선지식을 찾아서 ▶14 혜거 스님



인터뷰 ▶8 재경 스님

길막아 10리 돌아가는 스님

인근 기도원, 전기공사 못하도록 장애물도 설치

포항 한 기도원의 횡포에 2년째 시달리고 있는 노스님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포항시 청하면 청하사 주지 도명 스님(66)이 십리를 걷게 된 것은 2007년 11월 23일. 청하사 불사를 마치고 한전 측에 전기 공급 요청을 했던 때부터였다.

도명 스님은 공사비 4000여 만원을 한전 측에 입금하며 설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사대금 완납이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청하사에는 전력공급이 되지 않고 전봇대 한 대만 세워진 상황이다.

청하사까지 전기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 이유는 사찰 약 2㎞ 앞에 위치한 반석기도원 관계자가 공사를 막기 위해 유일한 다리와 교통로에 방해물을 설치했기 때문.



청하사를 통하는 유일한 입구를 가로막고있는 철골구조물. 이것외에 다리 위 구조물과 담장이 더 있다.

전기는 물론 길까지 막힌 스님은 길을 돌아다니느라 겨울마다 동상에 걸리는 등 고통을 겪어야 했다. 현재도 쌀 등 생필품은 장애물로부터 10리 가량을 직접 지고 날라야 한다.

도명 스님은 "신도들이 도와주지만 너무나 불편하다. 몇 년간의 실랑이에 이젠 몸도 마음도 지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스님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인근주민 송 모씨와 한전이 중재에 나섰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도원 측이 여전히 전신주 설치는 물론 도로의 장애물도 치울 수 없다며 버틴 것이다.

송 모씨는 "조상 묘를 모신 곳이어서 교통로 일부분은 국가소유, 일부분은 본인소유다. 기도원 땅도 아니고, 생길 당시 양보를 해서 교통로를 내게 했는데 사찰이 생긴다고 길을 막아버리다니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도원장 김 모씨는 "문제가 불거진 후 전신주 설치에 합의했다. 합의 후 한전 측이 '도와줄 것이 없냐'고 묻기에 한전장학금으로 아들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300만원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스님 돈이어서 일처리에 기분이 상했다. 절대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스님과 송 모씨 등 주민들은 "300만원을 건넨 후 기도원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합의금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송 모씨는 스님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기도원은 작년 12월 10일 검찰로부터 일반교통방해죄로 100만원의 벌금형만을 받았다. 벌금을 내도 막겠다는 생각으로 기도원은 3월 16일에는 두 개의 방해물에 더해 1개의 담장을 추가 설치했다.

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소송중인 이유로 대문 등에 강제 철거 집행을 하지 못했다"며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 설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한 법률'(2008년12월31일) 8항에 근거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무성의한 책임전가와 기도원의 참사랑(?) 실천에 오늘도 스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산길을 오르고 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을 열었습니다 www.hyunbul.com

법구경

무지 쾌락에 빠지지 않고
명상 속에 언제나 깨어 있는
사람은 '니르바나'에 이르게 된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강영화 변호사
031)436-3054
010-7504-4521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 보급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이 있으며 크기가 3.5 x5cm, 5x7cm으로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권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찾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자비나눔



전국사찰 동시 법회! 저소득 · 실직가정 돕기
'1배 100원 108배 모금법회'

〈불자 여러분이 위기극복의 희망입니다!!〉
• 전국 본말사 사찰에서 3월 초하루, 동시 모금법회 (1배100원 모금법회)
•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108배 기도와 모금으로 불교계가 앞장섭니다.

• 일시 | 불기 2553(2009)년 3월 27일(금) 오전 10시경 • 장소 | 전국 본말사 (법당 및 경내)

※ 이날 하루 모금된 자비나눔 기금은 사찰을 통해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됩니다.



저소득 · 실직가정을 위한 희망의 등달기
등공양비 1천원을 기부합니다.



저소득 · 실직가정을 위한 한끼나누기
한끼5천원 기부하면 됩니다.
사찰은 쌀독 설치 운영



저소득 · 실직가정을 위한 자비연꽃(뱃지) 달기
자비나눔 동참하시는 모든 분과 이웃에게 달아드립니다. (보급 : 1개 1,000원)

기부참여안내 ■ 국민은행 023501-04-142119 ■ 농협 317-0000-1827-11 예금주 (재)아름다운 동행
문 의 | 대한불교조계종 02)2011-1822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02)737-9595 www.thenanum.org

죽비와 목탁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통도사 자비원의 대만 '견학'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종찰 통도사 사회복지법인 자비원(대표이사 정우) 산하시설 직원들이 3월 5~9일 대만 연수를 다녀왔다. 그들이 바쁜 중에도 대만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지불사로 대만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종교로 자리 잡은 대만불교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다. 상임이사 현기 스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사 20여 명은 화련(花蓮)의 자제공덕회, 까오슝(高雄縣)시의 불광산사, 중부 일월호에 있는 중대선사, 타이페이시의 시립 경로원을 방문해 대만 불교복지의 현장을 생생하게 살펴봤다.

자비원 산하시설 직원들은 자제공덕회의 엄격한 자제위원 선발과정을 보며 국내 복지 인재불사부분에 도입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자제공덕회는 포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청렴성을 중요 자질로 여긴다. 1년에 1000여 명 배출되는 자제위원은 사회봉사 활동과 자제정신의 역사, 연원, 현 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6개월 이수하고 매월 1회 12시간씩 2년간 교육받아야 위원이 될 수 있다. 자제공덕회가 미국과 유럽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골수은행을 가진 점도 눈여겨볼만 하다. 인구 2300여만에 불과한 대만에서 골수기증자가 40만명에 이른 것은 인구 5000만명인 한국에서 골수기증자가 9만여 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주목할 만하다.

자비원 관계자들은 전 세계 300만 명 이상의 신도와 자원봉사자를 거느리면서 의료, 교육, 문화, 환경 보전 등의 활동을 펼치는 자제공덕회를 뒤로하고 부처님이 설법한 '평등정신'을 구현중인 불광산사로 향했다. 사찰 내에서는 1400여 명의 비구, 비구니스님들과 많은 재가자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모두 평등하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진정한 보살심으로 자원봉사에 임할 것을 깊이 새겼다.

100여 년 전통의 대만불교는 중국과 분리 후 50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복지불사를 이뤘다. 이는 성운 · 증엄 스님 등 큰스님들의 가르침과 함께 대만 국민들의 불청지우(不請之友: 고통받는 중생을 보면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자진해서 돕는다) 정신이 있어 가능한 결과였다.

10여 년 전 20개 뿐이던 한국의 불교사회복지 시설은 현재 700여 개로 양적 팽창을 거듭했다. 이제는 질적으로 수준 높은 사회복지사업을 펼칠 때다. 단기간에 복지불사를 이룬 대만불교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한국적인 불교복지를 개척하는 시금석이 되리라 기대한다.

부결… 부결… 부결!

조계종 임시종회 22건 상정, 11건 논의, 단 3건 통과

제180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가 3월 16~20일 5일 회기로 열렸다. 이번 종회에는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 승랍기산 관련 승려법 개정안,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 등이 이슈였으나 모두 부결됐다. 논의된 법안은 전체 22건 중 11건으로 종헌 개정안 3건을 비롯해 종법 제 · 개정안 8건, 통과된 법안은 3건뿐이었다.

특히 결산을 위해 소집된 결산종회는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원로스님들의 청원까지 있었던 2009년도 사면, 경감, 복권 동의의 건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종회에 상정된 종헌개정안은 3건이다. 이중 △범법한 주지를 종단 징계 절차에 앞서 총무원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안(정범 스님 대표발의)은 부결됐고, △호계원장 등을 중앙종회가 불신임하도록 한 안(정범 스님 대표발의)과 △군승의 독신비구 예외 조항을 삭제한 안(주경 스님 대표발의)은 통과됐다.

상정된 19건 중 8건만 논의됐던 종법 제 · 개정안은 포살및결계에관한법 개정안만이 통과됐다. △승랍기산에 관한 승려법 개정안과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교구종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 폐지 및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은 상정됐으나 논의 끝에 폐기 또는 이월됐다.

특히 교계의 관심을 끌었던 승랍기산 변경건과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건은 격론이 오갔다.

덕문 · 정범 스님 등 젊은 의원스님들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정휴 학담 스님 등 중진스님들의 반대가 더 거셌다.

결국 법안은 종회의장 보선 스님이 "선배스님들의 간곡한 뜻에 따라 후배스님들이 양보해달라. 수정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하자"고 말해 종법 제 · 개정건 마지막에 논하기로 미뤄졌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1994년 종단개혁 후 제정돼 단 한 차례 수정도 없었던 총무원장 선거법 역시 폐기됐다.

개회전부터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선출 절차와 선거공영제 등을 규정해 종단의 선거문화를 바꿀 것으로 기대됐던 개정안 일독회부터 각 조항마다 충돌을 빚었다.

보인 스님은 "선거인을 선출하자는 제8조2항은 전국을 선거광풍으로 몰아넣어 금권선거 등 폐단을 양산할 것이 분명하다. 의원스님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무자 스님이 "민주적인 절차를 구체화하자는 것 뿐"이라고 맞서자, 보인 스님은 "민주적 절차를 논의한다면 직선제를 해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계속된 격론 끝에 종책모임별 토론과 대표단 협의가 있었으나 합의수정안 마저 반대에 부딪혔다. 출석의원 49명 중 찬성 18, 반대 8로 의결정족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한 총무원장선거법은 결국 폐기됐다.

스님들을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케 하기 위해 마련한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도 폐기됐다.

성관 · 주경 스님 등은 '승려노후복지법이 결국 재단을 구성하자는 것인데 총무원이 관리 · 감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스님들의 반대 의견에 선문 · 혜일 스님 등이 "특위에서 상정한 법안이 줄줄이 폐기됐는데 승려노후복지법 마저 폐기되면 특위 무용론이 나온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후 시간상 휴회가 선언됐으나 20일 21명 의원스님만이 출석해 성원미달로 회의가 자동 유회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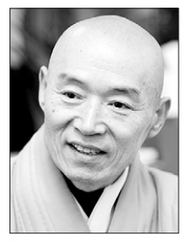
성원미달로 종회가 자동 유회됨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는 결산안도 상정되지 못했다. 폐회로 다루지 못한 종법 제 · 개정안들과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교육원장 선출 △중앙선거관위원 선출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등은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한편, 초선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정범 스님은 이번 종회기간 중 "국방부가 원불교에 특혜를 주며 불교계 다툼을 조장한다"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에 이어, 교계 종회의원 최초로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간 ·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현 교육체계·법 정착되기 바라"

조계종 교육원장 퇴임하는 청화 스님



"종단 소임도 놓았으니 이제 시심(詩心)에 젖어 시작(詩作)에 몰두하며 지내렵니다."

조계종 교육수장으로 5년간 일관된 기조로 종단 승가교육을 개선해 온 교육원장 청화 스님(사진)이 임기를 마치고 3월 24일 퇴임한다.

2004년 4월 제5대 교육원장에 취임했던 스님은 5년 임기를 원만히 회향한 첫 교육원장이다.

퇴임에 앞서 18일 교육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스님은 "떠날 때는 말없이 가야하는데 교육원 소임자들이 굳이 간담회를 마련해 사양하지 않고 자리했다"며 "모두 실무자들이 이뤄놓은 것이지 나는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청화 스님은 재임 중 남행자 856명 여행자 544명을 교육 · 수료케 해 1400명이 사미 · 사미니계를 수계해 종단의 출가자로 첫발을 내딛게 하는 등 도제양성에 힘썼다.

이외에도 스님은 각급 승가고시 체계를 확립하고 종단 스님들의 재교육 과정인 연수 및 직무직능교육을 체계화해 정착시켰다.

현종 스님(불학연구소장)은 "청화 스님은 승가교육체계 내실화를 통해 종단 도제양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종단의 사상적 근간 및 정체성 확립에 힘써 온 분"이라고 말했다.

청화 스님은 "소임을 보면서 늘 마음에 두고 챙겼던 것은 현재의 교육제도와 법이 1994년 종단개혁의 성과물이라는 점"이라며 "비록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라 해도 많은 논란 속에서 마련된 것 인만큼 그 틀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故 법장 스님 총무원장 시절 '선교육 후득도'를 위한 추진위를 구성해 결론도 도출했었으나 종회안건 상정도 못하고 폐기된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술회했다.

승려시인인 청화 스님은 퇴임에 즈음해 등단 31년 만에 첫 시집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펴냈다.

스님의 퇴임법회는 24일 오후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출판기념회와 함께 봉행된다.

조동섭 기자

포교신도단체 위한 무상대여 차량 생겨

포교신도단체들의 포교 활동 현장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무상대여 차량이 마련돼 포교 활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3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무상대여용 차량 2대의 안택식을 열고 무사고를 기원했다. 안택식에는 혜총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포교연구실장 동성 스님과 종무원 등 포교원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포교원은 포교결집과 역량강화를 위해 9인승과 12인승 포교활동 지원차량 2대를 준비했다. 포교신도단체에서 포교에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날 혜총 스님은 차량내부에 108염주를 걸며 "포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차량운행시 사고가 없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02)2011-1891 이상언 기자

"포교 노하우 한 수 배워요"

조계종 역대 포교원장 간담회

역대 포교원장 스님들이 포교결집과 포교역량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3월 14~15일 역대 포교원장 스님들을 포교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現 포교원장인 혜총 스님과 역대 포교원장 도영 암도 성타 정락 무진장 스님이 자리했다. 스님들은 14일 포교원 관계자들과 포교원 산하 신도단체 대표들을 만나 노고를 치하했다.

혜총 스님은 간담회에서 "포교역량결집에 진력을 다하고자 역대 포교원장 스님들을 모시게 됐다"며 "종단과 포교의 발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암도 스님은 "현 집행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포교에 주체적으로 임하라"고 조언했다.

성타 스님은 "스님들은 신도들의 후원과 더불어 포교원 정책을 공유하며 각 지역에 적합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영 스님은 "포교는 종단 정치 상황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찰 신도조직화는 포교의 중요부문"이라고 주장했다.

15일 혜총 스님은 계룡대 호국사, 암도 스님은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도영 스님은 자운대 자운사, 성타 스님은 종군사 법련사를 찾아 각각 장병들을 대상으로 법문했다. 무진장 스님과 정락 스님은 서울 국방부 호국원광사와 육군사관학교 호국화랑사에서 각각 법문을 했다.

한편, 포교원 관계자는 "앞으로 연2회 역대 원장들의 모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베를린 국제박람회 최우수상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이 참가한 베를린 국제박람회 ITB(Internationale Tourismus Boerse)에서 3월 14일 한국관(Republic of Korea)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코리아 스파클링(Korea Sparkling)'을 주제로 3월 11~15일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서 템플스테이는 최고의 호평을 받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국장 진경 스님과 베를린 보문사 주지 병오 스님이 직접 참석해 인경, 붓글씨, 연꽃만들기를 시연해 외국인과 현지인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이상언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현 종단 상황에 대한 보우승가회의 입장

운산 총무원장의 자진사퇴 시기에 즈음하여 현 상황을 이루어 낸 장본인으로써 보우승가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운산 총무원장은 전 태고종도에게 약속한 3월 말 자진사퇴를 이행하고 종권 연장의 추태를 당장 중지하라.
2. 운산 총무원장과 협력하여 총체적 비리를 자행하는데 동조한 구, 현 종사자들은 종권찬탈의 비행을 중지하고 자숙하여 물러나라.
3. 소위 '한국불교 바른 태고종'이라는 유령단체 명의로 종단의 혼란을 조장하고 종도들의 종론을 호도하는 불순세력은 자신의 실체를 밝히고 참회하라.
4. 보우승가회는 종도라면 누구든 실명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면 언제라도 공개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5. 소위 '한국불교 바른 태고종'이란 허위 단체의 불온문서에 명의를 도용당한 각 교구 종무원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종도들의 혼란을 방지하라.

향후 보우승가회의 행보에 의구심이 있는 종도께서는 언제라도 보우승가회에 질의하시면 공개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보우승가회 : 서울시 종로구 창신 3동 7-26. 02) 763-5213

2009. 3. 19.

한국불교태고종 보우승가회 회장 이도산

경기도교육감 선거부터
교회투표소 없다
선관위 169곳 모두 변경 밝혀

십자가를 비롯한 종교상징물로 선거 시 일반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쳐 온 교회내 투표소가 드디어 사라질 전망이다.

본지 3월 4일자 1면 보도(721호, '종교편향 시민이 잡는다') 당시 "4·29 재보궐 선거 교회투표소를 모두 변경하겠다"고 밝힌 전북, 경주 등 재보궐 지역선관위에 이어 중앙선관위와 경기도교육감선관위도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세영) 측에 폐지 및 교체의사를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종교평화위원회는 3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범불교대책위원회와 함께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종교시설 투표소 개선요청 결과 "중앙선관위가 3월 2일 '원칙적으로 종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와 더불어 3월 9일 경기도선관위도 지난해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사용했던 169개의 종교시설 투표소를 4·8 경기도교육감 선거부터 모두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선관위도 4·29 재보궐선거 시 종교투표소인 투표소 2곳을 학교 등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교시설 투표소 중 특히 교회 투표소는 유권자 종교자유 침해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다. 2007년 대선 시 1050곳, 2008년 4월 9일 총선 시 766곳에 달한 교회투표소에 대해 종교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폐지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4·9 총선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교회에서 투표하는 장면은 교회투표소가 종교인 선거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종교시설 투표소 제로화운동'이란 주제로 지역사찰 간담회를 열고 신도회 등의 민원을 유도해 개선에 앞장선 범불교도대책위와 종교평화위원회는 이번 중앙선관위의 종교 투표소 폐지 방침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두 단체는 "공직선거 시 종교투표소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더불어 공직선거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등 종교편향 관련 법령 개정으로 근본적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남북경색 불교가 뚫는다
조계종·천태종·진각종·평불협 등 북한과 접촉

미사일 발사계획과 개성공단 통행제한 등 남북경색 국면에 불교계가 관계개선을 위해 나서 눈길을 끈다. 조계종과 천태종, 진각종,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 등은 3월 16~19일 중국 선양에서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을 만나 남북 불교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평불협은 3월 16일 조불련을 만나 1997년 북한 사리원에 설립한 '금강국수공장'과 평양 국수공장 지원과 더불어 평양과 사리원 중 한 곳에 김치공장을 추가로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7일에는 조계종, 민추본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남북공동발원문 발표하기로 하고, 금강산 신계사 봉축등 달기 등도 추가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같은날 참여불교운동본부 또한 공동협력을 다짐했으며, 18일 진각종도 남북불교교류를 협의했다. 천태종도 19일 개성 영통사 순례 재개와 부처님오신날 남북공동법회, 복원공덕비 봉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평화재단은 3월 24일 서울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위기, 남북경협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제29차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불교계의 한결같은 노력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한편, 조불련은 신계사, 영통사 법회 등과 같은 정치적 사안이 민감한 부분은 북한으로 돌아가 3월 말까지 회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法寶宗刹伽倻山海印寺)' 새 현판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선각)가 개산 1200여 년 만에 새로운 산문(山門) 현판을 달았다. 3월 16일 홍류문 광장에서 열린 '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法寶宗刹伽倻山海印寺)'의 산문현판식에는 선각 스님을 비롯해 안국선원 수불 스님 등 사부 대중 4000여 명이 참석했다. 길이 11m, 폭 1.5m에 달하는 현판은 조계종단 현판을 쓴 송천 정하건 선생이 해서체로 휘호 했으며, 대구예술대 미당 이주강 교수가 이를 서각했다. 사진제공=해인사 노덕현 기자

이사장 지욱 스님 임원취임승인 취소
교과부, 서불대에 특별감사 결과 요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 특별감사 결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지욱 스님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황윤식 총장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교과부는 3월 17일 학교법인 보문학원(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이사장에게 보낸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서 5월 17일까지 처리결과를 통보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욱 스님이 이사장에 있는 동안 이사로 선임된 유영남, 고인태 이사의 승인도 함께 취소됐다.

총장대행 이봉순 교수와 안희영 교수(前 총장대행)에게는 총장 직위해제 및 해임 부당을 이유로 징계 권고가 조치됐다. 김영란 교수(前 총장대행)와 박노봉 법인사무처장은 각각 예산집행 부적정 등과 법인이사회 회의록 비공개를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수업시간 미확보를 이유로 서불대에는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조동섭 기자

불기협 양산 통도사·표충사 연수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안직수)는 3월 14~15일 경남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와 밀양 표충사(주지 재경)에서 2009년 불교기자연수회를 봉행했다. 50여 참가자들은 14일 불보종찰 통도사 금강계단에 참배하고 정우 스님의 법문을 들었으며, 15일 표충사에서 사자평 케이블카 개발사업과 관련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재가연대 10주년 기념 좌담회
21C 재가불자의 수행과 삶

불자 수행과 교육뿐만 아니라, 건전한 비판기능으로 교단자정에도 일익을 담당해온 참여불교재가연대(대표 박동건)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3월 18일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21C재가불자의 수행과 삶'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좌담회에는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을 비롯해 박희택 교수(위덕대, 불교아카데미 원장), 신규탁 교수(연세대), 김재영 청보리회 지도법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의로 불자들의 바람직한 삶을 전망했다.

마성 스님은 "한국불교에서 재가자들은 스님과 경전이 아닌 사찰에 얽메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스님 등 우리 주변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스스로 체험하고 느끼는 신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자들은 개인 수행과 더불어 사회적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부처님 지금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근본 물음을 갖고 대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규탁 교수는 "일반 불자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느끼는 신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전읽기 등을 통해 자신의 기본소양을 닦는 것도 중요하다. 1가구 1경전 읽기 등 경전읽기 문화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희택 교수는 "그동안 많이 나온 주제별 불교대전을 최근 대중들이 관심있어하는 주제별로 새로이 묶을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슬람의 기도예법처럼, 불교도 생활속 차제로 신행활동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영 법사는 "무엇보다 법회가 활성화 돼야한다"며 "사찰뿐만 아니라, 길가, 공원 어디에서든 서로 불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하고, 이 자리는 출가·재가의 구분 없이 사부대중 모두가 주인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서울시지정 불교문화재 명칭변경 추진
3월 19일 공고 전 불교계 상의 없어 논란

서울시지정 불교문화재의 명칭변경 공고가 불교계와 사전 협의없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3월 19일 서울시지정 동산문화재 222점의 지정명칭을 일괄검토하고, 학술적인 한자용어가 사용된 문화재의 지정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명칭변경에는 서울시지정 불교문화재 141점 중 98점의 지정명칭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공고안(4월 19일까지 공고예정)에 따르면 불교문화재 중 불상의 '~불(佛)', '~여래'라는 명칭은 '~불'로, '~탱화'와 '~불화'등은 '~도(圖)'로 통일된다. 또한 '~범종', '~동종' 등도 '~청동종'으로 통일된다. 서울시 공고로 명칭변경이 확정되면 석조여래좌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은 석불좌상으로, 홍무 25년 장흥사명 동종(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6호)은 봉은사 청동종으로 명칭이 각각 변경된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명칭변경 공고는 불교계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돼 문제가 되고 있다. 교계 일각에선 "명칭변경 공고 전 문화재 소장주체인 불교계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불교계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김서란 학예연구사(문화재과)는 "이번 명칭변경 공고는 그동안 서울시 문화재 용어가 다소 어렵고, 혼란스럽다는 지적을 받아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지정 주체인 서울시가 초안을 만들어 공고기간 동안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학예연구사는 또 "공고 첫 날부터 조계종, 태고종 등 각 불교종단, 학계 등에 공문을 보냈다"며 "논의과정이 더 필요하다면 공고기간이 1달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향후 문화재 명칭변경안 확정시 불교계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성 기자

구독신청·기사제보 | 02-2004-8200


세계 〃미세스 진〃 현지 방필석 촬영

신생아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네★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이름만 알려주어도 신비한 오행비법으로 건강, 적성, 재물,
미래운세 등 정확하게 무료상담하여 드립니다.

작명
이름을 잘 지어주면은
자식이 효도하고 어버이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고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같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0년 작명
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8-5577
* 작 명 : 국, 내외 우편발송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소장 방필석

운명을 바꾸는 아호, 개명
주역 개인지도

방필석 대외활동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 제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 20차 세계불교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오계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중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現 서울 보명사 주역강의 강사
前 세계불교도 우의회 홍보차장
現 한국역리학회 중앙학술위원
現 한국민속철학연구소장

출·재가 '열공' 현장

전국 열공 스님들 한자리에

경전연구회 통광 스님 법사로 2년 결사 입재





불교경전연구회가 3월 18일 2년결사 경전강좌 입재식을 봉행하고 통광 스님의 첫 강의를 진행했다.

얼어붙은 땅과 메말라 보이는 나뭇가지에서 탐스러운 싹들이 하나 둘 얼굴을 내비친다. 겨우내 그들도 스님들과 함께 동안거 기간 용맹정진하며 봄을 기다렸나보다. 삼라만상에 봄기운이 넘쳐흐르는 3월 18일, 서울 옥수동 미타사 대승암에 모인 스님들의 얼굴에도 봄이 왔다. 스님의 공부모임인 불교경전연구회(회장 지장) 2년 결사 경전강좌가 시작된 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60여 스님들의 정진 열기에도 한껏 물이 올랐다. 스님들은 반갑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녹음기를 준비하고 새로 받은 교재를 펼쳐보며 새 출발을 각오한다.

강좌는 앞으로 2년간 〈진심직설〉 〈몽산법어〉 〈이입사행론〉 〈증도가〉 〈간화결의론〉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스님들 간 논의를 통해 경전을 선택해 공부한다.

강주는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지리산 칠불사를 복원한 통광 스님(하동 칠불사 주지 · 사진)을 모셨다. 통광 스님은 59년 10월 부산 범어사에서 여환 스님을 은사로 득도, 63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듬해 범어사 강원에서 사교를 수료했으며 〈초의다선집〉 〈고봉화상 선요〉 등의 저서를 낸 스님은 선과 교, 차(茶)에 두루 능통한 강백이다.

이날 통광 스님은 〈선문촬요(禪門撮要)〉강의에 앞서 "생사를 여의고, 번뇌를 끊고,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삼계를 벗어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출가한 만큼 분발심을 내길 바란다"며 "간단 명쾌한 어록과 체계를 갖춘 경전을 함께 공부해 회광반조(回光返照)하고 자심성찰(自深省察)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 시작된 불교경전연구회는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1년에 2번 이상 전통선원에 입방해 선원장 스님들의 지도아래 정진하며 승가의 아름다운 전통을 창조하고 있다. 경전연구회는 조계종 산하 불교대학 교수사를 양성해 전 종도의 교육화, 조직화, 체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장 스님은 "2년 결사는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 승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출발점"이라며 "증역 소임을 맡고 계시는 스님들이 현장에서 경전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신도교육과 포교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11)420-7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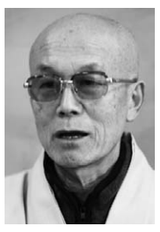
이상언 기자

이보다 더 잘 살 순 없다

활인선원 '참선대중화를 위한 정진대법회' 입재



안성 활인선원에서 열린 '참선대중화를 위한 정진대법회'에 70여 사부대중이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다.



현대인들은 시간과 일에 쫓기는 바쁜 생활 속에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지 못한 채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죽은 삶을 살아간다. 죽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 삶다운 삶, 깨어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하는 안성 활인선원(원장 대효 · 사진)에 70여 사부대중이 모였다. 3월 13~15일 '참선대중화를 위한 정진대법회'에 전국 각 지역에서 참선의 맛을 보기 위해 재가수행자들이 모였다.

첫날 대효 스님은 입재식을 봉행하고 간화선의 가치와 삶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관에 대해 법문을 했다. 스님은 "내 것이라는 틀 속에 갇혀 집착하고 사량분별과 시시비비를 하며 무명이라는 껍데기를 의지처로 삼아 살아가는 것은 중생"이라며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항상 되돌아보며 참나 찾아 지혜를 관조하는 삶을 살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정진에 들어간 둘째 날 스님은 "원점을 벗어난 행위는 작용이며 모든 작용은 실체가 아니니 착각하지 말라. 이러한 망상으로 중생들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며 "머리를 쓰는 것 또한 타성, 유념이니 무언가를 바꾸려 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오직 '무엇인가'라는 화두에 힘쓰기에 열중하라"고 말했다. 대효 스님의 점검과 법문은 간단명료하고도 통쾌하다. 대중 점검을 실시해 참가자들이 참선을 하면서 갖는 의문과 답을 공유함과 동시에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날 스님은 "잘 살아 가는 길이 궁금할 때는 수단과 목적이 정확해야하고 그 길을 잘가고 있는가를 수시로 물어보라"며 회향식을 거행했다.

참가자들은 3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해 인생의 희망을 보고 삶의 길을 찾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 정진대법회에서는 금강단식수행을 진행하지 않고 제주도에서 가져온 유기농 채소로 된 질 높은 공양을 제공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제주도 원명선원 신도 등이 봉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앞으로 활인선원은 가족단위 참가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주말단식수행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가불자들을 위한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5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하며 간화선의 대중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031)671-7707

이상언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가)불교생활의례문화원 설립 발기인 대회 봉행

조계종은 성년식, 결혼식, 돌, 칠순 · 팔순 잔치 등 불교적인 통과의례를 현대에 맞게 개발해 문화행사와 병행 보급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4월 14일 오후 3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설 불교생활의례문화원(가칭) 설립 발기인 대회를 봉행하고 △불교생활의례문화 연구사업 △불교생활의례 문화사업 △불교 상제례 교육사업 △생활상조 · 불교상조 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 사업은 문화원이 자체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중앙신도회 관계자는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설립에 따라 불교생활의례의 통일된 매뉴얼, 불교인 상호간 상부상조(相扶相助)의 문화가 더욱 확산을 기대한다"며 "불자들의 생활의례 민원과 고충을 해결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생활의례문화원(가칭)에 참여하는 발기인들은 현재 문화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교상례 전문지도사 과정 교육생, 불교 상례봉사자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수료생, 중앙신도회 임원, 불교인재개발원, 불교신행단체, 종단과 사찰 등이다.

이상언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을 열었습니다
www.hyunbul.com

파라미타 4월 5일 전국 청소년 연합법회

서울 · 경인 지역 사찰청소년법회 지도자와 법회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화합의 한마당이 펼쳐진다.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가 주관하고 봉축위원회가 후원하는 '제3회 서울 경기 인천 사찰청소년 연합법회'가 4월 5일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연합법회는 청소년 법회 법우 간 우의를 다짐과 동시에 지도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자리다.

1부 법회에 이어 2부에서는 학생들이 사찰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사찰별 장기자랑과 비보이 댄스, 연등축제 율동 등 화합의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날 행사를 마치고 조계사 일대 환경정화에 동참한 학생은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02)723-6165

이상언 기자

구독신청 · 기사제보 | 02-2004-8200

BBS영어강좌 "Hello~Dharma~!"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방송



스님을 영어로 한다면? 'Buddhist priest? Venerable? Zen Master?' 오전 10시부터 불자들을 찾아가는 BBS 라디오 인기프로그램 월호 스님(사진)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의 영어강좌가 화제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진행하는 '헬로우~달마!'. '불교의 세계화, 세계인의 불교도화'를 목표로 한 BBS라디오 제작진의 야심찬 도전이다.

이 시간은 불자들이 신행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불교용어를 영어로 배우며, 선불교의 세계로 안내한다.

최윤희PD를 비롯한 제작진은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며 십우도 게송까지 다양한 부처님 말씀을 영어로 배울 예정이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02)705-5114

노덕현 기자

신행게시판

●**김천 성전사 '선정삼매수행'**=김천 성전사는 4월 3~7일 성전사에서 정명 스님이 지도하는 선정삼매수행을 진행한다. 아나빠나사띠(들숨과 날숨에 마음챙김)와 법문을 통해 초기 불교수행법을 듣는다. 선착순 8명 모집하고 참가비는 자율보시. (054)434-9090

●**정토회정토회 '명상수련'**=정토회는 4월 7~11일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명상수련을 실시한다. 20~70세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보시금은 15만원이다.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해운대정토회에서 오후 3시, 7시 30분은 울산정토회에서 법륜 스님 '즉문즉설'이 진행된다. (02)587-8994

●**제따와나선원 '불교기초교리 법회'**=제따와나선원은 4월 3일~7월 3일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부처님 일대기를 중심으로 불교 기초교리 법회를 개최한다. 참가비는 일반 10만원, 학생 7만원. (02)595-5115

●**금강선원 '혜거 스님 특별참선지도와 법문'**=금강선원은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선원 큰법당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혜거 스님의 특별 참선 지도와 법문을 펼친다. (02)445-8484

종정 월정 대종사 · 총무원장 일웅스님 추대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사단법인 설립 기념 대법회 – 월정 종정 전법 반세기 기념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교가 세상에 태어난지 3000여년, 우리나라에 전래된 지 1600여년, 수 많은 세월속에 시시비비를 거쳐 오늘에 이르러 1988년 5월 28일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수 없이 많은 종단이 우후죽순 설립되어 나름대로 불교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본 한국불교조계종은 사단법인(비영리 종교법인) 설립을 필하고 명실공히 반듯한 체재속에서 단결과 화합으로 깃발을 높이 들고 불교중흥에 이바지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보살도를 실천하고자 이와같이 법회를 봉행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자은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일웅 김철우 합장

사)한국불교조계종 임원

종정 월정 대종사

원로위원장 방장 법일 대종사 원로위원 지암 춘파 진성 무학 자화 일월 거해 천왕

총무원장 일웅 부원장 진성
총무부장 법성 재무부장 혜명 교무부장 무유 사회부장 서경 문화부장 보타
비구니 회장 혜양
사정원장 진성 기획실장 지광 교육원장 진성 포교원장 일월 감찰원장 호유
호계원장 거해 법사단장 청룡 교임단장 월명

서울경기교구종무원장 지광 충북교구종무원장 혜안 경북교구종무원장 지연
경남교구종무원장 지암 전라남부교구종무원장 현광 전라북부교구종무원장 춘파
대구교구종무원장 부덕 울산교구종무원장 도암 부산교구종무원장 무학

◆일시 : 2009년 4월 17일(금) 11시 ◆장소 : (사)한국불교조계종 종찰 천수사 – 울산 북구 대안동 439
◆문의 : 총무원(청룡사) 053-939-5888, 010-4811-6111 / 종찰(천수사) 052-298-1083, 010-6361-67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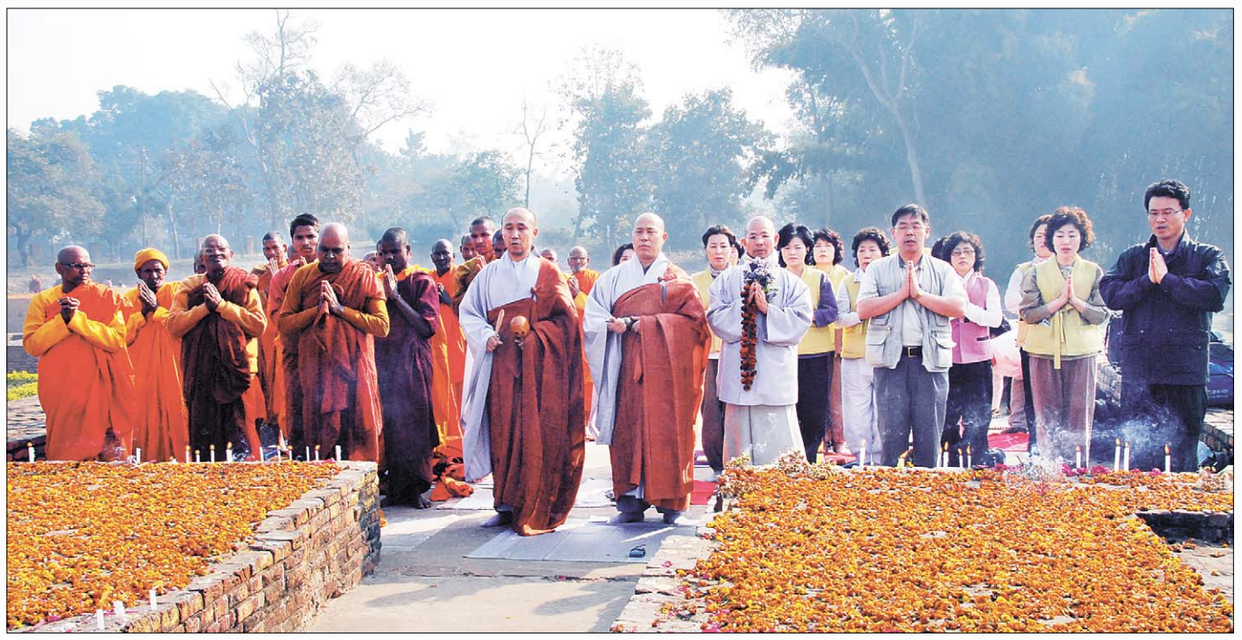
후원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 사단법인 세계평화연합법인회 / 108TV 연합불교방송 / 세계불교승왕청

“내 법체 사라지더라도 성지 순례하며 정진하라”

특별기고
부처님 8대 성지를 가다

우리는 인도와 네팔의 룸비니, 보드가야, 사르나트, 쉬라바스티, 상카시아, 라지기르, 바이살리, 쿠시나가르를 흔히 부처님 8대성지라 부른다. 고타마 싯다르타라는 인간이 본래면목을 확인하고 부처가 되어 중생을 구제하고 법을 전했던 곳들이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불자들은 이곳들을 순례하며 신심을 다진다.

조계종 총무원은 2월 12~22일간 부처님 8대 성지를 순례하는 기획취재를 진행했다. 여기에 동행했던 조계종 홍보팀 유철주 주임의 ‘구법기’를 통해 부처님 성지를 함께 돌아본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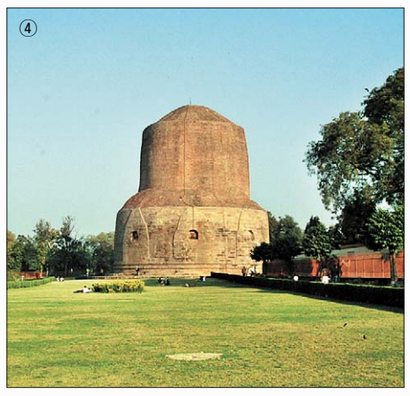


기획취재단을 비롯한 세계의 불자들은 2월 14일 <금강경>이 설해졌던 간다쿠티에서 ‘조계종 표준 <금강경>’ 발간을 부처님께 고했다.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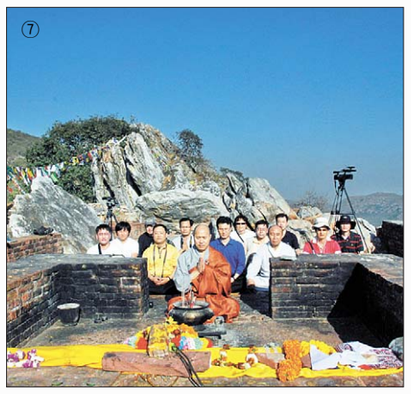

③


④

①인도인의 영원한 안식처 갠지스강. 해질무렵 갠지스강은 배와 사람들로 북적인다.
②부처님이 태어난 룸비니. 연못과 사원, 아쇼카 석주가 나란히 서 있다.
③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보리수 나무 아래서 불자들이 예불을 올리고 있는 모습.
④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했던 자리에 세워진 다메크 스투파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했다.
⑤부처님 열반 후 사리를 모신 바이살리 스투파와 아쇼카 석주. 아쇼카 석주는 인도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⑥부처님이 도리천에서 내려온 자리에 세워진 사원이 있는 상카시아 스투파에 널려 있는 유물.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다.
⑦부처님이 법회경을 설했던 여래향실 자리에서 잠시 입정에 든 기획취재단.
⑧열반당에 누워있는 부처님의 얼굴이 너무 평온하다.


⑤


⑥


⑦


⑧

부처님이 열반하기 직전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전에는 비구들이 각 지방에서 안거를 마치면 세존을 뵙고 법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존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면 저희들은 더 이상 법을 들을 수 없게 되니, 그것이 몹시 슬픕니다.”

“아난다야,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숭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곳이 넷이 있다. 내가 태어난 곳, 내가 깨달음을 얻은 곳, 내가 처음으로 설법한 곳, 그리고 내가 열반에 든 곳이다. 그곳은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경배할 곳이다. 그곳을 순례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죽어서 다시 태어날 것이요, 하늘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지만 도를 얻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당신의 법체가 사라지더라도 대중들이 성지를 순례하면서 정진하기를 당부했다.

이번 순례를 통해서 새삼 느낀 것이지만 성지를 직접 가서 보는 것과 간접적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크다. 현장에서 느끼는 환희심은 가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인지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도 대중들에게 성지순례를 많이 권한다고 한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필자는 종단이 진행한 8대성지 기획취재가 ‘인연’이 돼 순례길에 올랐다.

2월 12일 공항에서 출발한 20명의 기획취재단은 비행시간만 9시간이 소요되는 여정으로 인천을 출발해 델리에 도착했다. 현지시각 12시(한국은 인도보다 3시간 30분 빠르니 정말 한밤중에 도착한 것이다)가 넘어서 닿은 델리는 자욱한 안개와 어둠뿐이었다.

그 옛날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으로 수만리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현장 스님과 법현 스님, 혜초 스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독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13일 우리 일행은 1시간 30분 눈을 붙인 후 기차를 타고 첫 번째 순례지 쉬라바스티로 향했다. 인도의 중심 델리역은 인도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끝없이 이어지는 인파와 대합실 어디에서나 노숙하고 있는 시민들, 승강장에서 ‘진하게’ 느껴지는 오물냄새…. 철길 사이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오물들은 ‘이곳이 한 나라의 수도가 맞나?’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기차를 타고가면서는 더 큰 충격에 빠졌다. 인도에서 제5계급이라 불리는 ‘불가촉천민’을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불가촉천민들은 풀과 천으로 얼기설기 이은 ‘움막’에서 살고 있었다. 말 그대로 ‘거지차림’에, 평소에 무엇을 먹고는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야윈 몸들 뿐이다. 안타깝고 답답했다. 부처님과 암베드카르가 왜 ‘해방’과 ‘차별 철폐’를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될 정도다. 기차는 빠르게 달렸지만 불가촉천민의 모습은 한동안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온통 낯선 모습에서 인도가 정말 먼 나라임을 생각한다. 인도가 내 마음속에 쉽게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으로 순례를 시작했다.

그래도 설레임은 살아 있다. 부처님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두근거린다.

기획취재단이 맨 먼저 찾은 곳은 쉬라바스티. 부처님이 24회 우안거를 지냈고 조계종 소의경전 <금강경>을 비롯해 현재 전해지는 대승경전의 2/3를 설한 기원정사와 수닷타 장자 스투파와 앙굴리말라 스투파 등이 있는 곳이다. 기원정사 터는 아득하고 포근했다. 넓게 뻗은 대지에 잘 꾸며진 정원처럼 기원정사는 자신의 품을 사람들에게 내주고 있다.

기원정사에서 기획취재단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금강경>이 설해졌던 ‘간다 쿠티’에서 종단 표준 <금강경>의 발간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을 약식으로 봉행했다. 부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우를 들고 탁발을 해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아 공양을 하는 의미만 알아도 <금강경>을 다 본 것이라고 하는 고승들의 말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기원정사에 직접 앉은 것만으로도 셀 수 없는 공덕을 쌓은 듯 했다.

하루가 지나고 우리는 룸비니와 쿠시나가르를 찾았다. 이른 아침 자욱한 안개 속에 숨어있던 룸비니에는 부처님이 태어난 곳에 세워진 마야데비 사원과 마야부인이 몸을 씻었다는 연못, 아쇼카 석주 등이 남아 있다. 마야데비 사원 안에는 부처님이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며 걸었던 족적이 남아 있어 순례객들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우문인가? 부처님의 족적을 보아도 그 답은 보이지 않았다.

룸비니를 참배하고 7시간을 달려 도착한 쿠시나가르는 우리 나라의 작은 공원과 같은 분위기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공원 곳곳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다. 열반당 근처에는 태국, 티베트, 미얀마, 네팔, 일본, 대만 등지에서 온 스님과 불자들로 북적인다. 부처님은 바이살리에서 쿠시나가르로 ‘열반의 여정’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다. 생로병사를 보고 출가한 부처님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 열반에 들었던 것이다. 순례길에서 만난 조계종 원로의

먼나라 인도서 마주한 부처님 흔적에서 다시 한 번 발심
인도불교 쇠퇴 원인서 현대한국불교의 나아갈 길 찾아야

원 고우 스님은 “부처님이 너무 아파서 멸진정에 들어버리는 구절이 경전에 나온다”며 “부처 역시 인간으로서 마지막 길을 가셨다”고 전한다.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당연하다. 부처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열반당에 누워 있는 부처님의 얼굴은 그저 평온할 뿐이다.

바이살리는 삼처전심 중의 하나인 다자탑이 있고 부처님 사후 제2결집이 진행됐던 곳이다. 이곳에는 아쇼카 석주와 대형 스투파 2개, 대림정사 터가 있다. 스투파2는 부처님 입멸후 8등분된 사리를 분배받은 바이살리의 릿차비족이 부처님 사리를 모신 것이다. 스투파1 역시 아쇼카왕이 세운 것으로 부처님 사리가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 눈에 띄는 것은 스투파1 옆의 아쇼카 석주와 사자상이다. 이 사자상은 쿠시나가르를 향해 앉아 있는데,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이 바이살리에서 쿠시나가르로 이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바이살리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유마 거사.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라는 일화로 잘 알려진 유마 거사는 부처님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르러서도 ‘재가 불자’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유마 거사의 법력이 높아 부처님 제자 중 어느 누구도 문병하기를 꺼려, 문수보살이 가서 만나 나눈 불이법문은 아직도 게으른 나를 채찍질 한다.

계속해서 우리는 세계 최대 불교대학이었던 나란다 대학터를 둘러보고 라지기르로 갔다. 라지기르에는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했던 영축산과 왕사성, 불교 최초의 사찰인 죽림정사, 빔비사라왕 감옥터 등이 있던 곳이다. 영축산 정상에 오르니 왜 이름이 영축산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독수리 머리 모양의 바위가 순례객을 맞이한다. 부처님이 머물던 여래향실과 아난이 거처했던 시자실에는 형형색색의 꽃이 놓여져 있다. 마치 부처님이 설법 도중 갑작스레 한 송이의 꽃을 들어 대중들에게 들어 보이셨고 모든 대중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었음에도 마하가섭만이 꽃을 들어 보인 뜻을 알아채고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듯이. 한국의 그것과 같이 영축산은 넓고 포근했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었던 보드가야는 정말 성지다웠다. 세계에서 온 불자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고 참배하는 이들도 많다. 참선에 든 한국 불자, 오체투지를 하는 티베트 스님, 진언을 하는 대만 불자. 생김새와 수행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부처님 깨달음 자리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다르지 않다.

마하보디대탑에 들어가 부처님을 참배하니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객들이 꽃공양을 올리는 모습에는 정성이 가득하다. 시간을 내어 절이라도 실컷 하고 싶지만, 빠듯한 일정 때문에 이동해야했던 것이 아직도 아쉬울 따름이다.

사르나트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후 법을 처음으로 설한 곳이다. 과연 사르나트에는 녹야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슴이 살고 있었다. 또 ‘진리를 보는 탑’이라는 뜻을 가진 거대한 다메크 스투파도 우뚝서 있다. 벽돌뿐이기는 하지만 거대한 승원 터와 아쇼카 석주도 남아있다. 부처님이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이룬 뒤 사르나트에 있는 다섯 비구를 만나러 가는 마음은 어땠을까?

부처님 성지는 아니지만 인도인 전체가 ‘생명의 강’으로 생각하는 갠지스강에 들렀다. ‘강가’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모든 죄업이 없어져 천상에서 태어난다는 곳이다. 일행 중 누가 “목욕을 해서 죄가 없어지면, 갠지스강 물고기들이 제일 먼저 천상으로 가겠다”는 말을 던지자 내 말문이 막혔다. ‘평소에 잘 살라’는 뜻으로 고맙게 받아들인다.

갠지스강에서는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 새로 태어나기 위해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무더미 위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다. 화장터에서 불에 태워지는 사람들 사이사이에 능청스럽게 앉아 있는 소와 장난치며 뛰어다니는 아이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참고로 화장 역시 계급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제일 높은 곳에서는 브라만, 제일 낮은 곳에서는 수드라 신분의 사람들이 재로 변한다.

우리가 부처님 8대 성지중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상카시아다. 쉬라바스티 천불화현 스투파에서 이교도에게 ‘이적’을 보이신 후 홀연히 자취를 감추어 도리천에서 마야부인에게 법을 설하고 내려오신 곳이 바로 상카시아다. 상카시아는 부처님이 인간과 신의 영역 중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게 하는 곳이다. 어느 스님의 말처럼 “부처님이 신성시 되다 보니 상카시아의 경우와 같이 ‘신’적인 영역이 생긴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보면 될 듯 하다.

상카시아는 다른 성지에 비해 발굴도 더디고 찾아오는 사람도 적어 인근 주민들도 비교적 순수해 보였다. 다른 성지의 경우 순례객들 모습만 보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민 대부분이 “원달러” “텐루피”를 외치며 이방인들을 따라 다녔지만 상카시아 사람들은 순례객들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동산 크기의 상카시아 스투파 정상에 가니 여기저기 뒹구는 유적들이 널려 있어 한편으론 마음이 아팠다.

순례를 하며서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 인도에서는 왜 불교가 망했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하게 된 원인으로 대중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일반대중들이 행하고 있는 의례를 부정하면서 실제생활에서 그에 대체할 만한 것을 제시하지 못했고 모든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평등사상을 가진 불교가 종교적으로는 다양한 계층에게 수용되지 못했다는 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힌두교는 토속적인 신앙을 포용하고 일상생활 규범을 체계화해 대중을 포용했다고 한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한국불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중들이 고민하고 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불교는 그 법륜을 더 잘 굴릴 수 있다. 부처님이 삶을 통해서 보여준 ‘눈높이’ 포교, ‘맞춤형’ 수행 등은 아직도 우리에게 절실하다.

부처님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을 둘러보면서 다시금 부처님 가르침과 실천대로 살 것을 생각한다. 더 잘 살아야겠다고 또 되새긴다. 차별 없이 잘 살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본래면목을 찾아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그려본다.

인도에 다녀와서 하루 108배를 다시 시작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절이어서이긴 하지만, 한 배 한 배 머리를 숙이며 하심하고 또 하심하기를 다짐한다.

글 · 사진=유철주(조계종 홍보팀)

해 외 WORLD

"티베트 문제 상식적으로 대응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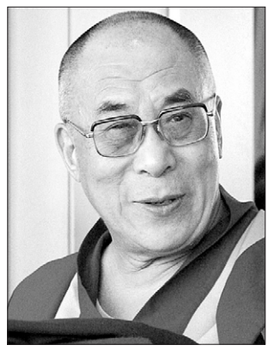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 성명… 中 외교부 "거론할 가치 없다"

3월 10일 티베트 무장봉기 50주년을 맞아 티베트 평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던 달라이 라마가 이번에는 중국 지도부를 향해 "좀 더 상식적인 대응을 하라"고 촉구했다.

달라이 라마는 현지시간으로 3월 11일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서 법회를 가진 뒤 "이제 중국 지도부가 티베트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상식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 이는 영원하지 않으며 미래는 밝다"며 "중국 지식인들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우려와 동정심을 보였으며 희망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달라이 라마는 3월 10일 티베트 봉기 50주년 기념 연설에서 "중국은 티베트인을 깊은 고통과 압제 속으로 몰아넣었고, 티베트 인들은 말 그대로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는 수 만명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달라이 라마.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자오쉬(馬朝旭)는 "진실이 뒤바뀐 거짓말은 다시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고 "티베트는 농노 해방 이후 50년간 눈부신 번영, 발전, 평화를 이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P통신은 3월 10일 티베트에서 긴장이 고조되자 중국 정부는 세계적인 관광지인 쓰촨(四川)성 주자이거우(九寨溝)와 황룽(黃龍)에 대해 외국인은 물론 홍콩 · 대만인의 관광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티베트 불교사원인 랑무쓰(郎木寺)로 유명한 간쑤(甘肅)성 루취(碌曲)현은 내 · 외국인 모두 출입이 금지됐다.

이나은 기자

불교와 공존 주장 무슬림 女운동가 '피살'

태국 남부 분리주의 무장단체에 의해

무슬림 출신의 여성 인권운동가가 분리주의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불교국가인 태국 남부 국경지역의 분쟁 종식이 멀어질 전망이다.

국제인권단체 더휴먼라이츠와치(HRW)는 3월 19일 "태국 남부 무슬림 우세지역에서 불교도와 무슬림의 평화 공존운동을 펼치던 라일라 파이테 다오가 방콕에서 750㎞ 떨어진 얄라주(州) 크롱페낭 지방에서 12일 대낮에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숨졌다"고 밝혔다.

라일라는 말레이 무슬림들과 태국 불자들의 평화공존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남부 국경지대 '여성과 평화그룹', 어린이인권단체 '룩리앙'에서 활동을 해왔다. 라일라와 그녀의 가족들은 태국과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무슬림 무장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왔으며 큰 아들은 2004년, 남편과 둘째 아들은 2006년도에 각각 분리주의자로 추정되는 괴한에게 살해됐다.

HRW의 브래드 애덤스 아시아 담당 국장은 "라일라의 죽음으로 불교도와 무슬림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이들에게는 큰 손실을 안겼으며 그녀의 목숨은 분리주의 단체들이 평화를 위해 태국정부에 협력하는 무슬림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잔인하게 이용됐다"며 "라일라 가족들의 죽음은 의심할 여지없이 남부 무슬림 공동체 지역에 공포를 확산시키는 사건이 됐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금니 화엄경 展

원응 스님 중국서

함양 서암정사 회주 원응 스님은 3월 15~24일 중국 상해 옥불선사에서 '금니 화엄경 전시회'를 개막했다. 15일 개막식에서 원응 스님이 상해시불교협회 회장 각성 스님(옥불선사 방장), 서암정사 주지 법인 스님, 상해시 대외교류협회 부회장 정가요 비서장, 하현봉 한국총영사관 영사, 주상해 상해한국문화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김성우 기자

제주 첫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첫 삽

약천사, 3월 17일 자광원 착공

"시각장애와 같이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불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불교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약사여래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지역에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이 최초로 들어서게 된다.

제주 약천사(주지 성원)는 3월 17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제주 약천사 자광원' 설립을 위한 착공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을 비롯해 공사를 시행하는 덕성종합건설(대표 오덕성) 관계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해 6개월여 대작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2008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김태환)로부터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설립을 허가 받은 약천사는 대적광전 인근에 들어설 자광원을 전통양식을 가미한 전통기와가 올려진 외형으로 설계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공사비는 보건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9억8000만원을 지원받으며 별도의 토목공사비, 조경비, 설비비 등은 약천사가 부담할 계획이다. 약천사는 자광원이 전통양식의 기와지붕으로 건립되면서 추가되는 기와비용도 직접 마련하기로 하는 등 사찰단위의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는 불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이 없어 아쉬움이 컸다. 약천사 자광원의 설립에 제주불교계와 장애인복지 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갖는 이유다.



제주 약천사(주지 성원)는 3월 17일 제주도내 불교계에서 최초로 운영하게 될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자광원' 설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성원 스님은 "약천사의 4대 활동목표(불법홍포, 사회교화, 요익중생, 동성불도) 중 요익중생(중생을 이롭게 한다) 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자광원 설립을 계기로 약천사 창건주 혜인 스님이 주창하고 가르쳐 온 실천적 기본이념인 약사여래의 서원을 담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정부의 지원금은 한계가 있다. 착공을 계기로 전국에 분포된 신도망을 정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행 및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자광원 운영에 동참하도록 후원회를 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원 스님은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포교도 펼칠 예정이다. (064)738-5000 이나은 기자

장애노인 마라톤 준비 '착착'

연꽃마을 마라톤대회사무국 현판식


연꽃마을은 6월 7일 제2회 전국 효사랑 마라톤 대회에 앞서 3월 17일 마라톤대회사무국 현판식을 가졌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이 6월 7일 '제2회 장애인을 위한 2009 전국 효(孝)사랑 마라톤 대회' 개최를 앞두고 3월 14일 바라밀노인요양원에서 마라톤대회사무국 현판식을 봉행했다.

지난해 노인복지시설로는 최초로 하프마라톤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던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효(孝)사랑 마라톤은 병원과 요양원을 이용하는 병든 노인들을 내 부모님처럼 이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동체대비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행사"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대회장 각현 스님을 비롯해 이수영 마라톤조직위원장(죽산체육회장), 장철중 교수(대구대), 김완기 선수(前 마라톤 국가대표), 이수열 발행인(마라톤타임즈), 연꽃마을 산하 시설 시설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제2회를 맞이한 '효(孝)사랑 마라톤 대회'가 지난해 처음 시작됐을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엷애고 친근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고 장애노인의 복지증진과 효의 사회화에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대회 종목은 하프(21.0975㎞), 10㎞, 5㎞ 3종목이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념품과 완주메달, 기록증이 제공되며, 종목에 따른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참가 신청접수기간은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031)671-3677, www.lotusmarathon.co.kr

이나은 기자

붓다의집 갓바위치매센터서 봉사

한국증권금융 대구지점 임직원들 사랑 나눔

고환율, 주가하락으로 금융공황이 심화되는 요즘, 한 증권사 지점이 3년 동안 꾸준히 노인요양시설에 기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해 와 잔잔한 감동을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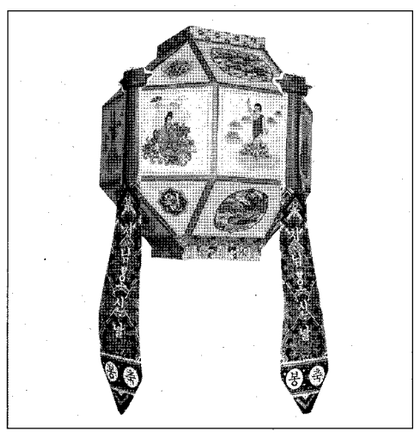

2006년부터 꾸준히 노인요양시설에 기부를 하고 봉사해온 한국증권금융 대구지점 식구들이 물리치료실을 청소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 대구지점(지점장 김용구) 임직원 일동은 3월 14일 대구 동구에 위치한 감천복지재단(이사장 오정) 부설기관인 노인요양시설 '붓다의 집 갓바위치매센터'에 방문해 청소봉사 활동을 했다.

또한 2006년부터 매 분기 마다 방문해온 그들은 '매칭그란트(직원 급여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공제해 모금한 금액과 회사가 동반 기부하는 사내 기부 프로그램)'로 모은 기부금을 해마다 500만원씩 전달해왔다.

갓바위치매센터 관계자는 "한국증권금융 임직원분들은 화장실청소부터 시작해 방청소, 잡초뽑기, 빨래 등 궂은일을 도맡아 최선을 다한다"며 "그분들이 오면 시설의 묵은 때가 확 벗겨지는 듯 하다"고 말했다.

김용구 점장은 "봉사가 남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보람도 있다"며 "5명의 적은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단합의 자리를 마련하고 보람을 느껴 뿌듯하다.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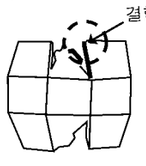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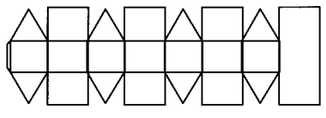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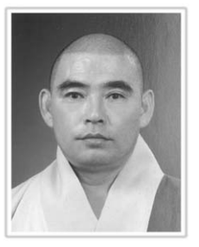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016-552-9360
(043)877-8236 011-9790-4788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 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 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 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임산부 무통분만

서울지사 : 보광사
H·P 016-9511-0840
●서울교육 : 연중무휴
※ 전국 지사 모집. 지속적인 광고지원 ※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H·P 010-3056-3315/010-5656-3915
●부산교육 : 연중무휴 (숙식가능)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장사 현오합장
HTTP://WWW.JIJANGSA24.ORG

미륵사지 창건주 선화 공주냐 사택 왕후냐 '설전'

한국사상사학회 '익산 미륵사지와 백제 불교' 학술발표회

선화 공주의 익산 미륵사 창건설은 과연 허구일까? 1월 14일 익산 미륵사지서석탑에서 사리봉안기가 발견됐다. 사리봉안기는 선화공주에 의한 익산 미륵사 창건설을 비롯해 서동과 선화 공주의 사랑이야기마저 허구로 몰고 있다. 지금까지 백제 무왕의 왕비는 <삼국유사>에 근거해 신라 신평왕의 셋째공주 선화로 알려졌으나, 사리봉안기는 "우리 백제 왕후는 좌평 사택적덕의 딸로…"라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한국사상사학회(회장 최기영)가 3월 14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익산 미륵사지와 백제 불교'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발표회에서는 선화 공주의 실존에 대한 설전이 오갔다.

사리봉안기를 최초 번역한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주제발표 '백제 무왕의 왕후와 미륵사 창건'을 통해 사리봉안기 기록에 근거해 사택 왕후에 의한 미륵사 창건을 지지했다.

김상현 교수는 "지금까지 <삼국유사>의 기록이 맞았다고 해서 백제 무왕에 대한 기록도 맞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왕흥사와 미륵사를 혼동해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사리봉안기는 미륵사 창건 당시(639년)에 작성됐지만 <삼국유사>는 13세기(1281년)에 설화적 윤색을 더해 쓰여졌다"며 "서동과 선화 공주 이야기는 설화일 뿐 역사로는 보기 어렵다. 사리봉안기의 기록을 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화 공주가 백제 무왕의 왕후였거나, 선화 공주가 미륵사 창건을 발원하고 사택 왕후가 완공시켰을 가능성조차도 희박하다"고 못 박았다.

길기태 박사(국가기록원)와 조경철 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는 각각 주제발표 '무왕대 미륵사 창건과정과 불교계'와 '백제 익산 미륵사 창건의 신앙적 배경'에서 선화공주가 미륵사를 창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길 박사는 "<삼국유사>가 선화 공주를 '부인(夫人)'으로 표현했고, <삼국사기>에는 '무왕이 빈(嬪)과 큰 연못에서 놀았다'는 기록도 있는 것으로 볼 때 무왕이 왕비와 부인을 여럿 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월 14일 서강대 다산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한국사상사학회 학술발표회 모습.

조경철 박사는 선화 공주와 사택왕후가 미륵사를 나눠 창건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동원(東院)과 서원(西院) 중원(中院)의 '3원 병립식 구조'를 갖췄던 미륵사의 동원과 서원은 사택 왕후가, 목탑이 있던 중원은 선화 공주가 조성했다는 주장이다.

조 박사는 "미륵사는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조성됐으나, 이번에 서탑에서 발견된 사리봉안기에는 미륵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제 명문가였던 사택씨는 법화신앙과 관계가 깊었다"며 "법화신앙을 가졌을 사택 왕후가 미륵사 전체를 지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상현 교수는 불교사상을 석가모니신앙, 미륵신앙, 화엄신앙 등으로 갈라보는 시각 자체가 무리"라며 "미륵불은 석가모니불에 의해 미래불로 약속 받았다. 석가모니불에 대한 신앙 없이는 미륵신앙도 존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사택 왕후와 선화 공주가 나눠 미륵사를 지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륵사지 발굴성과로 보면 3원의 창건 시기가 달랐다거나 창건 발원자가 달랐다고 보기 어렵다. 사리봉안기도 사택왕후가 정재를 희사해 가람을 세웠다고 기록했다. 가람은 삼원으로 된 미륵사 전체를 봐야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신라사학회(회장 김창겸)가 21일 국민대 경상관에서 '익산 미륵사지 출토 유물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주제로 개최한 제82회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손환일 연구교수(경기대)가 "미륵사서석탑에서 사리봉안기와 함께 발견된 18점의 금제소형판은 백제인이 사용하던 금화(金貨)"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하택신회선사 어록' 발간

박건주 박사 번역



하택신회 선사(684~758)는 육조 혜능 선사의 제자다. 활대(滑臺)의 종론(宗論)으로 육조 혜능 선사를 보리달마의 종지를 이은 정통으로 만든 인물이다. 하택신회 선사는 중국 선종사는 물론 육조 혜능의 법맥을 이은 한국 선종에도 중요한 업적을 이뤘지만 정작 사료 등이 부실해 왜곡·폄하돼 왔다.

박건주 박사(성균관대·사진)는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법상)의 지원을 받아 <하택신회선사어록>(씨아이알 刊)을 발간했다.

2007년 10월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 소장학자지원사업 번역부문 수혜자에 선정된 박 박사는 하택신회 선사에 관한 중요 자료인 돈황문헌의 번역을 시작한지 1년 반 만에 성과물을 냈다.

두 번째 불교연구총서로 발간된 책은 1세기 전 돈황에서 발견된 하택신회 선사의 보리달마남종정시비론 등 어록 법문과 6종을 번역·수록했다.

박건주 박사는 "돈황문헌의 하택신회 선사 어록을 번역해 △초기선종의 선법 △돈법과 점법의 구분 △남돈북점의 문제 △후대에 전개된 선종사와 그 의의 △종밀의 남북회통론에 끼친 영향 △후대 선법과의 차이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는 한국불교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장학자를 지원하자는 정일 스님의 원력으로 2004년 출발했다. (02) 2275-8603

조동섭 기자

'일본 오타니대학 소장 고려대장경' 나와

일본 소재 고려대장경의 목록집이 발간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 이하 연구소)는 <해외전적문화재조서목록-일본 오타니대학(大谷大學) 소장 고려대장경>을 3월 12일 발간했다. 이번 목록집 발간은 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해외 기관 소장 전적(典籍) 현황 및 실체 파악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오타니대학 고려대장경은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으로 587상자에 4995첩이 보관돼 있다. 해인사 고려대장경판(국보 제32호, 세계기록유산)을 찍어낸 것으로 현존 최고(最古) 고판본이다.

연구소 김인규 학예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각수(刻手, 나무 등을 조각하는 사람)들의 조직과 작업장소로 보이는 중방, 동방 등을 확인했다"며 "국내에는 고판본이 없어 대장경 판간 당시의 면모를 살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곡대학 소장본은 국내 고려대장경 연구에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수월관음도' 展

고려불화 최고 걸작 수월관음도가 14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다.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은 4월 30일~6월 8일 '일본 가가미신사 수월관음도 특별전'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이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호암미술관에서 1995년 '대고려국보전' 때 전시된 후 두 번째다.

이 불화는 1310년 충선왕의 비 숙비가 발원해 제작됐으나 14세기 왜구가 약탈해 갔으며, 현재 일본 국가지정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성보박물관 정경수 유물관리담당은 "공식 보험가가 150억원에 이르지만 국내 소개에 의미를 두고 관람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라며 "세계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고려 수월관음도를 전시함으로써 우리문화재의 우수성과 귀중함을 확인시키고 나아가 국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마련하기 위한 전시"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북방 사문천이 밟은 악귀는 야차·나찰·지신"

불교학연구회 봄 논문발표회서 안철상씨 주장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호법신 사천왕. 그 가운데 북방을 관장하는 비사문천(毘沙門天)이 밟고 선 것은 악귀며 지신(地神)을 뜻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가 3월 14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개최한 봄 논문발표회에서 안철상(서강대 박사과정·사진)씨는 '교차문화적 맥락에서 본 동아시아 초기 불탑신앙 수용에 있어 사천왕상 악귀좌의 정체성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를 발표했다.

안씨는 "한국의 사리함에 나타난 도상에는 북방다문천왕 발밑에 야차와 나찰이 악귀로 표현됐고, 지신 역시 북방다문천왕이 밟고 있는 형상"이라며 "동아시아의 사리함과 불탑 등에 나타난 사천왕상은 대체로 발아래 악귀가 표현된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야차(夜叉)는 인도의 야크샤(Yaksa)의 음역으로 <리그베다> 등에 등장한다. 야크샤의 여성형인 야크니쉬는 토지를 관장하는 지모신(地母神), 나무의 신 등으로 전해진다.

안철상씨는 "불탑 숭배가 시작될 무렵 인도의 민간신앙이 이교로 취급되면서 야차도 악귀로 재현됐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민간신앙을 이교로 취급한 것은 아소카왕의 왕즉불(王卽佛) 사상 때문"이라며 "패권을 이룬 상징을 토착신앙의 제압으로 표현해 불탑 등에 야차를 그렸다"고 말했다.

안철상씨는 이를 사리신앙과도 연결해 소개했다. 탈육 후 유골을 수습하던 당시의 2차 장법(葬法)이 1차 장법인 화장(火葬)으로 바뀌면서 지신이 악귀로 배척됐다는 주장이다.

안씨는 "신라 진흥왕과 선덕 여왕은 중국에서 사리를 들여옴으로써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형성하려 했다"며 "2차장법을 하는 토착집단을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사리신앙이 이용되면서 사체의 탈육 등에 관여할 것이라 믿어졌던 지신은 악귀로 재현됐다"고 강조했다.

유근자 박사(동국대)는 논평을 통해 "감은사 서탑 사리기의 북방 비사문천 밑 아래 인물은 밟힌 것이 아니라 비사문천을 두 손으로 받들고 있다"며 "타파해야할 악귀가 아니라 비사문천을 받들고 있는 선신의 이미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안환기(서울대 박사과정)씨가 '유식불교 법신 개념의 심리학적 의미'를, 이길주 외래교수(제주대)가 '고대인도의 여성불교수행자의 출가동기'를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미술 새로보기' 강연회 28일 열려

불교미술 전반에 대해 두루 알아볼 수 있는 강연회가 열린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 이하 박물관)은 3월 28일 오후 1시 박물관 강당에서 '불교미술 새로보기' 강연회를 개최한다. 박물관이 3월 24일~5월 10일 개최하는 '통일신라조각展'에 맞춰 기획된 이번 강연회에서는 미술사학자 강우방 前 박물관장이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강 前 관장은 조형 예술의 생성, 변화 과정과 이에 상호 조응하는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생긴 미술의 변화와 향후 미술사 연구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도 조망된다.

강연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석 희망자는 박물관 홈페이지 '이달의 행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선착순(150명) 수강신청을 받는다.

한편 강우방 前 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학예연구실장을 거쳐 국립경주박물관 관장을 역임했다. 현재 일향한국미술연구원에서 불교미술을 중심으로 한국미술사 전반을 정리하고 있다. (054)740-7536

김진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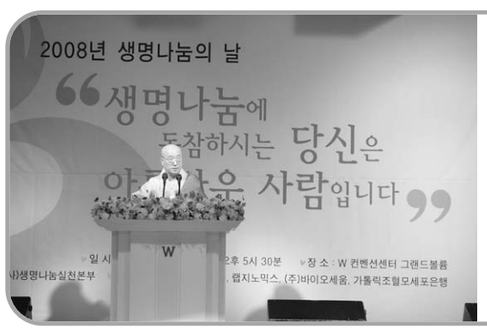
덕운스님의 봄철 대특강
보약짓기 학인 모집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가족의 건강을 내손으로 지키고자' 하시는 불자님들을 위해 덕운스님의 다년간의 비방인 '보약짓는 방법'을 전수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약짓기'를 배워 내손으로 나와 가족, 그리고 신도님의 건강을 지키도록 합시다.

교육기간 : 2009년 4월 2일, 3일부터 (총 12주)
장 소 : 활인정사 법당
접 수 : 동양의학방송국 (사전접수요망)
교육시간, 내용, 보시금 :
● 목요일 : 오후 2시 – 5시 보약짓기 / 보시금(월 50,000)
● 금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전통 사암스님의 활인 침법 / 보시금(월 150,000)
● 금요일 : 오후 2시 – 4시 한약 처방학 / 보시금(월 150,000)
강 사 : · 덕 운 스 님(동양의학방송국 대표)
· 박정아교수(세명대학교 외래교수)
문 의 : 02-3487-2311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스님)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1994년 법장스님에 의해 설립된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장기이식결연기관이며 불교계를 대표하는 의료사회복지를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 장기등기증 희망등록 및 결연
• 조혈모세포 기증자 등록
• 헌혈은행 사업
• 환자 치료비 모금 및 지원
• 장기등기증자를 위한 천도재 봉행 등

장기기증은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생명을 살리는 보시행의 실천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지정 장기이식 등록기관
장기기증 신청 및 문의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02-734-8050 FAX) 02-734-8052 www.lisa.or.kr

일주문



만공 선사 탄신 138주년 다례 봉행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4월 2일 오전 9시 30분 수덕사 정혜사에서 '만공대선사 탄신 138주년 다례'를 봉행한다. (041)337-6565



불교TV '법화경' 산림대법회

무비 스님은 4월 8일부터 6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법화경 산림 대법회'를 연다. (02)3270-3300



'승가의범' 출판기념회

동주 스님은 4월 3일 서울 홍원사(주지 자항) 대웅전에서 대은 스님 전집 <승가의범> 출판회를 개최한다. (02)2658-3100



'일연문학학교' 개최

대구 유가사 주지 계성 스님(조계종 포교부장)은 3월 28일부터 <삼국유사>를 주제로 '일연문학학교'를 개최한다. (053)614-5115



'소년소녀 가장 돕기' 일일찻집

불자가수회 명국환 회장은 3월 28일 불교방송 지하 다보커피숍에서 '소년소녀 가장 돕기' 일일찻집을 연다. (02)713-2905



경기문화재연구원장 취임

조유전 前 토지박물관장은 3월 16일 남한산성운영위원장 겸 경기문화재연구원장에 임명됐다.



'그리움을 만지다' 일본 개인전

서양화가 박명순 前 동국대사범대학 부속여고 교장은 3월 23-28일 일본 도쿄 긴자 문예춘추화랑에서 '그리움을 만지다'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김흥국씨 승가원 방문 봉사

불자가수이자 승가원 홍보대사 김흥국씨는 3월 16일 이천 승가원자비복지타운(원장 묘전)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금강대 박자랑씨 청소년교류 장학생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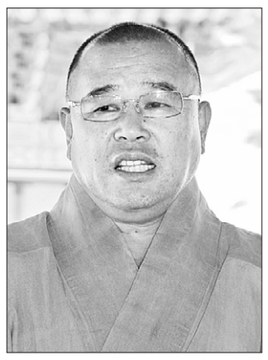


천태종립 금강대 박자랑(통상통역일어전공 3학년)씨는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교류계획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금강대와 학술 · 학생교류 및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한 일본 메지로(目白)대학의 추천에 의해 결정됐다.

"케이블카 개발 자연재앙의 악과로…"

케이블카 착공 반대하는 표충사 주지 재경 스님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 승인에서 도립공원위원회의 부당한 절차가 드러난 가운데 조건협의승인의 당사자인 표충사(주지 재경 · 사진)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월 20일 경남도공원위원회 특별위원이었던 통도사 및 표충사를 도립공원위 회의에 배제한 후 사찰과 합의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밀양시는 상반기 중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얼음골 케이블카를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인 통도사는 이에 도립공원위에 항의공문을 보냈지만 공식적인 협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중에 재경 스님은 3월 15일 불교기자협의회(회장 안직수)가 표충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케이블카를 비롯한 개발은 반세기도 못가 자연재앙의 악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사자평을 비롯한 개발에 정확한 환경영향평가와 보존대책 없이 개발이 강행된다면 표충사는 사자평 출입통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 스님은 이어 "사자평 등 가지산 일대의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천년 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스님들과 불교계의 노력 덕분이었다. 삼보정재가 훼손되는 것을 표충사를 비롯한 불교계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을 억새로 유명한 사자평은 재약산 평원지대로 표충사는 사자평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재경 스님은 "정부는 성급한 개발에 앞서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성을 갖고 거시적인 보존대책을 세워야 한다.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의 부처님 인과법을 명심해야 할 때"라며 불자들의 관심도 당부했다.

한편, 본지를 비롯한 불교신문 등 불기협 회원사 일동은 이날 표충사에서 '수행 환경 · 자연 경관 훼손하는 케이블카 설치 중단' 촉구성명을 발표하고 불교계 의견을 배제한 밀양시 등 정부당국을 규탄했다. 노덕현 기자

'소설 열반경' 연재

정찬주씨 동국미디어센터에서



소설가 황석영의 '개밥바라기'와 박범신의 '촐라체'는 인터넷 소설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인터넷 공간에는 소설뿐 아니라 시와 시조 수필 등 문학의 모든 장르가 카페나 블로그, 혹은 전문 사이트를 통해 활성화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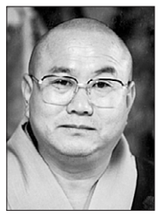
본지에 '가야산 정진불'을 연재 중인 소설가 정찬주(사진)씨가 모교인 동국대가 운영하는 동국미디어센터(www.donggukin.org)에 '소설 열반경'을 연재한다. 격주 단위로 향후 40회 가량 연재 할 예정인 소설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의 상황들을 통해 불교의 참 모습을 조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사진작가 유동영씨가 부처님의 열반지인 쿠시나가라 등 성지를 다니며 촬영한 사진도 함께 실린다.

인도기행을 4차례 한 정찬주씨는 "부처님의 열반 성지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었다"며 "소설을 통해 부처님의 열반 상황과 거기에 깃든 불교적 의미 등을 깊이 조명해 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소설은 웹진을 통해서 매주 20만 동문들에게 발송된다. 동국미디어센터는 2007년 동대신문 교육방송국 영자신문 대학원신문 등을 통합해 발족됐으며 포털 사이트 동국인도 운영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외부인사 첫 임명 '파격'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3월 16일자로 법타 스님(前 은해사 주지 · 사진)을 정각원장에 임명했다.

법타 스님은 1946년 충남 청주에서 출생해 1974년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클레이튼 대학에서 '북한불교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은 스님으로는 처음 1989년 방북한 이래 남북불교교류사업에 앞장서왔다. 1992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를 창립한 후 회장 등을 역임하며 종교를 초월한 통일운동을 주도해 왔다.

법타 스님은 2000년과 2007년 각각 조계종 10 · 27 법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 공동대표와 조계종 동국대학교 로스쿨 대책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동국대의 법타 스님 임명은 교내 교수들의 보직이었던 정각원장을 외부에 개방했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다. 조동섭 기자

진주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배명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



경남 진해시는 3월 16일 제20회 진주시민대상 수상자로 배명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사진)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진해시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시민상 정립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배명인 이사는 인재육성을 위한 후진양성 활동 및 모교 동창회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 이사는 1932년 태어나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를 합격했으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연수원 원장, 제33대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1995년부터 대한불교진흥원 이사를 맡고 있는 배 이사는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명예대표 변호사와 BBS불교방송 이사도 겸하고 있다. 시상식은 4월 3일 열리는 진해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은해사 육군 3사생도 사찰체험 수계법회



경북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경내에서 3월 15일 육군 3사관학교 법무 74기 생도 사찰체험 및 수계 법회를 봉행했다. 21명의 군법무관 후보 생도들은 돈관 스님으로부터 오계를 받고 군불교 진흥을 다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이선옥 박사 '선무 색즉시공 2009' 공연



전통무용가 이선옥 박사(뉴욕대)는 3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수경)가 주최한 '선무 색즉시공 2009'를 시연했다. 전국비구니회장명성 스님 등 400여 명이 관람했다. 노덕현 기자

내장사 중앙재난안전 종합훈련 실시



3월 17일 정읍 내장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훈련이 실시됐다. 훈련에는 행안부 장관,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이 참석했고, 특수 소방차 등 80여 장비와 소방대원 1000여명이 동원됐다. 노덕현 기자

명락사 창립 34주년 기념법회 봉행



천태종 서울 명락사(주지 무원 · 천태종 총무부장)는 3월 15일 창립 34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무원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전 종도가 일심단결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도정진하자"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일붕선교종 제7대 종회의장 이 · 취임법회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화엄)은 3월 18일 서울 킴스호텔에서 '제7대 중앙종회의장 이 ·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종회의장 경원 스님(호불사 주지)은 "봉사의 마음으로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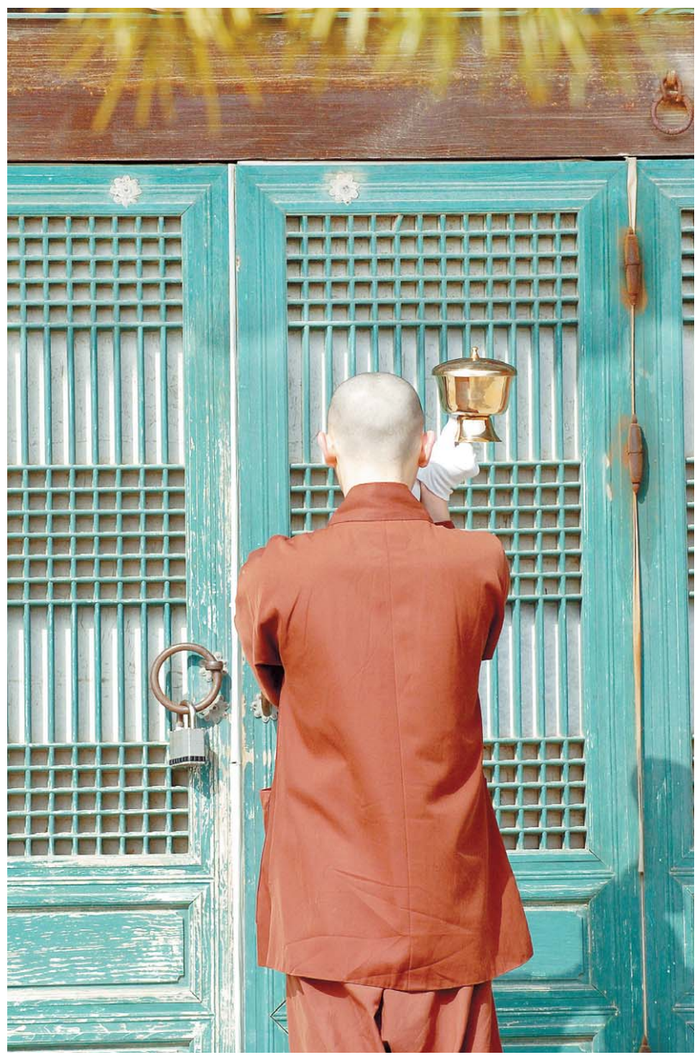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 · 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매화 꽃 다시 핀 범어사

시방세계 꽃피는 자리 만들고

달라진 햇살, 푹신해진 돌계단,
시끄러워진 산새들,
봄기운 완연한 도량..

도량엔 봄기운이 완연하다.
달라진 햇살, 폭신폭신해진 돌계단, 시끄러워진 산새들.
겨울 한 철 살고 간 수좌의 뒷모습은 잊혀져가고,
기다린 소식처럼 또 다른 계절이 다가온다.
공양간 고양이는 돌담 아지랑이 속에서 어슬렁거리고,
꽁지 검은 산새는 객쩍게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앉는다. 봄이다.

법당마다 목탁소리가 울린다. 사시마지(巳時魔旨)를 든 행자 셋이 각자 법당 앞에 선다.
부처님과 가장 가깝게 서는 시간, 마지 든 두 손 위에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멈춰서고
마주친 부처님의 두 눈에서는 부처님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가온다.
삼층석탑을 지날 때 들었던 풍경소리가 법당 문 앞에 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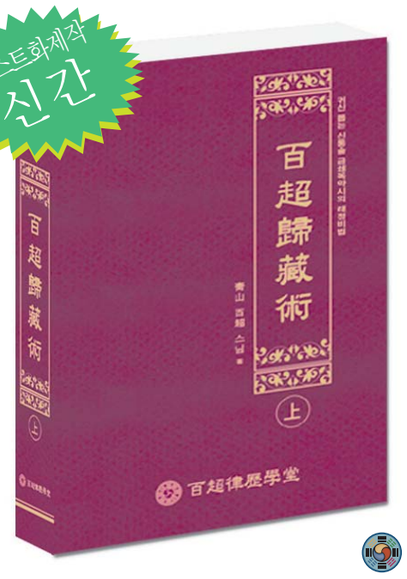
염화실 돌담 위에는 흰 매화가 활짝 피었다.
매화 꽃잎 사이로 마침 무비 스님이 언뜻언뜻 보인다.
이태 전 염화실 마당에서 무비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다.
스님은 앞뜰의 커다란 소나무를 가리키며
"나무가 저렇게 큰 데도 매년 자랍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끝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나무는 말없이 일러줍니다."

매화는 시방세계(十方世界) 꽃피는 자리를 만들고,
그 옛날 범어사에서 머리 깎았던 스님은 이제 염화실 마당을 거닌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범어사는…
신라 문무왕(678년) 때 의상 스님이 해동의 화엄십찰중의 하나로 창건했다.
의상 스님과 원효, 낭백 등 많은 고승들이 수행 정진했으며 구한말 주지 성월 스님은 범어사를 선찰대본산으로 명명하고 경허 스님을 조실로 모셨다. 조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도량이 모두 소실됐으나 광해군 5년(1613) 이후부터 크고 작은 개수 및 중수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베스트화제작 신간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귀신뽑는 래정비법!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 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 H.P : 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 조영신) :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

자신과 싸움 75일…"만물이 웃고 있더군요"

보광 스님 5대 적멸보궁 10보1배 순례 마쳐

"불자들이 나를 바라보고 웃을 때는 행복해 가슴이 뛉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눈물을 흘리면 그와 함께 펑펑 울게 됩니다. 내가 또 한 번 10보1배 순례를 떠나 누군가 감동한다면 내 몸이 찢어져도 주저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 부산 불광사(주지 보광)에서 5대 적멸보궁을 10보1배 기도로 순례하기 위해 홀연히 떠났던 보광 스님이 3월 16일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전보다 더 맑은 얼굴, 한 걸음 한 걸음 더 위엄 있어졌다. 스님은 어려운 때일수록 희망을 잃지 않길 바라는 중생의 서원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빈손으로 떠났던 지독한 보살이다.

75일간 총 674km 겨울의 한가운데 멀고먼 길을 따라 기도하면서 생사의 고비도 많았다. 인적이 드문 숲길에서 한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기 일쑤였다. 갑자기 다리가 마비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그때 뒤돌아보니 만물이 웃고 있더군요. 그때 내가 떠나온 걸 실감했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수차례 넘겨야 했던 힘든 순례가 원만 회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극한 3명의 신장이 있다. 수줍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직접 캐내고 정성껏 다려낸 영험한 약초로 기운을 지켜준 심마니 현담 스님과 험난한 순례길에서 어긋나고 망가진 몸을 바로 잡아준 변유성 기공사,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준 이수부 거사 이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적멸보궁인 설악산 봉정암을 향하는 길목 영시암의 한 노장스님은 맨발로 뛰어나와 보광 스님의 손을 꼭 잡으며 "이 메마른 땅에 아직 수행풍토가 살아있구나!" 하고 기뻐했다. 이윽고 봉정암 사리탑에 다다랐을 때, 스님은 "마냥 기쁠 줄 알았는데 사리탑 앞에 서니 내가 너무너무 작은 중생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광 스님이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은 10보1배 기도가 한때 바람으로 잊히는 것이다.

"하염없이 길을 따라 걷고 절하고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옛날 선승들이 먼저 걸었던 길을 따라 걷는다는 사실이 가슴에 사무쳤다. 이렇게 나를 낮추고 엎드려 기도하는 문화를 전국에 퍼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봉정암 사리탑 앞에서 삼배를 올리는 보광 스님.
사진제공= 한철현 사진작가(부산 코닥동아대점 대표)

"초심으로 돌아가 자비실천"

부산여성불자회 창립 15주년 기념법회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는 3월 18일 낮 12시 창립 15주년을 맞아 기념법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발원문 낭독, 표창패 수여, 장학금 및 단체지원금 전달, 왕선자 회장 인사말, 축사, 수진 스님(前 해인사승가대학장) 법어, 축가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이번 장학금은 피라미타 소속 금정중학교 재학생 8명과 용호복지관(관장 이춘성),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손정현),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등 단체 3곳에 전달됐다.

왕선자 회장은 "오직 여성불자로만 이뤄진 모임이다보니 활동을 하는데 기획 및 조직면에서 취약했지만 모든 회원이 한마음으로 도와 오늘의 15년이 있을 수 있었다"며 "처음 불교를 만났던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늘 부산여성불자회가 앞장서 자비를 실천하는데 일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사말을 하는 부산여성불자회 왕선자 회장.

부산여성불자회는 1994년 창립 이후 15년간 170여 회 정기법회 봉행, 군포교 및 교도소 포교, 여성불자 자질향상을 위한 리더십 교육, 장학금 전달 및 환경보호, 사찰순례와 사경법회, 대외협력활동, 여성NGO 활동 등으로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박지원 기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 캠페인

생명나눔부산본부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등록 캠페인을 실시했다. 3월 12~13일 양일간 동명대학교에서 홍보부스를 마련, 조혈모세포 및 기증에 관한 교육과 기증희망자 접수를 마쳤다.

이날 캠페인에 직접 참여한 목종스님(부본부장, 대광명사 주지)은 "젊은이들에게도 나눔의 문화가 확산돼,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따뜻한 빛을 주는 소중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생명나눔 부산본부는 향후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동아대학교 등 부산지역 대학교 및 군부대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051)853-0429 박지원 기자

56명 졸업하고 64명 입학

대한불교교사대학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은 3월 14일 오후 5시 부산불교회관 8층 여여선원 법당에서 제10기 졸업식 및 제11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2008학년도 제10기 졸업생 56명 중 제3회 불교어린이지도사 자격증 41명, 제4회 동화구연 2급 26명, 제4회 레크리에이션 2급 27명 등이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다. 2009학년도 제11기 불교교사대학에는 총 64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이날 행사는 헌향 · 헌화 · 헌다, 경과보고, 시상, 인사말, 격려사, 축사, 송사 · 답사, 입학생 발원문 낭독 및 선서,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3월 28~29일 충남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2회 불교어린이지도사 연수가 실시될 예정이다. (051)852-0852 박지원 기자

부산 6대 종교 평화포럼 발족한다

부산종교인평화포럼 창립준비모임 가져

부산 6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부산시민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범종교인 대화모임 창립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가칭)부산종교인 평화포럼(이하 평화포럼)은 3월 13일 오후 2시 부산불교연합회 법당에서 창립준비모임을 갖고 창립 초읽기에 들어갔다.

방영식 목사의 사회로 정여 스님(부산불교연합회장), 정각 스님(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가톨릭 황철수 주교, 원불교 김일상 교구장, 천도교 박호권 교구장 등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6대 종교 지도자 9명이 참석했다.

모임은 각 종교별 묵상기원, 창립 취지문 낭독, 조직구상, 회칙 검토, 임원진 조직 및 이사장 · 초대회장 추대, 사업비전 검토, 창립행사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설립 목적은 "종교간 갈등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파멸을 가져오며, 어떠한 종교편향정책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성숙한 종교는 열린 마음으로 이웃종교를 존중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창립 취지문을 통해 설명했다.

또한 회칙에서 "국민의 정신문화를 선도하고 사회를 통합, 나아가 국가발전과 평화통일,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공동선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향후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종교인의 만남과 교류를 위한 모임과 협력사업 추진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을 사업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박지원 기자



부산종교인평화포럼 창립준비모임이 3월 13일 만남을 갖고 창립준비에 돌입했다.

"본성 바로보고 생사에서 해탈"

소림사 참회산림

산중 선지식들이 세간에서 법문을 풀면서, 부산 한복판에서 야단법석이 펼쳐졌다.

부산 소림사(혜전)는 3월 11~17일 일주일간 매일 오전 10시 참회산림 대법회를 열었다. 그동안 부산불자들이 만나기 어려웠던 혜인 스님(단양 광덕사 회주), 통광 스님(쌍계사 승가대학장), 묘허 스님(단양 방곡사 회주), 정관 스님(부산 영주암 회주), 고산 스님(하동 쌍계사 조실), 종림 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범 스님(중앙승가대학교 총장) 등이 법상에 올랐다.

종범 스님은 회향법문에서 '법성과 진성'을 주제로 "죽는 순간은 통증은 있으나 공포가 없는 것이 바로 열반이며, 이 두려움이 바로 아상이기에 우리는 불생불멸의 법성을 믿어야 한다"며 "본성을 보고 생사에서 해탈하자. 법성을 바로보고 자기 심으로 돌아가자"고 설했다.

'참회'에 관한 선지식들의 릴레이 법문으로 진행된 이번 대법회에는 하루 평균 500여명의 신도들이 몰려들어, 대웅전과 별관까지 가득 메웠다. 올해로 32회를 맞은 소림사 참회산림 대법회는 매년 음력 2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열린다.

박지원 기자

불교영어 전문강좌 개설

해월정사 3월 18일부터

해운대 청사포 해월정사(주지 천제)는 불교영어 전문 강좌를 개설하고, 영어포교의 원력을 세운 분들을 위한 강의를 운영한다. 3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4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마련된다. 교재는 성철 스님 법어집 <이 뭐꼬> 영문판과 2권으로 영광도서 2층 불교서적코너에서 판매중이다. 접수는 입학원서와 증명사진 2매를 지참, 해월정사 종무소에서 직접 받고 있으며, 입회비 1만원, 월 수강료는 5만원이다. (051)703-9641

박지원 기자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사찰 종합 보험 전문
사찰내외의 다양한 위험(화재 풍수해 도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상해 질병의료비 보험 상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
은퇴 후 노후 설계 상담

종합자산관리사 (IFP) 이진우 합장 011-766-1001

'석전 스님 추모집' 고창 선운사 헌공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3월 25일 불교근대교육의 선구자이자 대석학인 석전 스님(1870~1948, 박한영)의 열반 60주기를 맞아 <석전 스님 추모자료집>을 헌공 · 배포한다.

이날 헌공될 자료집에는 석전 스님의 삶과 사상, 수행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했다. 추모다례재 봉행 후에는 역대 선운사 조사스님들의 유품과 유물을 봉안할 조사전 기공법회도 열린다.

이날 기공할 조사전은 경내 팔상전 인근에 건립된다. 조사전에는 검단 선사와 백파 선사, 석전 영호 스님을 비롯한 역대 선운사 조사스님들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고 뜻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자료들도 함께 봉안될 예정이다.

한편, 선운사는 4월 15일부터 매주 화요일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누어 불교문화강좌를 개설한다. (063)561-1422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미륵사지에 정·교계 관심 집중

한승수 총리 방문 · 순회사진전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익산 미륵사지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런 가운데 익산 불교계의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를 원래 자리에 봉안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3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익산 미륵사지를 방문했다. 이어 12일과 13일에는 각각 김형오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민모임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익산 미륵사지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한수 익산시장과 전북도 문화재 관계자, 마한 백제 연구소를 비롯한 지역 사학계 인사들은 미륵사지 사리장엄구를 전주박물관에 보관 전시중인 인근의 왕궁리 5층석탑 유물과 함께 現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해줄 것을 건의했다.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국립박물관으로 승격되면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아 인력충원 및 전시실 확장과 함께 항균 및 항습 시설, 방범 시스템 등을 갖춰 제대로 된 유물 보존이 가능해, 익산시와 지역불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역 여론이 거세지자, 전북도청 문화재과 김승대 학예연구사는 "불교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익산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익산 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산지역 불자들은 "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은 찬성하나 이번에 발견된 유물 중 사리만큼은 미륵사지 석탑 복원 시 원래의 자리에 봉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미륵사지를 복원할 때 현재의 유물전시관은 미륵사지 경내 밖으로 이전해 미륵사지의 전통적인 사찰의 면모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익산시가 사리장엄을 상품화, 관광자원화하겠다는 계획에는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는 3월 23일 '전라북도 백제문화유산 보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고문 6명과 3개분과 추진위원 26명(당연직 5명, 위촉직 21명)으로 구성됐다. △1분과=익산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2분과=익산역사문화유적 정비 · 복원 △3분과=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등 자문을 맡게 된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는 고문에 월주 스님(금산사 회주), 2분과 추진위원에 원행 스님(금산사 주지)과 법만 스님(선운사 주지), 3분과 추진위원에 우성 스님(백운사 주지)과 법운 스님(용화사 주지) 등이 위촉돼 관심을 모았다.

김승대 학예연구사는 "위원회는 1월 미륵사지석탑내에서 발굴된 사리장엄 발견으로 익산지역 백제문화의 우수성이 재인식돼 민 · 관 · 학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사리장엄 가치규명과 익산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위해 4월 24일부터 5회 이상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에서 발견된 유물순회사진전도 열린다. 전라북도 도청기획전시실에서 4월 3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원광대박물관(4월 7~22일)과 미륵사지 유물전시관(28일~6월 7일), 익산시(10일~7월 10일)에서도 전시될 예정이다.



김형오 국회의장(가운데)이 이한수 익산시장(왼쪽 두 번째) 등과 미륵사지석탑 발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성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 강좌에 빠지다

사암련 · 육화포럼 등 강좌 '인기몰이'

광주지역의 대표적 불교단체인 (사)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는 3월 18일 사암연합불교회관 2층에서 광주지역 신행단체를 대상으로 '<금강경> 강좌'를 개최했다.



3월 18일 광주사암연합 불교회관에서 열린 <금강경> 강좌.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강좌는 4개월간 이어진다.

30여 명의 신행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행사에서 성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는 신행단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금강경>의 의미를 깨쳐가듯 광주불교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의 의미에 대해 "경전을 통해 각 신행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공부하고, 이야기 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금강경> 강좌'는 4개월간 열리며, 광주지역사암 주지스님들이 강사로 나선다.

광주불교단체 실무자 모임인 육화포럼도 같은 날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한국불교와 국제구호사업'을 주제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연구소 김동훈 기획연구팀장을 강사로 대중강좌를 열었다.

김동훈 팀장은 "1시간의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에도 세계에서는 기아와 질병으로 700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해외구호사업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브랜드화한 구호사업, 차별화된 재원마련 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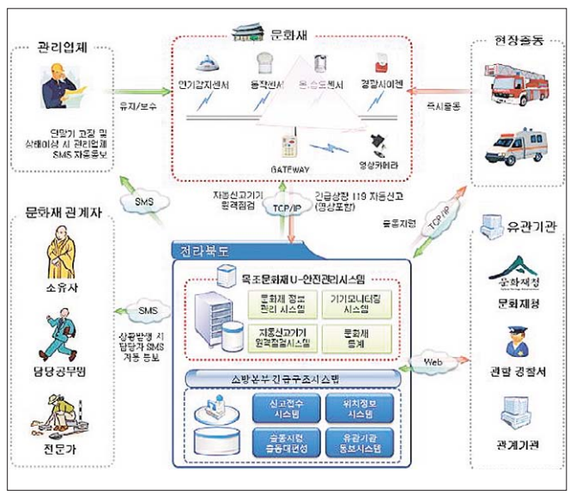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도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009년도 u-city구축 기반조성 공모 사업대상 선정

전라북도 소재 목조문화재관리가 체계화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는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09년도 u-City구축 기반조성 공모'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5억2000만원과 지방비 3억원 등 총 8억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하고, 문화재에 연기감지센서, 동작감시센서 등을 설치해 평상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화재 및 무단침입 등의 상황발생시에는 소방본부,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구축하고자 하는 u-안전관리시스템 구상도.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유사시 신속,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며, 문화재 관리를 위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비의 무선화를 통해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19개의 국가지정 목조문화재를 비롯한 총 220개소의 도지정 목재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방재 시스템은 문화재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개소당 3000만원 이상의 시스템 구축비용이 소요되어 많은 기간과 예산이 필요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승례문 화재 사고에서 보았듯이 목조문화재는 다른 문화재에 비해서 한번 재해를 입게 되면 다시 원형을 복구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원형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저비용 · 고효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목조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다시 살아나야할 때!!

"업장소멸 법륜대 탄생"

지금 탁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법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법륜대에 천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릴때마다 한권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업장이 소멸되는 법륜대가 법당탁자에 봉안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매월 정기법회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한다.

■ 특별혜택 :
1.순금개금 95만원만 지불하고시 잔액 155만원은 정월, 4월, 7월,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시는 혜택
2.명찰(개당 1500원)을 108개를 무상으로 드립니다.
3.법륜대 안에 보일듯 말듯한 부처님의 미소가 뚜렷히 보이면 소원 성취 된다고 알려지는 권선문을 보내드립니다.

■ 주문수량의 한계로 35분 한정으로 1차분을 마감합니다.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 제품명: 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법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탁바를 하듯 한분 한분 권선하여 천명만 발원하여 보십시오.

5,000원이 일년 6,000만원으로
사찰경제 기반이 되는 법륜대 입니다.

사중살림 성장의 기폭제를 위한 발원으로 태어난 작품이 오는

4월 3일 ~ 4월 5일까지
2009년 한국 불교 박람회
(대구 엑스코)에 전시 됩니다.



양쪽에 천불이 봉안되는 법륜대 입니다.

"주인의식 갖고 신행하자"

나주 심향사 '불자 열린 대화의 장' 마련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는 3월 15일 경내 설법전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불자들의 열린 대화의 장'을 개최했다.



나주 심향사가 마련한 '불자 열린 대화의 장'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행사에는 김종량 박사(반야사회복지연구소), 안효자 교수(동신대), 박애순 신도회장 등 사찰 및 지역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신행단체별 주제문 발제와 자유토론을 펼쳤다.

원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사찰의 주인은 불자들이다. 각 신행단체별로 사찰에서의 역할이 있으며,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신행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연꽃등 만들기

광주 문빈정사서

등산객을 상대로 연꽃등도 만들고 실직가정도 돕는 행사가 열렸다.

광주 문빈정사(주지 법선)는 3월 22일 무등산 등산로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자비나눔 연꽃등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법선 스님은 "뭇 생명의 아픔을 함께 하는 부처님 자비를 나누고, 실직가정 돕기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무등산을 찾은 시민 500여 명이 동참한 행사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전액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돼 실직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경제난 해소 위해 불자들이 앞장설 것"

종단협, 경제난 극복·국민화합 기원대법회 봉행

경제난 극복 발원을 위한 불교계 사부대중이 원력을 모았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 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는 3월 18일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경제난 극복 · 국민화합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을 부제로 봉행된 이번 기원법회는 전세계적 경제 한파에 따라 "IMF 구제금융 당시보다 더 살기 어렵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봉행돼 더욱 관심을 모았다. 구제금융 당시 불교계가 합심해 1998년 4~11월 봉행한 '국난극복 순회법회'가 지속적인 정진으로 국민의지 결집에 크게 이바지 했다고 평가받은 것도 행사를 열게 된 원인의 하나다.

이번 법회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지관 스님 등 각 종단 총무원장스님, 정 · 관계 불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됐다.

지관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경제 어려움에 따른 사회적 고통해소에 불자들이 앞장서 부처님의 동체대비 사상을 실천하고, 계층간 소통과 상생 화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뜻을 모았다"며 "부처님께서 자비의 샘물은 퍼낼수록 더 솟아나고, 은혜는 베풀수록 공덕이 더 커진다고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어려움만 생각하지 않고 어려울수록 베풀고 나누는 대승보살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단협 부회장 운산 스님(태고종 총무원장)도 축원을 통해 "부처님이 경계하셨던 탐욕과 어리석음, 아집 때문에 많은 중생들이 경제 · 사회적 어려움에 봉착한 것을 참회한다"며 "2천만 불자들이 앞장서 자비행의 인연공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행복한 개발, 생태경제를 실천할 수 있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를 앞두고 국난극복 기원을 위한 법회에 참가하게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불교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눔운동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문제 등 현재의 어려움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역사적으로 불교는 호국불교로서 국난극복에 앞장서 온 만큼 현재의 어려움 극복에도 앞장서 주시면 정부도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월 18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봉행된 '경제난 극복 · 국민화합 기원대법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축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식전 행사로 연등축제 홍보영상을 방영하고, 자비나눔 모금도 진행했다. 종단협은 법회 전 약정한 성금 5000만원과 이번 기원법회에서 모금된 1억761만1630원(약정금 포함,총 113개 사찰 161명 동참)을 (재)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글=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태백주민들에게 생수 전달

천태종 복지재단, 태백시청과 가뭄극복 행사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강원 태백 지역 5만여 주민들은 세수와 빨래는 물론이고 먹을 물조차 없어 고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이사 정산)과 태백 등광사(주지 자운)는 3월 13일 태백시에 태백 주민들을 위해 2ℓ 생수 1만병을 전달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전달식에서 자운 스님은 "태백에 와보니 언론에서 접했던 것보다도 지역주민의 고통이 훨씬 심각해서 도울 방법을 찾다가 천태종 복지재단과 함께 생수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종기 시장은 "천태종단에서 물을 갖고 오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복비가 내리는 것 같다"며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금선 후원홍보팀장은 "태백지역이 몇 차례 내린 봄비로 식수 부족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도가 한 차례밖에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생수 전달식에는 천태종 총무국장 갈수 스님, 등광사 주지 자운 스님, 천태종복지재단 김영사무처장, 박종기 태백시장, 등광사 신도회 우성룡 부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신도들이 참석했다. (02)873-3405

이나은 기자

경제살리기 기원 법회 봉행

(사)한국불교정토종 종단 임원취임식도


한국불교정토종이 3월 16일 봉행한 '국태민안과 경제살리기 기원 및 인천세계도시축전 기원대법회'.

(사)한국불교정토종(총무원장 무각)은 3월 16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국태민안과 경제살리기 기원 및 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각 종단 종정스님과 총무원장스님, 안상수 인천시장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번 법회에서는 이사장 지산 스님, 종정 월호 스님, 부종정 해심 · 각호 스님, 총무원장 무각 스님의 취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정토종 이사장 지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인천시는 물론 한국경제가 날로 발전해 온 국민이 모두 잘 살 수 있길 발원한다"며 "앞으로 정토종은 종세 확장과 종단 발전을 통해 한국불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법회에서 정토종 3세 종정으로 취임한 월호 스님도 법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종단 최고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종지종풍 선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 종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서 생어정찰(生於淨刹)을 실현해 부처님께서 서원하신 중생 구제의 대원력이 원만 회향될 수 있도록 발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 정토종은 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을 기원하며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불우이웃돕기 백미(2000kg)를 전달했다.

김진성 기자

20년 맞은 진각대학의 역사 한 권에…

'진각대학 20년사' 발간…마지막 졸업식 봉행



1989년 개교 후 종도 기초교리 교육의 핵심 역할을 해온 진각종 진각대학의 역사가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됐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3월 13일 진각대학(학장 경정) 개교 20주년을 맞아 <진각대학 20년사(사진)>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진각대학 20년사>는 진각대학의 역사를 책과 DVD 2장에 고스란히 담았다. 제1편 '진각대학 설립과 발전'에서는 진각대학 설립 이전과 초 · 중 · 후기 학제 및 주요 교육활동을, 제2편 '밀교신문에 비친 진각대학 20년'에서는 밀교신문에 게재된 진각대학의 활동사항을 요약했다. 또한 제3편 '진각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종헌종법규정을 비롯한 역대 교육과정과 학생 현황 등을 정리했다.



3월 13일 진각종 통리원에서 봉행된 제19회 진각대학 졸업식.

한편, 진각대학은 3월 13일 통리원 대회의실에서 진각대학 마지막 졸업식을 봉행했다. 진각대학은 2007년 8월 법규를 개정, 명칭을 변경하고 2008년 첫 입학생부터 진각대학원으로 신입생을 받고 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은혜지 전수(복전심인당 교화) 등 12명이 졸업하고 △총인상=여원성 전수(실각심인당 교화) △진각대학장상=심인주 처무 △통리원장상=선운 정사(실각심인당 주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김진성 기자

"수행하는 불자 인재 양성할 것"

천태종 제1회 분당금강불교대학 입학식 개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불교인재 양성에 힘써 온 천태종 금강불교대학(학장 월도, 이하 금불대)이 여섯 번째 대학을 개교했다.

천태종은 3월 14일 분당 대광사 대불보전에서 제1회 분당금불대 입학식을 봉행하고, 학생 오리엔테이션, 개별 면담 등 개교 행사를 진행했다. 분당금불대는 월도 스님(대광사 주지)이 진행한 '기축년 정초 특별 철야정진(3 · 7기도)'에 동참했던 불교교리의 이해를 바라는 분당 지역 불자들의 희망에 따라 개교했다.

입학식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여섯 번 째 금불대가 분당에 설립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큰 결단을 내린 월도 스님과 큰 용기를 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대광사가 앞으로 이 지역 불교를 이끄는 진리의 전당이 되길 기원한다"며 "배움과 실천을 함께 하는 불자로서 자아 완성을 이루고, 부처님의 사자로 당당히 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분당금불대학장 월도 스님도 "분당 지역에는 젊은 인재들이 많은 만큼 금불대 개교를 통해 수행하는 불자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시간을 쪼개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1회 입학생인 만큼 자긍심과 포부를 갖고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분당금불대는 앞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초발심자경문>과 불교학개론, <법화경>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학장 월도 스님과 권기종 원장(원각불교사상연구원), 이기운 연구교수(동국대)가 맡을 예정이다.

한편 금불대는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 대조사의 뜻에 따라 설립돼 1987년 서울금불대 개교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울산, 춘천 지역에서 천태종 불교인재 양성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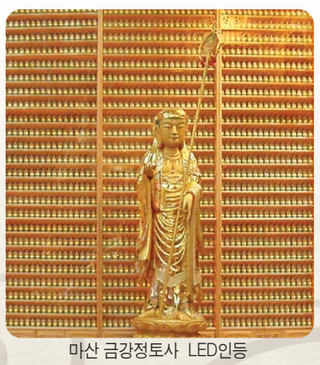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8

한 생각 돌려 진면목 보라

[원문]
세존좌도량(世尊坐道場)
청정대광명(淸淨大光明)
비여천일출(比如千日出)
조요대천계(照耀大千界)
–대흥사 천불전

[번역]
세존께서는 도량에 앉아 계시고
청정한 대 광명을 놓으시네.
비교하건대 마치 천개의 해가 뜨는 것 같이
대천세계를 밝게 비추시네.

[선해(禪解)]

지난 주 KBS '일요스페셜'에 백담사 무금선원 스님들의 무문관(無門關)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됐다. 금기시돼왔던 스님들의 수행처가 이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소개된 것이다.

스님들의 수행현장과 치열한 구도의 이야기를 그것도 시청률이 가장 높은 일요일 저녁에 방영한 것은 파격적인 선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승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래서인지 씁쓰레한 생각이 오래 남는다. 수행의 본분은 오직 자신의 마음을 닦기 위한 과정인데 이를 다른 이들에게 노출한다는 건 아무래도 불가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무문관이란 일정한 기한을 정해 문을 닫아걸고 수행하는 선방을 말하는데, 불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수행처이다. TV에서는 3개월에 걸친 스님들의 동안거를 코디로 잡고 마지막 안거를 끝낸 시점에서 문에 잠긴 열쇠를 풀어주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시해야 할 사항은 바로 방문을 걸어 잠근 열쇠에 있다. 무문관이란 엄밀하게 말하면 <문 없는 문>이다. 그런데 왜 문 없는 문에 열쇠를 잠그는 것일까? 스님들이 수행 중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낼 수 없어 혹시 문을 박차고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종의 강압적인 통제를 위해 열쇠고리를 만든 것은 아닐까하고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통과의식으로 그만큼 불가의 수행은 철저한 통제와 근기(根基)를 가져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무문관 수행을 하면서 만나고 접할 수 있는 건 오직 사방이 막혀 있는 벽뿐이다. 이를 두고 벽관(壁觀)이라고 하는데 '참다운 마음을 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럼, '참다운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 바로 '번뇌와 망념이 없는 청정한 마음'이라 할 수 있는데 곧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무문관 수행은 '먼지와 티끌 없이 마음을 비우고 오직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철저하게 가두어야 하지만 정신은 반드시 자유자재해야 한다.

이날 일요스페셜은 '불교의 세계'를 일반인들에게 보다 차원 높게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무문관 수행의 본질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 자칫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요즘 남국선원, 무금선원, 조계암, 무일선원 등의 무문관이 생긴 것도 좋은 일이라 할 수 있다.

대흥사는 한국불교를 이야기함에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천년고찰이다. 해남 두륜산(頭輪山)의 빼어난 절경을 배경으로 자리한 이곳은 한국불교사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량으로서 임진왜란 이후 서산(西山) 대사 의발(衣鉢)이 전해지면서 조선불교의 중심 도량이 됐고, 오늘날 한국불교의 종갓집도량으로 불리고 있다.

중생 떠난 곳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 불가능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성불의 기회 잡아야

풍담(風潭) 스님으로부터 초의(草衣) 스님에 이르기까지 13대종사(大宗師)와 만화(萬化) 스님으로부터 범해(梵海) 스님에 이르기까지 13대강사(大講師)가 이곳에서 배출됐다. 당시 암울했던 조선시대의 불교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존재는 한국불교를 오늘에까지 있게 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한국불교의 위대한 성지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중기 이후 수많은 선승(禪僧)과 교학승(敎學僧)을 배출하면서 한국불교의 중심도량으로 성장한 곳이다. 무문관 수행의 핵심처라고 할 수 있다. 대흥사 경내와 산내 암자에는 중요한 국보급 문화재가 상당수 존재한다.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국보 제308호), 탑산사 동종(보물 제88호), 북미륵암 삼층석탑(보물 제301호)과 더불어 천불전은 전남 유형문화재로 알려져 있다.

한국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호국도량의 위상을 간직 하고 있는 이곳은 지금도 성불(成佛)과 중생구제의 서원을 간직한 스님들의 정진이 끊이지 않는 청정수행도량이다.

천불전에 있는 주련 '세존좌도량 청정대광명: 세존께서는 도량에 앉아 계시고 /청정한 대광명을 놓으시네'는 부처님의 존재의 거룩함을 보여 주는 내용이다. 말하자면 부처님은 시방 삼천대천세계 그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항상 청정한 대광명을 빛내고 있으며 마치 '비여천일출 조요대천계: 천개의 해가 뜨는 것 같이/ 대천세계를 밝게 비추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금언(金言)이라 하겠다.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마치 물과 얼음과 같다. 물을 떠난 얼음이 없고 얼음을 떠난 물이 없듯이 중생에게서 부처를 구해야지 다른 데서 부처를 찾아봐야 없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항상 부처님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이를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즉, 자신이 부처임을 자각하고 부처로 살면 부처이고 이것을 모르고 중생인 줄 알고 중생으로 살면 영원히 중생에서 벗어 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한 생각 바꾸어 부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바로 전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불전의 주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구(警句)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똑똑하다고 믿고 있다. 돌이켜 보면 한갓 지식껍데기에 집착하고 있다. 바로 자신이 부처임을 모르는, 존재의 실상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깨치기 위해 수행하는 곳이 바로 무문관이라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이며, 들판에 피어 있는 풀꽃과 나무가 둘이 아닌 하나이며 저 하늘의 별과 달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치는 곳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부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다.

이를 진실로 깨달을 때 마치 '천개의 해와 천개의 달이 비추는 것 같은 부처님의 대지혜의 광명'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청정하고 참다운 마음'을 찾기 위한 치열한 수행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8

생사 없는 자리 깨달아

[원문]
若欲覓佛 須是見性卽是佛 若不見性 念佛誦經持齋持戒 亦無益處 念佛得因果 誦經得聰明 持戒得生天 布施得福報 覓佛終不得也.

부처를 찾고 싶으면 반드시 성품을 보아야 하느니라. 그것이 바로 부처이니라. 성품을 보지 못한다면 염불을 하거나 경을 읽거나 재(齋)를 지키거나 계율을 지키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 염불을 하면 왕생의 인과를 얻고, 경을 읽으면 총명해지고, 계율을 지키면 천상에 태어나고, 보시를 하면 복스런 과보를 받겠지만 부처는 끝내 찾을 수 없느니라.

[해설]



일본 하쿠인 作 '直指人心見性成佛(직지인심견성성불)'.

생도 없고 죽음도 없는 부처의 자리를 찾는 방법에 대해 달마 스님은 '부처를 찾고 싶으면 반드시 성품을 보아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진언을 외울 때나 화두를 들거나 염불을 할 때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처자리에 마음을 두고 의심을 하게 되면 틈이 생기지 않아서 잡념이 없고 집중이 잘 돼 맑은 기운이 업을 맑혀 줍니다. 탁한 기운이 맑은 기운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오래 정진하면 할수록 우리의 불성 자리가 조금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염불을 하든, 화두를 들든, 열심히 일심으로 정진하면 우리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성품을 보는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생사가 없는 그 자리를 체험하는 순간 '견성(見性) 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견성한 다음에 경을 보면 배우지 않았어도 모두 알게 됩니다. 배우지 않았지만 체험을 하고 나니까 막힘 없이 다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품을 보지 못한다면 염불을 하거나, 경을 읽거나, 재(齋)를 지키거나, 계율을 지키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 <방등경>을 통해 교훈적인 말씀을 20년 동안 설명하신 다음 이해가 되신 분들에게 바로 반야부에서 생사가 본래 없는 체(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의 성품을 봤다면 염불을 할 필요도 없고 경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수행을 하지만 한다는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말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걸림이 없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볼 때는 파계이고 막행막식(莫行莫食)이지만 정신세계에서 보았을 때는 걸림이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이건 옳고 이건 잘못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자리에서 보면 잘한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은 실상(實相)을 바로보지 못한 가운데 경을 읽거나 계율을 지키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일념으로 염불을 하면 왕생(往生) 인과를 받고 극락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극락에 가더라도 생사가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극락에 가더라도 본래 성품을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극락은 마음자리를 깨닫기 위한 수행 공간이기에 그렇습니다. 극락세계는 상품, 중품, 하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품(中品)에선 수행이 가능하지만 하품(下品)에선 수행 전 몸과 마음을 바로 세우는 곳입니다. 견성을 하신 분들은 상품(上品)으로 그대로 올라가고, 견성을 못했지만 열심히 수행했던 분들은 중품으로 올라갑니다. 불교도 모르고 열심히 수행도 하지 않고 절에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은 스님들의 힘을 빌어 극락에 간다 하더라도 하품으로 갑니다.

정진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을 떠야 가족이나 다른 누구에게라도 이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정진하면 집안의 나쁜 기운도 정화되고 집안도 저절로 편안해집니다.

달마 대사는 염불을 할 때 관상염불이나 칭명염불을 하면 극락을 갈 수 있지만 실상염불이 되지 않을 땐 깨닫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경을 읽으면 총명해진다 하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신 경의 뜻을 새겨 자기 마음을 비추며 읽다보면 총명해집니다. 또 계율을 지키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천상에 태어난다고 해도 천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업이 다하면 다시 윤회 하는 곳이니까, 부처를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시를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은 실상자리에서 보시를 행하는 경우 우주를 상대로 하는 행위이니 부처님으로서 갖추게 되는 무량한 덕이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보시는 행한 만큼 큰 복을 받지만 업이 다할 땐 다시 과보를 받게 되니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부지런히 수행해야 합니다. 지장보살을 찾든 관음보살을 찾든 상관이 없습니다. 본래 모양이 없고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그 자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편이라는 말이죠.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이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만 다르게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소리로써 나를 알려고 하는 자는 영원히 진리를 보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들 본래 마음자리입니다. 그 자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염불이나 진언, 화두로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염불이나 진언을 염하든, 화두를 들든 맑은 기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편으로든 정진을 하면 할수록 정신이 맑아지고 나쁜 기운도 정화가 되니까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결국 본래 부처자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개강일 : 3월 30일(월요일)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불자님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자녀의 가출, 습관, 성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 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세상에서 얻은 것이 어떻게 자기 것인가?

혜거 스님 (금강선원장)



"공부하려면 오욕 다스려야 해
참선 하되 경전공부도 해야돼
나를 극복하면 저절로 보여"

여름 해는 길었다. 텅 빈 골목 한 켠에 쪼그리고 앉은 소년은 스쳐가듯 배운 오언율시와 칠언율시를 가락에 맞추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읊조려 보았다. 서당에 간 친구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형편이 어려워 서당을 줄곧 다닐 수 없었던 소년은 서당에 가는 날 보다 쉬는 날이 훨씬 많았다. 공부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소년은 친구들로부터 글 동냥을 하다시피 해서 <소학>부터 해서 <논어>, <맹자>를 익혀나갔다. 굶주림으로 인한 허기보다는 배움에 대한 허기가 소년을 슬프게 했다.

어느 날 잿빛 승복을 입은 삼촌이 왔는데 참으로 멋져보였다. 그리고 삼촌은 학식이 높아 모르는 것이 없었다. 어린 소년의 눈에는 승복을 입으면 삼촌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것만 같았다. 배움의 열망으로 가득 찬 소년의 마음을 감지한 삼촌 김지견 박사는 소년을 탄허 스님에게 보냈다. 김지견 박사가 써준 추천장을 들고 속초 영은사로 찾아 간 열 다섯 살의 소년은 절에 발을 디딘 순간 환희심에 젖어버렸다. 이 방 저 방에서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에 '여기가 바로 내가 살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와락 들었던 것이다.

탄허 스님은 소년에게 점심공양하면서 천수경을 외라고 주었는데, 그날 저녁공양 전에 천수경을 다 외워 바쳤다. 소년의 뛰어난 한문 실력과 영특함을 한 눈에 알아 본 탄허 스님은 금방 온 신참을 '화엄경 3년 결사'에 동참할 것을 명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탄허 스님을 만난 소년은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그 소년이 바로 지금의 혜거 스님이다. 3년 동안의 행자 시절에 탄허 스님을 모시고 사교와 사집을 다 배웠고, 출가자가 익혀야 할 공부의 반을 해마쳤다. 행자 때 나무하고 채마밭 가꾸고 농사를 짓다보니 항상 시간이 부족하여 차분히 앉아 경전 외울 시간이 없었다. 돌아다니면서 경전을 외우다 보니 '수보리 행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혜거 스님은 "나는 스승복이 많은 사람"이라 한다. 스승과 제자의 연도 억겁의 세월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 혜거 스님은 자신을 추켜세우는 것을 질색하지만 입 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강백으로 꼽고 있다.

혜거 스님의 처소에 들어서자 묵향이 먼저 반긴다. 책상 위에 벼루와 붓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수행 삼아 금강경 열 폭 병풍을 800벌이나 써보았지만, 당신의 글씨가 마음에 썩 들지 않아 지금도 계속 연습중이라 한다.

혜거 스님이 이곳 개포동에 금강선원을 개원한지도 이십년이 넘었다. 매년 만오천명 정도가 수강하고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 간 사람이 27만 명이 된다고 하니, 강남 일대에 불교와 공부 열풍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풍문이 괜한 소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금강선원에서는 한문원전으로 경전을 공부하는데 보통 칠백 명에서 팔백 명은 족히 모인다. 금강선원에는 한자능력시험 2~3급 합격자는 수백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한자 공부를 적극 장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었다.

"이곳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부들입니다. 신앙생활이 사치성과 오락성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기능을 한 가지씩 가지라 했지. 가령 일본어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발전시킬 기능이 없는 사람들은 한문을 공부하라고 했어요. 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머니나 엄마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자식과 손자들이 존경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전을 원문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머리에 남지 않을뿐더러 깊은 맛을 몰라요. 더구나 우리는 한자문화권이기에 한문을 공부해 두면 여러 가지로 유용해요."

한문 실력을 갖춘 사람과 갖추지 않은 사람을 가르쳐 보면 이해의 폭이 넓고 좁은 것이 확연히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단다. 한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에 그러다 보면 불교의 핵심이 파묻힐 때도 왕왕 있기에 불교공부를 하려면 한문은 필수란다.

스님은 남에게만 배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또한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다. 역경을 하다보면 한자의 어조사 쓰임이 분명하지 않아 중국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다. 2004년에는 중국 하얼빈으로 반년동안 중국어학 연수를 다녀왔고, 지금도 매일 새벽 2시간씩 학원에서 중국어 공부를 하신다. 중국어를 읽고 쓰는 데는 별문제가 없지만 사람마다 다른 억양과 발음을 듣는데 어려움을 느끼기에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단다.

"저는 대충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금강선원에 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 취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지."

혜거 스님은 금강선원에서 매주 일, 월, 수, 금요일마다 경전강의와 참선지도를 하고 있으며, 불교TV와 서울불교전문강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다. 혜거 스님의 강의가 인기 있는 것은 경전을 일반인도 알아들을 정도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기 때문이다.

혜거 스님은 교학을 공부하여 경전공부가 깊어진 후에 64년 김제 흥복사 선방에서 처음으로 결제를 했다. 화두를 들면 번뇌망상이 치성했지만 선공부 또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했다. 금강선원에서는 선과 교를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다. 선을 하는 사람이 교를 배우면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를 여쭈었다.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부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방해가 되지만 배운 것을 버리면 버린 자체가 참선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전을 통해서 공부한 개념, 관념, 지식 등을 진짜 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공부이지요. 가부좌 틀고 앉아서 뭐 하려고... 사람들은 조사선을 중국선이라 하지만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을 보면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문답을 나누는데 그것이 바로 조사선의 가풍입니다. 선재가 찾아가 묻고 답하는 것이 바로 선문답이며, <화엄경>의 입법계품 자체가 선의 진면목입니다."

머리에 각인된 것을 어떻게 버리느냐고 했더니, 부처님 가르침대로 따라 가기만 하면 저절로 버려진다고 한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이자 왕족 출신이었기에 참으로 오만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비관을 통하여 그 오만함을 버릴 수 있었다. 오만함을 버리고 탁발을 나갔더니 누구보다도 탁발이 쉬웠다는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셨다. 내가 없으면 버릴 것조차도 없다고 한다.

"요즈음 지적소유권이라 해서 자신의 지식을 철저히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다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이지 자기 것이 아녀.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을 혼자만 알고 있겠다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자신이 손해여. 그것을 빨리빨리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자신에게 발전을 가져와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 내 것을 앞세워서는 안되지."

혜거 스님은 운전을 한지 15년이 넘었다. 그동안 스님이 남의 차를 들이받아 본 일은 없는데 다른 차가 와서 스님의 차를 들이받은 일이 3번이나 있었다. 그때마다 혜거 스님은 '내 차가 당신 차 앞에 있어서 사고가 났으니 정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스님의 차를 들이받은 그 차의 수리비를 다 지불해주었다. 스님은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소 무아를 실천하시는 것이다. 자비보살로 통하는 전설 같은 지월 스님 이야기가 떠오른다. 어떤 사람이 지월 스님의 뺨을 때리자 그 사람의 손을 감싸면서 얼마나 아팠겠냐고 위로 했다는 일화가 생각난다.

참선은 이 세상에서 지식으로도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풀어야 할 사무친 의문을 어느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란다. 세상에서 배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참선을 통해서 배우고 해결하려 하겠는가고 반문하신다. 참선은 실제로 부딪쳤을 때 아상(我相) 없이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때 공부가 깊어지는 것이다.

"원망심을 품은 사람이 아무리 원망을 하지 않으려 해도 원망은 자꾸 가지를 치고 끊임없이 나와요. 상대에 대한 원망심이 스스로 없어졌을 때 그 생각이 다시 안 일어나게 되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상대에 의해 미움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내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참선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을 다스려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히 솟구쳐야 해요. 간절한 마음이 솟구쳤을 때는 참선 방법을 따로 누구 에게 물을 것이 없고 스스로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참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
수재화고무신코 만 행 화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사부대중 선 물

지압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동 깔창
조극게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20,000원
• 사이즈 : 230-280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건강샌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동 깔창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85mm
• 색상 : 검정,회색

망사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85mm
• 색상 : 검정,회색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미래를 열어가는 불(火)의 불멸조(不滅鳥)



의장등록번호 제 2008-0052952호

지금 이 시대는 과거도 지나고 현재도 지나고 미래의 시대입니다. 자신이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못하고 몸으로 느껴야 믿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불멸조(不滅鳥)는 가정, 사업장, 자동차 등 육해공(陸海空)을 움직이며 다니는 모든 곳에 두시면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와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요즘 많이 떠다니는 영혼들의 액운(厄運),액살(縊殺),잡귀(雜鬼)등등의 조화 부림으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가정에는 행복(幸福)과 건강(健康)과 부부금슬(夫婦琴瑟)이 좋아지고 자녀(子女)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없어지며 사업장에는 사업번창(社業繁昌)이 자동차나 움직이는 곳에는 안전과 사고예방을 하는 힘(力)과 원력(原力)으로 지켜주는 미래(지금)의 꼭 필요한 불멸조(不滅鳥)입니다.

불멸조(不滅鳥)는 태양(太陽)속에 사는 삼족오(三足烏)의 원력(原力)과 삼신일체상(三神一體思想)인 천(天),지(地),인(人)의 원력(原力)이 함께하여 위에는 세 방위의 날카로운 칼날(刀刃)이 액운액살(厄運 縊殺)을 일시로 소멸(消滅)함으로써 복(福)이 저절로 따라오는 기운(氣運)이 있으며 앞길을 뻥뻥 뚫어주고 열어줌으로써 아주 영험(靈驗)한 길조(吉鳥)입니다.

아래에는 순수함의 원력(原力)과 함께 최고의 행운(幸運)을 열어주는 길상(吉祥)으로 알려진 천연 백수정(石英,Quartz:신의 얼음)을 안착하였습니다.
순금(99.9%)으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해서 도금하였으며 순금의 생체활성파장(生體活成波長)으로 활력(活力)을 불어넣어 주는 최고의 호신불(護身佛)입니다.
기도 축원 불공을 마치고 계속해서 1년 동안 무료 인등 축원발원으로 밝은 앞날을 계획하시고 소원 성취 하십시오.

※ 호신불이 가져오는 현상들
모시고 난 후 어지럽거나 구토증세, 피부이상, 기운저하 등 여러가지 현상들은 액운과 액살이 빠져 나가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인내로 믿으시면 일정 시일이 지난 후 정상으로 돌아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전화 031)898-5666 / 010-8674-5351
우체국 100941-02-294031 (엄홍수)

몸·마음 '순수'로 일치시켜야

선을 하되 반드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워야 해요."

스님은 경전공부로 기초를 다진 연후에 참선문에 들라고 당부하신다.

"어렸을 때 먹어야 할 게 있고 어른이 먹어야 할 게 있습니다. 초심자가 참선문부터 들어가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녹용을 먹이는 것 같은 우를 범할 수도 있지요. 경전 말씀을 통해 발심을 견고하게 하고나서 참선 수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전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고 참선만 하면 진전이 없단다. 참선을 해서 한 경지를 얻었을 때 그 경지에서 나온 말이 부처님 말씀과 똑같아야지, 부처님 경지는 얻었지만 그 말이 부처님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란다. 그리고 참선을 하되 경전과 같이 할 것을 당부했다.

"탄허 스님의 지도방침이 공양주든 행자든 공부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양주가 화엄경 공부를 하는 바람에 탄허 스님을 비롯한 전 대중이 3년간 점심공양은 찬밥을 먹어야 했지요. 나중에는 부목까지도 공부를 하는 바람에 영은사 주지 스님이 나무하고 등짐 나르고 다했어요. 알고 보면 그때 주지 스님도 보살인거여. 탄허 스님은 저녁 9시만 되면 방문객이 있든 없든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서는 새벽1시든 2시든 늘 첫잠이 깨면 일어나서 정진하셨어요. 공부를 하려면 먼저 몸을 조복받아야 해요. 몸을 조복받는다는 것은 오욕을 다 스린다는 것인데, 이것 절대 쉽지 않아요."

중생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몸이 해서 안 될 일을 마음이 하고자 하며, 마음으로는 하지 않아야 함을 알지만 또 몸이 자제되지 않으면 이성과 감성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단다. 만약에 사람이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한결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일관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 또한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혜거 스님은 지금 우리나라는 지식이 포화상태이기에 지식에 지식을 더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지식을 하나씩 버려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제는 지식을 인격화해야 할 때입니다. 인격화의 첫걸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경전 하나하나를 인격화하는 것이지요. 지식을 인격화하는데 불교가 또 불자들이가 앞장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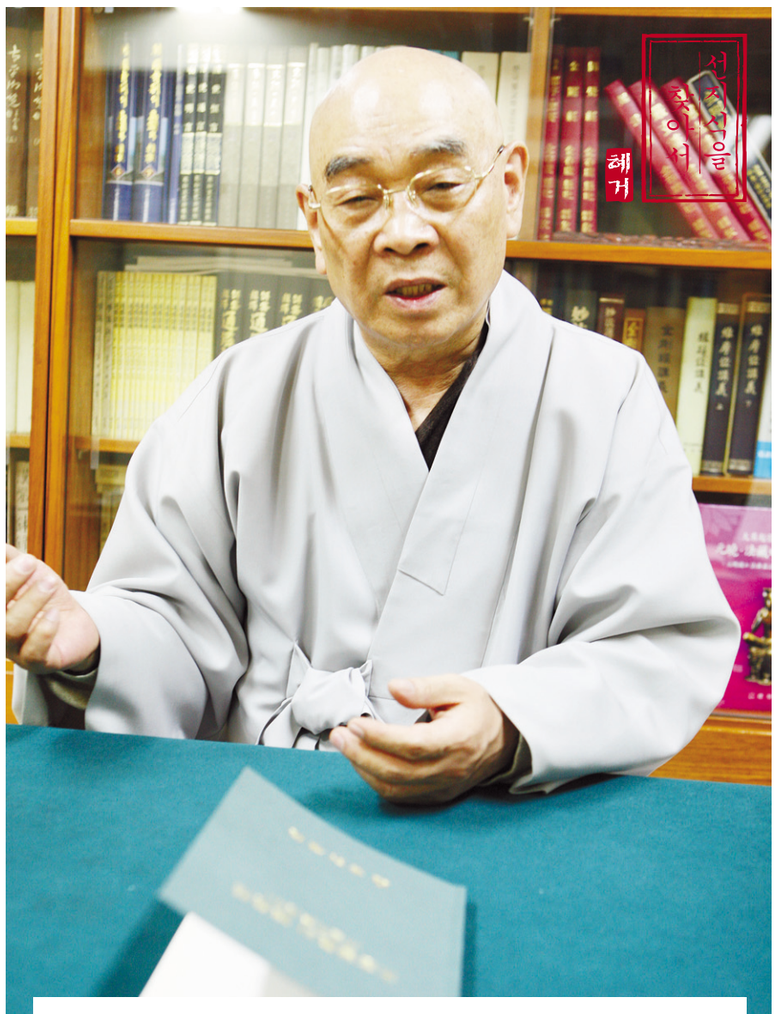
혜거 스님은 불교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면서 우선적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우리의 전통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살려내야 하는데 불교가 앞장서야 합니다. 둘째는 각 기업체마다 불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불자회가 잘 되어 있는 곳은 노사분쟁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불교 신도는 종자가 달라서 양보를 진짜 잘 합니다. 육십 년대 서울 세검정에 수십 채의 절이 기독교인에 의해 불태워졌을 때도 불자들은 그에 대해 아무런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보아도 불교 단체가 얼마나 나라에 안정을 주고 있는지 국가가 알아야 해요. 셋째는 참선을 전 국민에게 보급해야 합니다. 참선은 세상 살아가는 사람의 양식이기에 사람이면 무조건 참선을 시켜야 합니다. 자꾸 도(道) 통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몸과 마음을 극복하는 순간 도(道)는 열리게 돼있어요. 도란 사람이 가는 길이여. 내가 나를 극복하고 나면 그 길이 저절로 보이는데 자꾸 허깨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답답해요."

혜거 스님은 대만의 '자광사'라는 절은 병원을 열어 극빈자들에게 무료진료를 해주는가하면 세계 60개국에 학교를 세워주는 등 국경을 초월하여 복지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대만이 유엔에서 쫓겨났지만 세계에서 고립되지 않는 그 이유라 한다. 우리 불자들도 "자신의 향상된 기운을 나라에 쏟아야만 나라가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음"을 강조했다.

소아(小我)로 살지 말고 대아(大我)로 살라는 말씀 참으로 귀하고도 귀하다. 곧은 것을 휘어서 다시 구부리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겠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혜거 스님은 1959년 영은사에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61년 월정사에서 범룡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 1963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 탄허 스님 회상에서 사교와 사집을 수료하였으며, 영은사에서 〈화엄경〉 3년 결사에 동참. 1978년~1982년 탄허 스님의 역경을 보조. 1992년 한암대종사문집편찬위원장을 역임. 1988년 금강선원을 개원하여 경전강의와 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저서로는 〈참나〉 〈혜거 스님의 금강경 강의〉 〈15분 공부 집중법〉 〈가시가 꽃이 되다〉 등 다수 있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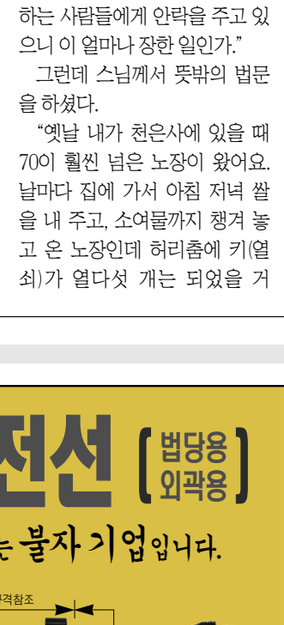
36. 조계종 최장수 도인 혜암 대선사

혜암(1886~1985) 스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Orange County)에서 처음 뵈었다. 101살에 미국에 오셨기 때문에 벽사도인(辟邪道人; 삿된 기운을 물아내는 도인)이 오셨다 하여 야단이 났다. 한번 보고, 한번 만져만 보아도 다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하는 일이 원만이 성취된다고 하여 혜암 스님 뵙고자 하는 사람들이 2km는 좋게 늘어서 있었다.

스님은 정원에 앉아 인사를 받고 한번 악수를 하면 그 옆에 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이니 서민들은 복을 구하기 위해서 오지만 기업인들은 '저 분을 어떻게 모셔 저 봉투를 내가 챙길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묘봉 스님이 옆에서 시봉을 하고 탑골승방에서 온 비구니 스님이 비지를 역임하시고, 덕숭산에 이르러 마지막 20년을 지내며 덕숭산 가풍을 계승하였습니다. 그제 100세에 미국에 들어오셔, 오늘 101세가 되었으니 미국에서도 이만한 수명을 누린 분이 드뭅니다. 더군다나 도인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소리 높이 외쳤다.

"혜암 스님 만세, 혜암 스님 만세."



여지 저기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오니 기분 따라 도네이숀(donation; 보시)이 수 없이 쏟아졌다.

이 일로 인해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고생하던 스님들은 몇 개월 동안을 편안히 지낼 수 있게 되었고, 미국내 한국불교의 위상이 한껏 높아졌다.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

"역시 사람은 오래 살아야 하는가 보다. 100세 살기도 어렵지만 백세를 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저렇게 기쁨을 주고 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안락을 주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장한 일인가."

그런데 스님께서 뜻밖의 법문을 하셨다.

"옛날 내가 천은사에 있을 때 70이 훨씬 넘은 노장이 왔어요. 날마다 집에 가서 아침 저녁 쌀을 내 주고, 소여물까지 챙겨 놓고 온 노장인데 허리춤에 키(열쇠)가 열다섯 개는 되었을 거야…."

청중들은 모두 자기 허리춤에 달려있는 키를 보고 킥킥 거리고 웃었다.

"그런데 젊은 수좌들이 나에게 물었거든."

청중이 있다가 큰 소리로, "무엇이라고 물었지요?"

" '소타고 소를 찾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고. 그런데 그 노장이 갑자기 일어나 손뼉을 치고, '맞았다' 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여."

그래서 젊은 스님께서는 "저 노장이 미쳤나"했지만, 내가 점검하고 인증해 보니 틀림없었어. 만일 여러 분에게 이 문제를 제시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자, "내 그럴 줄 알았어. 미국 와서 말 타고 사시니 자기 소는 다 잊어버렸지 뭐."

101세에 미국서 법문 "말 타고 사니까 자기 소는 잊었지"

딸을 흘리며 찾아온 손님들을 접대하였다.

사회자가 말했다.

"큰 스님께서는 12세에 부친상을 당하고 이듬 해 양주 수락산 흥국사에 출가하여 15세에 이보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였는데, 2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타계하시니, 사고무친(四顧無親)이라 4방 8방으로 은둔행각을 하셨습니다. 23세에 비로소 발심, 서해담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고, 28세에 박성월 스님에게 처음 화두 법문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 후 만공 스님, 혜월 스님, 용성 스님, 한암 스님을 모시고 용맹정진 하니 만공 스님께서 친히 전법게를 주셨다 합니다.

'구름과 산은 같고 다름이 없듯이/ 큰 가풍 또한 없는 것이지만/ 여의주 · 글 없는 도장을/ 그대 혜암에게 전한다.'

스님은 그 뒤에는 묘향산, 상원사, 정선 정암사, 구갈래사 주지세."

박장대소가 쏟아졌다. 한 사람이 물었다.

"그건 그렇고, 그 스님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서광사 조실로 천거했거든. 그런데, 여기는 조실 될 사람이 하나도 없네.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거든 밤낮없이 정진하여 내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점검할 기회를 달라고!"

"하 하 하."

"웃지 말고 진정으로 한 말이야"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혜암 스님은 그 뒤로 일 년 있다가 덕숭산 문중에서 입적 하셨다. 스님의 해맑고 천진한 모습. 비구니스님들이 시봉을 해도 이미 남녀상을 떠나있었기 때문에 마치 갓난아이를 보살피듯 조심스럽게 모셨다. 덕숭산 문중에 많은 수좌가 있으나 혜암 스님처럼 복(福) 수용한 스님은 드문 것 같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초 혼 · 재 혼 -

결혼정보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게)
-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베트남 관음사 사찰과 자매결연

초혼 · 재혼 일본으로 결혼 하실 여성분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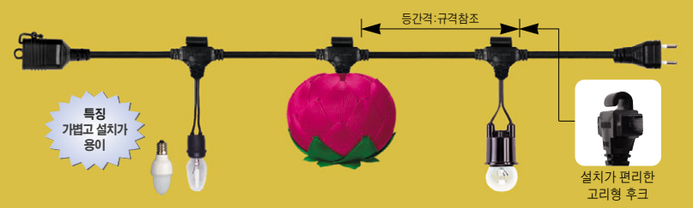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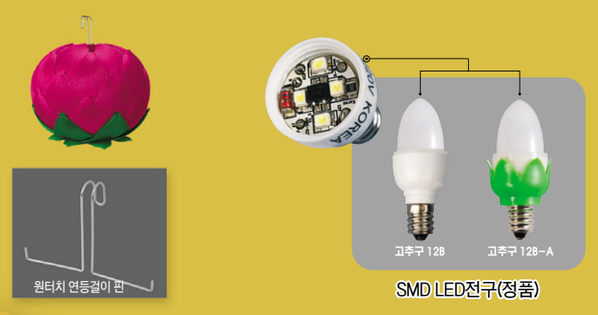
해성불원자비회는 봉사단체로서 실비로 여러분의 인연을 맺어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라고 노력하는만치 완전 무결함을 우선으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담 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1-494-9595** / 전화 **032)886-1661**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78>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④

일체법은 허깨비처럼 실체가 없다

當知若見無爲入正位者 其人終不能發三菩提心 此卽定力多故 不見佛性

가령 수행자가 세속으로부터 진제로 깨달아 들어가는 공관을 닦아 무위법을 보고 깨달음의 올바른 이치에 들어갔다고 여기면서 이를 구경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끝내 세 가지의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한다.

삼보리심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말한다. 이를 번역하면 위없이 진실하고 평등하고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것을 분류할 수 없는데도 굳이 분류한다면 세 종류의 보리가 있는데, 이는 세 종류 근기와 성품을 대치하는 것을 말한다.

첫 번째는 진성보리(眞性菩提)이다. 진은 거짓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성은 변개(變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거짓도 아니고 변개하지 않는 것을 진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진성을 도라고 여기기 때문에 진성보리라고 말한다. 이는 여래께서 깨달은 불과보리(佛果菩提)이다.

이 문제를 경전에서는 "어떤 사람이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다시 모든 중생에게 보리심을 일으켜 대승법의 의미를 배우라고 한다면 이는 자신이 해탈하고 나서 역시 중생까지도 해탈하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바로 진성보리의 의미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실지보리(實智菩提)이다. 실지는 자기 본성을 관조하는 지혜가 이치에 걸맞아 허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실지를 도로 삼기 때문에 실지보리라고 한다. 이는 연각이 일으키는 보리심이므로 연각보리(緣覺菩提)라고도 한다.

이 문제를 경전에서는 "수행인이 홀로 연각행을 닦으면서 보리심을 일으켰으나 중생들에게는 보리심을 일으켜 대승경전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고 교화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자기만 해탈을 얻게 된다.

세 번째는 방편보리(方便菩提)이다. 방편은 훌륭한 솜씨로 중생의 근기에 호응하여 교화의 작용이 자유자재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편으로서 도를 삼기 때문에 방편보리라고 한다. 이는 대승보살이 수행하는 것이다.

진성보리는 중도를 설명하고, 실지보리는 공을 설명하고, 방편보리는 속제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세 가지를 보리심이라고 말한다.

수행자가 속제로부터 진제의 공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은 실지보리의 작은 분야에 불과한데, 이는 지혜는 부족하고 선정삼매 쪽의 힘이 많기 때문에 불성을 보지 못한다. 이로 인해 성문승은 한결같이 공적한 경지에 빠져 진실한 성공이 바로 오묘한 속제의 유[眞空妙有]인 것을 밝히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유와 공이 둘이 아닌 하나의 중도의 이치임을 모른다는 의미이다.

공관서 가관으로 나와야 진실한 보살행 성취
허깨비같은 불사로 허깨비같은 중생 제도해야

그 때문에 여래의 위없는 보리열반인 중도 불성에 있어서 위배하지 않는 가운데 위배하게 된다. 그러므로 불성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若菩薩爲一切衆生 成就一切佛法 不應取著無爲而自寂滅 爾時應修從空入假觀 則當諦觀心性雖空 緣對之時 亦能出生一切諸法 猶如幻化 雖無定實 亦有見聞覺知等相差別不同

소승인은 편공을 증득하여 이를 구경각으로 여기므로 공관에서 가관으로 나와[從空出假] 중생을 교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보살은 소승과는 달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수행공부가 있어 자리이타의 덕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최초 발심할 때 사제(四諦)의 이치를 따라 사홍서원을 일으켜 자리이타를 행하면서 모든 법은 허깨비 변화와 같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아 허깨비 법으로 허깨비 법을 자연스럽게 일으킨다. 즉 일체중생이 일체불법을 성취하게 한다는 뜻이다. 여래의 법은 십력(十力) 사무외(四無畏)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 등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보살도 이와 같은 여래의 법을 성취하게 하려고 모든 법은 허깨비와 같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아 허깨비와 같은 불사를 일으켜 허깨비와 같은 중생을 제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래는 무위법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히 무위법에서 적멸하다. 그 때에 공관을 닦아 가관으로 나와 무위법도 허깨비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무위의 상태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작위하지 않음이 없으며 적멸이 허깨비와 같다는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적멸이 유위법 밖에서 따로 실재하지 않은 적멸이다.

보살은 이와 같은 이치를 명료하게 통달한다. 그러므로 광대한 마음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제도하면서 내가 지금 발심한 것은 인간 천상의 과보와 성문 연각과 대승초기 방편보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최상승을 의지하고 보리심을 일으켜 법계중생과 일시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하여 모든 것이 허깨비와 같다는 것을 명료하게 통달하기를 발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살의 발심을 종공출가관이라고 한다.

'제(諦)'는 진실을 살펴 허망하지 않다는 의미이며 '관(觀)'은 관찰의 의미이다. 이는 자기 마음 본성을 진실하게 관찰하여 내 마음은 방향도 없고 한계도 없어 끝내 그 실체를 얻지 못하지만 인연의 경계를 만날 때엔 일체 제법을 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로는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과 아래로는 육도범부인 세간과 출세간의 일체 모든 법이 이 마음을 의지해서 있다.

이러한 모든 법은 있다 해도 그 자체의 성질은 공적하며 있다 해도 실재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체제법은 단정적으로 실재하는 것은 없지만 실재 있지 않으면서 인연을 따라 허깨비로 있으므로 역시 견문각지 등의 모습이 차별이 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 무생을 설한다 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고 차별상이 없다 해도 차별상이 없지 않음을 말한다.

모든 세간법은 번갯불이나 그림자처럼 여겨야 한다. 이는 금강경에서 말한 "모든 법은 꿈과 허깨비와 물거품과 그림자와 이슬과 번갯불과 같다"라고 한 것에 해당된다.

능엄경에서는 "허공은 본래 모든 차별상이 없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모든 차별상이 발현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허공은 자기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다. 자기의 마음은 인연을 따르는 작용이 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허깨비 변화와 같은 모든 인연법을 실재 있다고 여기는 것은 마치 마술사가 수건으로 토끼나 말을 허깨비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진짜로 여기는 것과도 같다.

대승지관(大乘止觀)에서도 "관으로는 제법이 본래 일어나지도 않았고 지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분별인연을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허망한 세간의 작용이 없지 않다. 이것은 마치 꿈과 같아 실재 있지 않는 것이 허깨비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치를 관찰하는 것을 관 수행이다"라고 하였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수행위차(修行位次)

(2) 가행위(加行位)3-사종여실지(四種如實智)

① 난위(煖位)

가행위는 진여의 이치를 깨달은 견도위(見道位)에 바짝 근접하여 무루진여가 일어나려 하는 순간에 지혜는 분명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동산에 해가 솟으려 하면 먼저 광명이 비추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상태의 선정을 명득정(明得定)이라고 합니다.

가행위 가운데서 최초로 얻은 명득정으로 하품심사관(下品尋思觀, 심사관을 상하품으로 나눈다)을 일으켜 인식대상경이 실체가 없음을 관찰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를 의지해서 난위의 수행지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 난위 가운데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명 · 의 · 자성 · 차별 등 네 가지 경계는 모두가 주관적인 심식분별이 변화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임시로 시설해서 있을 뿐 실체를 따로 얻지 못하는 것을 최초로 관찰하게 됩니다.

가령 그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언어를 의식의 분별로 구성해서 표현했을 경우, 그것은 의식분별의 언어적 시설일 뿐 그곳엔 따로의 부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법이 이루어져야만 그 허구적인 대상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무루지혜의 밝은 모습을 증득하게 됩니다. 이는 혜일(慧日)이 출현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혜광명을 증득한 선정이라는 의미에서 명득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지에서 진여광명[道火]이 목전에 나타나므로 이 수행관을 난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도화(道火)라고 하는 것은, 이 수행지는 견도위에 근접하여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지혜광명의 불을 얻은 것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② 정위(頂位)

다음으로 난위에서 얻은 지혜광명이 더욱 증가한 선정을 얻어 상품심사관(上品尋思觀)을 일으켜 인식대상경이 공적한 이치임을 관찰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를 의지하여 정위를 수립하게 됩니다.

즉 이 정위 가운데선 인식대상경인 명 · 의 · 자성 · 차별 등 네 가지 경계가 모두 자기의 심식분별의 변현을 의지해서 임시로 시설했음을 거듭 관찰하고 이때에 지혜광명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혜광명은 더욱 증가한다는 의미에서 명증정(明增定)이라고 하며, 이 경지는 분별심사관의 위치에서는 극치점에 당도했기 때문에 정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정(頂)은 극치를 의미합니다.

■정리=張如舟

39기 氣치유 수련생 모집
"기치유" 선택 받은 분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치유"는 수련을 통해 누구나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1주 수련 만으로 누구나 기치유를 할 수 있다.
▶ (前)서울 불교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現 한국 기치유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윤한흥 교수님 직접 지도
▶ 본원의 기치유 수련은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전통 기치유 방법만을 전수함.
▶ 11주 교육 수료 후 한국 기치유 연구회 인증 수료증 수여
■ 수련일자 : 4월 9일 목요일 오후 7시~9:20(11주과정)
4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 5시
■ 수련장소 : 서초 단우빌딩3층/교대2호선 4번출구 1분거리
■ 수련문의 : 02-3482-5032, 3482-5065
전국 기힐링 센터
교대센터 / 부산센터 / 고양센터
분당센터 / 대구센터 / 노원센터
대표전화 02-3482-5032
www.gihealing.com 한국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123회 3000배 용맹정진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면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긍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면 100% 성취된다.
◎ 우리들 마음속에 부처님을 항상 모시는 날마다 행복한 날을 확신하는 염불선도우미를 동참자 전원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 날 짜 : 2009년 3월 28일(토) 저녁 9시~
2009년 3월 29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 · 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 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결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 2개, 위생비닐장갑 1개,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 아프신분(팔관애원 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 꼬리뼈, 차가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장 소 : 분당 하얀마음선원
☞ 전철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네비게이션에 하얀마음선원 치세요.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 행 중 심 교 육 도 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빙의령은 반야선에 태워보낸다!!
영가장애(빙의)는, 옛적부터 윤회(나고죽음의 반복)하던 동안에 악연으로 인한 업을 지어, 그것이 잠재의식(전생의식)속에 암장(기억)되었다가, 현생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 사람 몸 한번 받기 어려운데, 어차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빙의로 의한 장애를 이 생에서 치유 못하면, 내 생의 고통은 더욱 심하다.
빙의작용
• 원인 모르게 악마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다.
• 본인의 의지로써 감당할 수 없는 좌절, 실패
• 조상 영가에 의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없다.
• 빙의 치유를 여러번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천지만물이 반야선 아님이 아닌데 세상만사에 고해바다 건너는 이, 보기 어렵네
성공사례
• 울산의 36세 여교사는 상품광고 및 인터넷 쇼핑에 낭비벽이 심해 빚 더미에서 방황할때, 잠재의식 속의 업을 제거하는 의식으로 영가를 반야선에 태워 천상계로 보낸 후 정상적인 삶을 가졌다. 50대에 사망한 시 고모의 혼령이 빙의된 사실을 알았다.
•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여고생은 영가 258위에 빙의되어 잠재의식 속의 업을 제거 영가 마다 반야선을 태워 보낸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지리산 써레봉 아래 1100고지 토굴에서 15년간 고행
서 진 암 선 운 합장
051)783-0858 / 010-6289-1233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1596-11 103호 (반여초등학교 근처)

統合佛教儀式大典 出刊

총 1,2권 2,100 페이지
크기 4×6배판(19×26cm)
가격 : 전권 200,000원
본 의식 대전은 도량석부터 예불 등 총 183 가지의 불교의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록 정리 하였으며, 주요의식으로는
사십구제편
1.입재 불공의식 ○화엄시식
2.삼우제 불공의식 ○삼우제시식
3.초재 불공의식 ○지장시식
4.이재 불공의식 ○보현시식
5.삼재 불공의식 ○문수시식
6.사재 불공의식 ○미륵시식
7.오재 불공의식 ○보문시식
8.육재 불공의식 ○묘음시식
9.칠재 불공의식 ○관음시식
고사편
1.가정안택의식
2.사무실고사의식
3.자동차고사의식
4.선박고사의식
기타편
삼재살 해소의식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추천인
中央僧伽大學校 總長 宗梵
韓國佛教 太古宗 宗正
太古叢林 仙巖寺 方丈 釋慧草
統合佛教儀式大典
문의전화 : 055)747-8350,017-552-7350
계좌번호 : 농 협 803-02-752331 예금주 : 김묘경
우체국 612713-02-021600 예금주 : 김묘경

“옷 바꾸어 입는 것 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다”



다음날 아침.

대연 거사는 원각 스님의 시자가 부르는 소리에 방을 나왔다.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요. 공양간은 저기 복도를 돌아가면 나옵니다.”

“하룻밤 편하게 보냈습니다.”

“감원스님께서 차를 한 잔 하시잡니다. 공양하시고 난 뒤 염화실로 오시면 됩니다.”

대연 거사가 하룻밤 보냈던 방은 이른바 특실이었다. 귀한 손님을 위해 비워둔 방 같았다. 싱크대와 화장실이 딸린 원룸 형식의 방이었다. 방 한쪽에는 차를 마실 수 있게끔 다탁과 전기포트와 다구들이 준비돼 있었던 것이다.

비는 멈추었지만 햇살이 쏟아지는 양명한 날씨는 아니었다. 축축한 물안개 같은 것이 공기 중에 떠돌았고, 빨래 같은 비구름은 가야산 골짜기마다 머물고 있었다. 대연 거사는 아침식사는 늘 생략하곤 했으므로 공양간으로 가지 않고 경내를 산책했다.

달마선원 좌측으로 난 산길을 따라 오르자, 그 끝에 숲속에서 숨어 있었던 것처럼 육각정이 하나 튀어나왔다. 육각정에는 젊은 스님이 반가부좌 자세로 편하게 앉아 있었다. 다가가서 보니 원주 소임을 보고 있는 현오 스님이었다.

“스님 덕분에 하룻밤을 잘 보냈습니다.”

“뭘요. 제 덕인가요, 다 큰스님께서 해놓으신 불사지요. 이 육각정도 원래는 큰스님 계실 때에 미소굴 옆에 지어졌다가 후에 이곳으로 옮긴 거지요. ‘공부하다 죽어라’ 말뚝이 있는 그 자리에 이 육각정이 있었어요.”

현오 스님은 눈을 그윽하게 뜨고 말했다. 원당암 경내를 바라보는 눈길이 생전의 혜암 스님에게 가닿아 있는 듯했다. 보광전에서 한 보살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제 무생교에서 보았던 노파였다.

“저 분이 바로 큰스님의 속가 여동생이지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원당암 공양간에서 일을 하시는데 20여 년 됐어요. 우리들은 마지보살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허리가 구부러져 있다가도 부처님께 마지를 올릴 때만은 허리가 쭉 펴지거든요.”

노파가 혜암 스님의 속가 여동생이라면 현각 거사의 어머니라는 말이었다. 대연 거사는 자연스럽게 어제 보았던 노파의 잔상 속에서 혜암 스님을 떠올렸다. 노파의 눈매와 큰 입이 혜암 스님을 닮아 있었던 것이다.

“저는 큰스님에게 ‘이뭣고’ 화두를 탔습니다만 제가 중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은 큰스님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어떤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법상에서 법문하신 것보다는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지나가시다가 툭 던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저를 되돌아보게 했어요. 갈등도 가라앉혀 주었고요. 한때는 속퇴하려고 마음도 먹었으니까요.”

육각정은 마루 넓이가 두어 평 되는 조그만 정자인데, 원당암 당우들과 떨어져 있어 호젓한 느낌도 들었다. 두세 명의 도반이 앉아 마음을 주고받기에 좋은 그런 규모였다.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현오 스님은 스스럼없이 자신의 지난 얘기를 했다.

“제 고향은 충청도 광천입니다. 김으로 유명한 바닷가이지요. 그쪽은 절이 없어 불심이 약해요. 지금은 수덕사를 가려면 30분밖에 안 걸리지만 제가 수학여행을 갈 때만 해도 돌아 돌아서 갔어요. 서울에 올라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불교를 알았어요. 조계사 옆 수선회 선방에 사촌형을 따라갔다가 참선도 하고 혜국 스님의 법문도 듣곤 했거든요. 그러다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고 원당암으로 와 행자생활을 시작한 거지요.”

스님은 자신을 불문으로 이끌어준 사촌형을 잊지 않았다. 사촌형이 어느 날 현담 스님이 이끄는 수선회를 소개해주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아직도 저잣거리에서 미련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며 고마워했다.

“큰스님 입적하기 전의 일이네요. 행자생활을 하다가 제 부주의로 공양간 가스통에 불이 붙어 화상을 크게 입고는 대구 동산병원에서 50일 동안 치료를 받았지요. 얼굴과 두 팔에 화상을 크게 입어 보기에 흉했나 봅니다. 총무원 교육원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혐오감을 준다 해서 떨어졌지요. 결과를 예측했지만 그래도 막상 낙방하고 나니 말할 수 없이 착잡했어요. 크게 낙심했지요. 그런 기분으로 원당암에 내려와 한 달 정도 지내는데 저잣거리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구요. 그때가 사월 초파일 전이었습니다.”

스님은 출가한 것을 후회했다. 스님이 되려고 출가했는데, 얼굴에 화상을 입어 행자복도 벗지 못하는 신세가 됐으니 기가 막혔다. 원당암 경내를 맥없이 오가면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다. 혜암 스님이 염화실에서 스님을 불러 마루에 앉혔다. 혜암 스님은 야단치지 않고 뜻밖에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마음이 중요한 거다. 옷 바꾸어 입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옷 바꾸어 입었다고 치자. 빨간 행자복 벗고 회색 옷으로 바꿔 입는 것밖에 네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출가한 그때나 지금이나 공부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마침 원주를 보던 각안 스님도 두세 번이나 저더러 행사나 치르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고, 저도 그때 ‘이왕 좋은 도량에 왔으니 사계절 변하는 것이나 보고 가자’ 고 생각했고요. 음력 9월 9일 중양절이 지나고 나니 비로소 신심이 나더군요. 재가불자들과 함께 참선도 하고 그러다 보니 환희심이 생긴 것이지요. 이후 큰스님 시자로 살다가 스님 입적하시고 난 뒤 해인사 강원에서 4년 마치고 봉암사, 부석사, 범어사에서 한 철씩 나고 원당암으로 돌아와 이렇게 10여 년이 됐습니다.”

현오 스님은 놀변이지만 구수하게 얘기했다. 지난 얘기를 하는 것도 마음을 내려놓은 방하착(放下着)하는 수행인지 스님은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다. 과거의 이런저런 일들은 굳이 담아두고 살 필요가 없다는 그런 표정이었다.

마당가에 잡초 있으면 “울력하는 시늉만 냈다 정진도 그렇게 할거다” 매사를 정진 삼으라 훈계

그러나 은사인 혜암 스님이 던진 가르침들은 지금도 중노릇하는 데 자신을 긴장시켜주고 또 한편으로는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스님께서 저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별명도 지어주었습니까.”

“다른 시자들한테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하고 있는 제 옆을 지나시다가 ‘숟가락 같은 놈’이라 하더라구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숟가락처럼 왔다갔다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혜암 스님은 생각 없이 사는 스님을 볼 때마다 야단을 쳤다고 한다. 현오 스님이 가스 사고를 당하고 난 뒤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에도 위로는커녕 ‘넌 모든 걸 건성으로 하는 놈이다!’ 고 야단을 쳤다는 것이다. 대연 거사는 문득 언젠가 보았던 <법구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어리석은 이는 한 평생을 두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길지라도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우리 스님을 모시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지요. 100여 명의 대중이 사는 원당암에서 원주를 살아 보니 틀림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소한 일을 잘 챙기는 사람이 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큰스님께서 늘 저에게 말씀했지요. 사소한 일을 잘 챙기라고요. 그래야 큰일이 닥치더라도 불퇴전의 마음으로 큰일을 잘 챙긴다고요.”

실제로 혜암 스님은 원당암에 들어온 행자와 수행자들에게 비질과 걸레질, 문종이 바르기 등등 작은 일들을 스스로 시범을 보이며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했다. 문종이를 바를 때는 종이를 크게 자르지 말고 구멍 난 크기만큼 사각으로 오려서 보기 좋게 바르라고 했고, 비질은 한 번에 하지 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티끌을 모아 쓰레받기에 쓸어 담으라고 시켰다. 그런가 하면 걸레질도 앞으로 하면 밟게 되니까 뒤로 물러나면서 닦으라고 했고, 마당의 풀을 뽑을 때도 게으름이나 수마를 물리치듯이 뿌리까지 뽑으라고 시켰다. 해인사 선방 마당에 박힌 바위 언저리에서 잡초가 나자 ‘중들이 울력하는 시늉만 냈다. 그 놈은 아마 정진도 그럴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그림 · 최문정

“사소한 일 잘 챙기는 사람이 도인” 시범 보이며 가르침 주던 혜암 스님

대연 거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님 얘기를 듣다 보니 깜박 했습니다.”

“아침인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원각 스님께서 차를 한 잔 마시자고 부르셨습니다.”

“염화실에 계시니 어서 가보세요.”

현오 스님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핸드폰을 꺼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했다. 대연 거사는 계단을 내려서다가 비구름이 걷힌 해인사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부챗살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원당암 당우들도 맑은 햇살로 헹구어낸 듯 산뜻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대연 거사는 달마선원을 지나 봉긋한 운봉교에서 잠시 멈추어 안내판의 글을 읽었다. 하룻밤 보내고 나니 원당암과 왠지 더 정이 든 듯했는데, 안내문은 원당암을 더욱 가깝게 해주고 있었다.

‘원당암은 해인사 1번지 같은 상징적 암자다. 신라 애장왕은 부처님 가호로 공주의 병을 낫게 되자 순응, 이정 두 대사의 발원에 따라 국력으로 해인사를 창건하게 된다. 당시 국왕은 서라벌을 떠나 가야산에 들어와 불사를 독려하면서 국정을 보았으므로 원당암을 수도 서라벌 북쪽에 위치한 궁궐이란 뜻에서 북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창건 당시에는 이곳의 산 모양이 봉황이 날아가는 모습을 한 비봉산 기슭에 있다 하여 봉서사라 이름하였고, 진성여왕 시대부터 본격적인 신라 왕실의 원당이 돼 왔기 때문에 원당암이라 부른 것이다.

비상하는 봉황의 모습을 하여 가야산의 웅묘한 정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야산 최고의 전망대가 바로 이 운봉교이다. 이 운봉교에서 왼쪽으로 보면 가야산 정상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바로 눈앞에는 해인사 큰법당과 팔만대장경을 모신 장경각 등 해인사 전경이 한눈에 다 들어온다. 원당암에서 보면 풍수에서 말하는 좌청룡 우백호, 그리고 안산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진 셈이다.’

누군가가 공을 들여 쓴 글이었다. 한 문장에서 같은 단어를 중복한다거나 어색한 문장과 어휘가 한두 개 있지만 담백한 서너 단락의 문단 속에 원당암의 역사와 풍수를 적절하게 다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정성이 가슴에 전해졌으므로 대연 거사는 자신이 지금 상서로운 원당암에 와 있다고 느꼈다.

<계속>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16>

중생 근기따라 법문 무량무변

(722호 이어서) 이때 장자는 돌연 날을 잡아 잔치를 크게 차리고, 대소일가와 원근친척을 모두 청하라 한다. 날이 되자 장자는 자리에 올라 궁자를 곁에 불러들이고 말하기를 나의 모든 가장집물(家庄什物)과 토지전답(土地田畓)과 금은보화(金銀寶貨)와 노비권속(奴婢眷屬)은 오늘 이 시각부터 이 아이의 것이요, 나는 지난날 아무 곳에 살았었는데 깜짝 사이에 이 아이를 잃고 찾아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르쳐 이 살림을 맡을 만치 되었기에 물려주려는 것이요 한다.

천태는 이를 반야부에서 가릴 것과 버릴 것이 있던 공부에서 몽땅 넘겨주는 회삼귀일(會三歸一)의 법을 보여주시는 비유로서 다섯째 전부가업(傳付家業) 법화열반시(法華涅槃時)라 했다.

가 하겠지만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그날의 법문이란 말이다. 중생들의 근기(根機)도 무량무변하고 부처님의 법도 무량무변하시니 가급적이면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맞는 법을 설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이 때와 장소를 바꿔가면서 여러 차례 열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듯 근기가 비슷한 사람이 모였으면 모인 이들이 모두 수준이 꼭 같은가. 그렇지는 않다. 그날의 법과 연이 되어서 왔더라도 역시 수준의 차이가 다시 있어 당일 청법대중(聽法大衆)의 대표로서 나서서 부처님께 삼전건성(三展虔誠), 즉 대중에서 일어나고, 합장(合掌)공경(恭敬)하고 간곡히 부처님께 여쭙는[而白佛言]등 세 가지

수준 엇비슷한 사람에게 '맞춤 설법' 원칙삼아
세가지 의식 통해 법문 청하면 단계적 설명

대기설(1)

우리들도 누구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려면 들어 줄 사람이 있어야 판이 벌어지고, 기왕 판을 벌리려면 총명한 사람이었으면 더욱 좋듯이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들어드릴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모인 사람들이 반드시 먼저 청해야 입을 여셨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법을 청했을까.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청해서 듣던 사람들, 즉 청중(聽衆)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을 대기(對機)라 하였으니, 대기란 상대할 대[對]와 기틀 기[機], 두 글자를 썼다. 대(對)자는 상대가 된다는 뜻으로서 그 날 설하시는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상대란 뜻이요, 기(機)자는 재목, 또는 그릇이란 뜻으로서 경전(經典)에서는 이를 근기(根機)라 부르는데 대체로 또래 수준 등의 의미를 가진 낱말이다. 어쨌든 그날 설하시는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알맞는 그릇들이라는 뜻이다.

이렇듯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근기가 미리 정해진 것이라면 나머지 백성들은 부처님과 아무런 인연도 없다는 말인의식을 통해 부처님께서 입을 여시게 하는 당기(當機), 또는 상수(上首)가 있는가 하면 섭적기의(躡跡起疑)하는 발기자(發起者)대해 답변으로 상당수의 상근기(上根機)는 득처(得處)가 생기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이가 '그렇다면'이란 전제하에 전에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혹은 그 다음은 어찌 되는 것인가 등등의 부수적(附隨的)인 의문(疑問)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질문을 펴는 이를 발기자, 또는 발기인(發起人)이라 부른다.

이렇듯, 첫째, 둘째, 셋째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면서 마침내 경말(經末)에 이르러서는 모였던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천 룡 야차 건달바 귀신 등이 득미증유(得未曾有)하야 환희용약하면서 물러갔다하니, 결국은 한 회상에 모인 대중은 끝내 깨달음을 얻고 물러가게 되었음으로 중간에 선후의 차이는 있으나 일단 다 해당근기라 하여 당기라 부른다. 하기야, 불교의 궁극적인 논리는 '중생은 모두가 본래 부처다' 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천태(天台)의 오시교(五時敎)와 현수(賢首)의 오교(五敎)라는 교판(敎判)이 있다고 했다.

봉선사 조실

괴로움 벗어나려면 '공식'을 알라

훤일스님의 신행 지침서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식이 있을까? 관점에 따라 견해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있다는 쪽으로 기울 것이다. 선과 악을 축으로 하는 이분법적 공식과 행복과 불행을 축으로 하는 공식 등을 내세울 것이다. 그러나 공식은 공식일 뿐이다.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 세상살이가 아닌가.

인터넷 카페 '부처님말씀 바로알기'를 운영하고 있는 훤일 스님은 깨달음에 공식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중도연기법이 그 공식의 실체다. 중도나 연기법은 선악이라든가 행복과 불행과 같은 대립적 개념의 공식이 아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혹은 중중무진으로 얽혀 있는 중생의 번민들은 모두 연기법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연기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된다. 깨달음의 공식이란 말이다.

훤일 스님은 책에서 아홉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삼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신은 존재 하는가? 자아란 존재하는가? 등등. 이들에 대한 대답은 철저하게 부처님의 초기법문(니까야)을 통해 구하고 있다. 그 핵심이 중도연기의 가르침이다.

"깨달음을 얻고 나면 모든 것에 무불통지하여 세상을 벗어나 불세계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허망한 갈망이 아니라 단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을 없애 버리고 자아취착 없이 현상을 바로 통찰하여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일 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훤일 스님이 제시하는 깨달음의 공식은 허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챙겨야 한다. 그간 학술적인 측면에서 혹은 교리연구의 측면에서 접근했던 중도연기에 대한 시각과 차별되는 훤일 스님의 견해가 책의 무게감을 더한다. 설악산 신흥사 회주 오현 스님과 前 해인사 강주 수진 스님도 '추천의 말'을 통해 이 차별된 견해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
김종수 감수|민족사 펴냄|1만2000원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누구나 하는 고민 누구나 풀어주진 못한다

법상 스님의 인터넷 상담집 '기도하면 누가 들어 주나요'



-저는 30대 중반 회사원으로 이제 곧 다니던 회사를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중략)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 후 학원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중략) 불안한 이 마음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상황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이렇게 대긍정으로, 전체적인 수용과 받아들임으로, 또 치우치지 않은 지켜봄의 수행으로 삶을 새롭게 보면 내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겁니다. (중략) 지금 법우님에게 중요한 것은 손에 딱 잡히는 답변, 즉 취직 자리를 알아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자리를 바꿈으로써 현실이 바뀌질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고민을 털어 놓고 시원한 답을 듣는 길은 많지 않다. 인터넷 생활수행도량 '목탁소리(www.moktaksori.org)'를 통해 접속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법상 스님이 상담 사례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1999년부터 불교와 수행 명상과 행복에 관한 글을 책과 인터넷 등으로 발표하며 '참살이'의 길을 안내 해온 법상 스님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실토한다. 그러나 스님이 배운다는 것은 곧바로 고민을 털어 놓는 대중들의 가슴으로 따뜻한 빛이 되어 회향된다.

책에 실린 상담 사례들에는 깊은 명상의 세계에서 되비쳐지는 삶의 가치가 담겨 있다. 그것이 법상 스님의 상담 노하우다. 인터넷 사이트라는 쌍방향 소통의 도량에서 닦으며 사는 삶의 튼튼한 기본기를 전해 주는 것이다. 책의 구성이 '삶' '마음' '불교' '수행' 등의 장으로 나눠진 것에서 어느 특정한 사람과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법상 스님이 소통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결국 독자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기도하면 누가 들어 주나요|이솔출판사|1만원

임연태 기자

깊고 넓은 '화엄'을 마셔봐



화엄경약찬게 법문(1)
우학스님 지음|좋은인연 펴냄
1만원

<화엄경>은 방대하다. 10조9만5천48자로 이루어진 경전이라고 한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뒤 첫 법문이기도 하다. 이 방대한 법문을 7자로 된 110구로 축약한 것이 '화엄경약찬게'다. 용수보살이 지었다는 설과 그의 감수아래 지어진 것이란 설이 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를 통해 포교의 신기원을 이룬 우학 스님이 이 110구절의 약찬게를 풀어냈다. 첫 번째 책에는 '대방광불화엄경' 첫 구절에서 '해인삼매세력고' 열번째 구절까지 해설하고 있다. 물론 한 구절 한 구절 뜻만 풀이한 것이 아니다. 불교의 다양한 사상과 교리들을 두루 인용하며 '설법의 화엄'을 이루고 있다.

쉬운 언어와 직설화법이라는 우학 스님 특유의 화술이 책에 그대로 용해되어 있어 글로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자상한 법문을 듣는 기분이다. 우학 스님도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것은 큰 공덕이지만, 뜻을 제대로 알고 읽어야 한다"며 "어려운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쉬운말로 풀어 쓰고 있으니 잘 헤아려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공덕 짓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책의 말미에는 '화엄경약찬게' 전문을 실었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2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정토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인과경	현담	선
5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6	부처를 쏴라	현각	김영사
7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8	광명진언기도법	일타,김현준	효림
9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10	춘성	김광식	새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초판 발행 이후 12년 만에 개정판 발행!!

현진 스님의 두 번째 출가



글·현진 스님
신국판 / 280면 / 정가 10,000원

12년 전에 출판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현진 스님의 수행 에세이 〈두 번째 출가〉는 초판의 내용을 조금 첨삭하고 사진을 바꾸는 등 멋스러움을 가미하여 개정판을 내놓았다. 현진 스님은 그야말로 '글꾼'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을 만들기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 글을 쓰다 보니 책으로 엮이게 되고 이러한 책을 읽는 이들은 잠시의 멈춤도 없이 한숨에 다 읽어버리는 재미를 느끼게 되니 진정한 이 시대의 글꾼이 아니겠는가?

현진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과 송광사 율원에서 공부하였으며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을 졸업했다.
지금은 청주 관음사에 머물면서 서원대학교 강사로 출강하고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삭발하는 날〉〈잼있는 스님이야기〉〈산문, 치인리 십번지〉 등이 있다.

수필가 문윤정이 만난 우리시대의 53선지식의 이야기

선재야 선재야



글·사진 문윤정
신국판 / 344면
정가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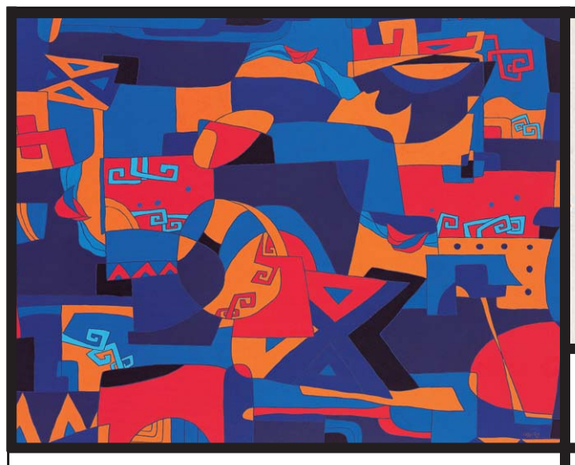
우리 시대의 53선지식을 만나다

수필가 문윤정 씨가 2006년부터 직접 찾아다니며 인터뷰하고 사진을 찍은 53명의 우리시대의 선지식들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이 책은 저자가 스스로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가 되어 찾아다닌 우리시대의 선지식들에 배대(配對)하여 행화(行化)와 가르침의 의미를 결부시킨 점이 돋보이는데 작가는 서문에서 '선지식이란 스승 또는 도반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생명가치를 올곧게 실현하는 사람들이며, 그 현실을 통해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윤정
동국대학교를 졸업하였고, 98년 '수필공원(현 에세이 문학)'을 통해 등단하였다.
지금은 〈아름다운 인연〉 객원 기자이며, 〈현대불교신문〉 논설위원,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당신의 아침을 위하여〉, 〈잣나무는 언제 부처가 되나〉, 〈신들의 땅에서 찾은 행복 한 줌〉, 〈마음의 눈〉 등이 있다.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736호 전화. (02) 2198-5151 전송(02) 2198-5153

(02) 2198-5151



신작 '禪으로부터'. 162×130cm, 캔퍼스, 석채 혼합재료.



법관 스님의 선화.



'석난'. 91×65.5cm.

법관 스님 '禪으로부터'展

4월 15~21일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최

"사람만상이 다 그림인데 무엇을 또 그릴 것이 있겠는가. 고인(古人)의 먹빛은 검되 맑고 희어 보이는데 내 그림은 번뇌만 흘어진듯 하네. 언제나 군더더기 다 떨어져 한 붓을 들어 만 사람의 마음을 적실 수 있으려나."

불교계에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근 화단에서 독창적인 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법관 스님(강릉 능가사 주지)의 시다. '능히 모든 세상 일을 다 그려내는(能畵諸世間)' 본래면목을 찾는 스님의 네 번째 전시회 '선(禪)으로부터'展이 4월 15~21일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1층에서 열린다.

무문관을 비롯한 토굴 참선을 해 온 수좌 출신의 법관 스님은 독학으로 선화(禪畵)를 그려왔지만, 그림에 대한 안목과 깊이는 화단의 대가들도 놀랄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안거 철에 선인들의 고서화(古書畵)와 현대 작품들을 다양하게 섭렵한데다 부단한 수행의 정신적 결과물들을 화면에 쏟아내다 보니 전시회를 열 때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강릉 능가사 내에 아담하게 자리한 고암갤러리 다실에서 만난 스님은 무뚝뚝한 표정 가운데서도 자비심이 넘쳐나는 전형적인 수좌의 모습이었다.

"좌선할 땐 열심히 좌선하고, 예불하거나 일할 땐 정성을 다하고, 그림 그릴 때는 그림에 몰입할 뿐입니다."

스님은 참선 하는 틈틈이 그림을 그릴 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지만, 어떤 목적을 갖고 그림을 그리지는 않는다.

그림에도 집착하지 않고 언제든 붓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걸림없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밝힌 스님은 그간 수묵(水墨)에 의한 선화(禪畵) 등을 그려왔으나, 최근에는 원색이 어우러지는 조형작업으로 선회했다. 2004년 '빈손으로 왔다 가네' 선화전, 2006년 '심상 심류' 전, 2007년 '비산 비수' 전을 통해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는 무주(無住)의 화풍을 이어오고 있다. 선화에서 채색 산수화로, 이어 구성적 경향의 작업으로 점차 이행해간 흔적이 뚜렷하다.

특히 이번 '禪으로 부터' 전에서는 난색과 한색의 보색대비에 의한 구성적 경향의 추상화 40여 점이 정화된 붉은색의 안온한 화엄세계를 연출한다.

능가사 갤러리에서 스님의 그림을 미리 감상한 윤진섭 미술평론가(호남대 교수)는 "단색조의 화면은 순도높은 색가(色價)로 이루어져 밝고 청정해 보인다. 붉은색이되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지 않는 것은 색의 순도에서 오는 것 같다. 사물의 외형적 모습에서 비롯되는 이미지를 제거하고 본질에 육박해 들어가려는 의지는 단순한 형태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미술세계> 김상철 주간은 스님의 이번 작품에 대해 "반복되는 듯 보이지만 중첩되지 않는 각각의 다양한 색과 면들로 구성된 화면은 즉발적이고 순간적인 감흥에 의해 표출되어 나오는 형상들이란 점에서 불교의 '즉심(卽心)' 과도 같다"고 풀이했다.

오랫동안 스님의 구도작업을 지켜본 이병인 부산대 교수는 "정형화된 구도 없이 조화로운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순간순간의 명료한 의식과 행위의 단순한 반복만으로 이뤄진 글과 그림은 맑고 푸른 동해바다의 시원함과 대관령 금강송 같은 청정함이 가득 서려있는 선화"라고 평했다. (033)643-4537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캄보디아 궁중불교무용 '압사라' 국내 공연

도우 초청…4월 15일부터 석달간 희망 사찰 · 단체서

앙코르와트 사원의 벽을 수놓은 1500여 개의 '천상의 무희' 조각상, 신과 왕에게만 바쳐졌다는 캄보디아 궁중불교무용인 '압사라(Apsara)'. 8번째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압사라 춤을 국내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도우(회장 남광일) 초청으로 방한하는 캄보디아 왕립무용단은 4월 15일~7월 15일 희망 사찰 또는 단체에서 '천년의 꿈, 압사라의 부활'을 공연할 계획이다.

1000여 년 동안 캄보디아 왕궁의 궁중무용 중에서도 가장 우아한 몸짓과 정교한 복장으로 추는 압사라 무용은 크메르왕국의 역사를 간직한 전통무용의 정수이다. 의미가 다른 2000여 춤동작을 배우기 위해 무희들은 다섯 살에 왕궁에 들어가 20년 동안 뼈를 깍는 노력으로 축생계, 인간계, 신의 세계를 상징하는 무용을 수련할 정도로 어려운 춤이다.

남광일 회장은 "이번 초청 공연은 앙코르와트와 압사라 무용과 같은 문화유산을 잃을 뻔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예술로 승화시킨 캄보디아의 예를 통해, 우리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011)1714-8851 김성우 기자



사또우 다카시가 바라 본 한국 문화재

3월25일~4월5일 김영섭사진화랑서 사진전

한국 문화재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던 일본인 사진가 사또우 다카시(佐藤隆司)의 사진전이 3월25일~4월 8일 인사동 김영섭사진화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 작품은 작가가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의 곳곳을 발로 누비며 촬영한 문화재 사진 약 1200점 중에서 선택된 것이다.

작가의 한국 문화재 순례는 1968년 여행사를 운영하는 친구의 권유로 따라 나선 관광 여행에서 비롯됐다. 첫 여행지인 경주에서 석굴암의 불상을 마주할 때 받은 깊은 감명은 하나의 충격이었다. 이후 작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비롯한 수많은 서적과 자료를 섭렵하면서 한국 문화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자신만의 안목을 갖춰갔다.

작가는 1975년, 지난 8년간 12차례 한국을 방문해 한국 문화재와 그 주변 풍경을 촬영한 사진들을 모아 5월 8~20일 미도파 백화점 4층 장미홀에서 '한국의 불상' 사진전을 갖기도 했다. 게다가 <海東의 古寺 探想>이라는 저서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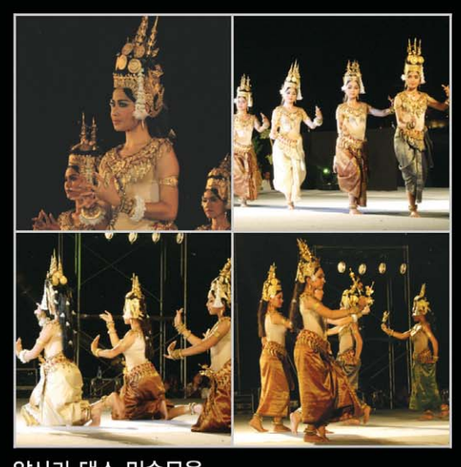
최근 작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사진 자료를 이태한 교수(여주대학 사진과)에게 기증해 변함없는 문화재 사랑을 보여줬다. (02)733-6331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02-2004-8200

세계인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캄보디아 왕실(정부지원)
압사라(Apsara)무용단
초청공연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도우의 공연 연혁
• 2006년 쓰나미 피해 돕기 스리랑카 국립무용단 공연
• 2007년 부처님의 성지 돕기 위한 네팔국립무용단 공연
• 2008년 중국지진피해돕기 중국불교연합무용단 공연

• 이 공연을 초청 하고자 하는 사찰, 불교연합회, 단체기관 공연이 가능합니다.



압사라 댄스 민속무용
12가지의 무용(공연 총 소요시간_90분)

기간_2009년 4월 15일~7월 15일(90일간)
초청_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도우
(www.108.or.kr)
후원_캄보디아(정부/대사관/문화원)
불교문화상조
'환경 • 생명 • 문화'공동체/도우
휴럼생활건강(KT&G)
담당자_011-581-8851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20 인사동 사모곡6

천강의 단골과 '깍두기 사모곡'

인사동의 '천강에 비친 달'(이하 천강)을 알게 된지도 십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간다. 한 여성지에서 인사동 맛집을 소개하는 기사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스님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됐다. 천강은 운동권과 시민단체 사람들의 아지트로 통하던 곳이다. 한편 연극, 영화인을 비롯해 작가, 춤꾼 등 각계각층의 문화인들이 즐겨 찾기도하고, 일본관광객들에게도 은근히 소문난 곳이었다. 천강의 단골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퍼런 눈썹문신이 도드라진 껌 파는 아줌마와 변죽 좋은 걸뱅이 아저씨와, 지긋한 눈웃음을 치며 기타를 메고 나타나 만인이 원치도 않는 연주를 기어코 들려주고 가는 아저씨도 있었다. 자정에 이르는 시각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떡을 파는 아저씨도 있었는데, 나는 그 아저씨의 팬이기도 했다. 삼월 춘삼월에도 털모자를 얹어 쓰고, 그 옛날 추억의 아이스케이크 통을 메고 찹쌀떡과 망개떡을 팔러 다니는 아저씨의 인사법은 '심하게' 공손해 절로 고개가 함께 숙여졌다.



인사동 '천강에 비친달' 의 보약같은 밑반찬 깍두기.

인사동에 살던 시절, 그 아저씨는 나의 이웃사촌이기도 했다. 늘 비슷한 시간대면 길에서 울려 퍼지던 떡 파는 소리와 행인들에게 건네는 심히 공손한 인사멘트는 청아한 풍경소리처럼 5층 사무실 건물 내 방안으로까지 또렷이 흘러들었다. 한편 아저씨는 천강의 소식통이기도 했다. 경기가 불황을 타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장사가 예전만 못하니, 걱정이 앞선 언니들은 아저씨를 통해 다른 집의 손님현황을 묻기도 했다. 여하튼 천강의 가장 큰 매력은 주인과 손님, 잡상인과 홀리스의 구분이 딱히 없는 단골손님들에게 있었다. 평소 주인언니의 말 처럼 천강은 모든 이들의 가게와 다름없다.

그러한 천강을 참새가 방앗간 들락이듯 하던 시절에, 내겐 일용할 양식이자 보약 같은 식량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깍두기'다. 모든 손님들상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천강의 밑반찬, 깍두기를 빼놓고는 그 시절을 말할 수도 없다. 뜨끈한 밥 한 공기에 깍두기와 국물을 듬뿍 넣고 말아먹는 새콤달콤한 맛의 진수는 위장을 비어낼 만큼 개운함의 극치를 자랑했다. 해장에도 그만한 것이 없어 술병에 지친 위장도 그 한 공기면 바로 기운을 차리곤 했으니, 모르면 몰라도 보약보다 더한 보약이었을 테다. 언니들의 십 수 년 손맛을 따를 자신이 없어 몇 번을 배우려다 지레 포기하곤 했는데, 말이 나온 김에 요령이라도 확실히 알아둬야겠다 싶어 천강 패밀리의 오랜 일원이자, 깍두기를 가장 주로 담가온 주방의 선경언니에게 그 비법을 물었다.

"천강의 깍두기는 주로 술안주라서 일반 깍두기처럼 맛이 진하지 않으면서 시원해야 해. 무도 자잘하게 썰고, 설탕을 넣으면 끈적거리는 맛이 나니까 옛날 어른들이 설탕 대용으로 쓰던 뉴슈가 같은 단 맛 내는 게 있거든. 무를 소금에 절일 때 그걸 조금 넣는 거야. 그래서 한 7~8시간 절여뒀다가, 생긴 국물은 3분의2 정도 따라버리고 고춧가루랑 마늘, 양파 좀 갈아 넣고 까나리액젓좀 넣고 버무리는 거야."

선경언니가 추가로 일러준 비결은 양을 많이 담가 큰 통에 넣고 함께 숙성시켜야 제 맛이 난다는 것이다. 한때는 천강의 깍두기를 하루라도 거르면 그야말로 입에 가시가 돋칠 정도였으니, 행여나 지방출장으로 며칠 서울을 떠나있기라도 하면 짓궂은 언니들은 문자로 깍두기의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 그토록 유난스럽던 '깍두기 사모곡'도 지난 이야기가 됐지만, 예나 지금이나 손님들 상 귀퉁이마다 자리 잡고 있는 그 모습이 반가울 따름이다.

그런데 최근에 천강에 들렀더니, 나의 바통을 이을 깍두기마니아가 새로 등장한 듯하다. 행색을 보아하니 홀리스인데, 잠시 반가운 안부인사를 주고받던 주인언니는 주방언니에게 깍두기를 한보따리 싸달랜다. 이내 아저씨는 국물을 많이 넣어달라고 특별주문까지 한다. 아저씨의 깍두기취향도 나와 비슷한 모양이다. 주인언니의 살가운 퉁이 함께 담겨진 봉지를 건네받은 아저씨는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다. 잠시 후 천강의 사립문이 다시 활짝 열리면서 "안녕하세요~"라는 낯익은 소리가 들려온다. 오랜만에 해후한 망개떡 아저씨의 환한 얼굴이 예전 그대로다. 천강의 문지방은 이렇듯 개성 넘치는 단골들의 발걸음으로 여전히 닳고 닳는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26 컬러테라피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칼라로 탐구하는 자기여행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

형형색색으로 보이는 색깔들은 참으로 신기해 우리의 기분을 즐겁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다운시킬 수도 있으며, 나의 무의식을 알아 볼 수 있는 통로로도 사용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병을 치유시킬 수도 악화 시킬 수도 있다.

내가 누구인지는 자기 자신의 진정한 칼라, 소울칼라에 모두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의 진정한 의도와 관심사, 사랑, 과거 · 미래 등 이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하는 빛깔로 알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내면으로 진지한 여행을 떠나는 일종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칼라테라피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컬러테라피의 방법

1. 선천적 오행분석을 통한 맞춤칼라 제시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내게 필요한 빛깔과 원하지 않는 색이 존재하게 돼있다. 정확한 상담과 분석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컬러로 보강하고 가감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 준다.

2. 오라소마 상담

오라(aura)는 빛과 호흡 등을 상징하며, 소마(soma)는 몸, 바디와 살아있는 에너지를 뜻한다. 그러므로 오라소마(aura soma)는 '빛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빛깔들로 이루어진 수많은 컬러 병 중에서 자신이 끌리는 병을 선택해 자신의 과거모습, 단점, 현재모습, 미래에 대해 상담하며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나의 삶속에 깃듯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계획하며 치유에 한 발 더 앞으로 다가간다.

3. 호흡을 이용한 칼라 명상법

일단 환자의 소울칼라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환자가 겪고 있는 부정적 정서 상태나 육체 상태에 따라 힐링컬러를 정하도록 한다. 힐링컬러는 나에게 온화함과 편안함, 안정됨, 즐거움, 기쁨과 건강함 등을 선사해 따뜻하고 가벼운 정서 상태와 회복상태를 만들어준다.

#호흡을 이용한 컬러 명상법(color meditation)

일단 편안하게 심호흡을 하며 안정적인 심신의 상태를 만든다. 호흡이 안정되며, 리듬이 만들어지고 집중이 되면 마음은 정화되고 있는 중이다.

다음의 여러 가지 색들 중에 본인에게 필요한 색을 선택해 당신의 컬러로 정한다. 색은 여러 가지 기능과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가장 필요한 색을 고르도록 한다.

빨강색: 생기, 힘, 추진력, 의지력, 소유욕, 열정, 능력, 재물, 번창, 자손생산
노랑색: 온화함, 순수성, 천진난만, 사고력, 인기 만점
주황색: 밝고 활발함, 싹싹함, 생기발랄, 합리성, 반짝이는 아이디어
녹 색: 안정된 공간, 이동, 변화계획, 신중, 이성적 사고, 합리성.
파 랑: 평온함, 평화, 편안한 잠, 이지적, 조직활동, 커뮤니케이션
보 라: 아름다움, 위엄, 자존감, 신비성, 매력

예를들어 우울하거나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레드컬러를 선택해 명상해보도록 한다. 호흡을 들이쉴 때 그 색이 양 발끝, 양 팔끝, 복부, 가슴 등 온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 가득 채운다고 상상한다. 그렇게 퍼진 그 컬러들은 따뜻한 빛을 형성해 나의 외관을 보호막으로 막아준다고 상상한다. 생기 있고 열정적인 레드 컬러가 나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우울함과 외로움을 모두 녹여서 없앤다고 생각하면서 대신 그 자리에 능력과 번창과 힘을 상징하는 레드의 에너지가 가득차서 나를 활기 있고 열정적으로 만들어 준다고 명상하는 방법이다. (02)576 -7575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 이야기 22



매향은 원래 미륵불에 올리려던 향 공양

필자도 심마니들과 몇 달 동안 밀림 속에서 자연산 원종 침향을 찾고자 숱한 늪지와 독충들을 헤치고 다니던 때가 있다. 또 조난을 당해 먹을거리가 다 떨어져서 나이(NGAI)라고 하는 생강 비슷한 것을 캐먹어 가면서 고생을 하다가 간신히 구조된 적도 있다.

어렵고 고달프게 침향을 찾아 헤매면서 얻은 결론은 침향은 결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사실 필자가 몇 달을 밀림 속에서 고생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당시에는 좋은 침향은 구경도 못해본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행복한 것은 어렵게 구해질수록 침향은 복장물이라는 인연의 이름으로 부처님께 더욱 장엄하리라는 그 공양의 바람이 늘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직접 캐보지 못했던 그 고귀한 침향은 그들 심마니들에 의해 저 깊은 곳에서 몇 백 년 이상씩 숙성을 끝내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과 그 인연이 될 곳을 아는 것처럼 찾아와 향을 발하니 이 얼마나 오묘한 섭리인가. 아시다시피 복장의식은 점안식과 연결되는 불가 최고의 행사이다. 그러한 점안식을 세 번 볼 수 있는 인연이 있다면 극락에 간다고 불가에는 전해온다. 그러한 복장과 점안의 식을, 참된 마음의 공양으로 정성 들여 준비함으로 내 자신이 큰 복을 짓는 외에도, 침향의 그 기운이 우리 부처님의 몸속을 통해 다시 또 천 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후 후손에게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믿음 또한 행복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에 전하는 침향 이야기 중에 매향(埋香)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 매향은 향도(香徒)와 깊은 연관이 있고 향도는 불자를 일컫는 말에서 기원된 것이다.

매향이 생겨난 근본은 이렇다. 원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삼세불(三世佛) 중에서 현세불인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가 지난 후 내세불인 미륵불의 세상이 오면서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미륵하생의 신앙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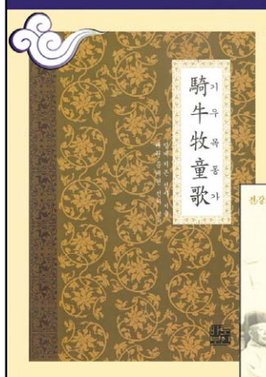
미륵불께서는 지금 도솔천궁에 머무르면서 훗날 이 땅의 중생을 제도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미륵불이 세상에 오시는 날 용화회상에서 세 번의 법회를 여신다 하셨고 그 법회를 줄여서 용화삼회(龍華三會)라 일컫는 것이다.

우리의 구세주인 미륵부처님이 오시고 법회가 열리는 그 용화삼회에 불가 최고 공양물인 향을 공양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정성밖에 없었던 우리 민초들은 참나무나 향나무 등을 갯벌이나 땅속 깊이 묻어 둠으로 그것이 침향이 되길 빌었다. 그래서 미륵불이 오실 때 그 침향으로 최상의 공양을 올리고자 했던 바람에서 시작된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공양물인 침향 공양은 일반 민초들에겐 꿈도 꾸지 못하던 일이었기에 매향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참나무나 향나무를 아무리 오래 묻어 놓는다 하여도 결코 침향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02)3663-6777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기우목동가 신간! 값 10,000원
그 뜻이 심오하여 번역하기 어려웠던 말계 지은 선사의 기우목동가!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바른 뜻이 드러나도록 번역하고, 간결한 결문과 주옥같은 선송으로 다시 보였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값 15,000원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대인불안 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맞춤식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정)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又佛 김철회 박사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대한웅변 중앙회 회장 역임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 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토불이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 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염불,불공해드립니다
영남 전통 범음범패 소리로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각종 사찰행사
016-238-6215
선 연 화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 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중창사찰주지,공동운영자초빙
큰법당,봉안당,극락전 500평 대형사찰로 능력있는 주지스님을 초빙합니다
● 공양주 2명 ●
위치 : 경주시 산내면 건천IC15분,언양IC30분거리
문의 010-3300-5737
010-2203-0922

명 리 보 감
최고의 사주CD
● 정확한 용신
● 정확한 만세력
www.goodcycle.com
네이버에서 "명리보감"으로 검색.
(02) 3472-5933
명리보감 역학연구소

소원성취기도
대학입시, 사업성공, 스트레스 우울증,변비,각종 집안 우환,아들딸 액운소멸
※가정방문기도와 상담도 합니다※
봉사활동 및 포교활동 하실 분 노후생활 회향을 잘 하실 분
지장경 테이프를 드립니다. 상담환영
010-7797-4355/016-787-3977
꿈바위 불교교육원
010-6789-5008

출가(여女)수행자 구함
일년 공부 후 사찰을 책임 운영 할 수 있는 성실한 여(女)출가를 원하는 수행자 구함
▷부산근교
010-2599-6020

역 학 개 인 지 도
초급에서 최상급까지 가능 천안, 대전까지 가능
다곡, 유재숙(백두선생)
011-685-6566
02)6217-9171
이기론. 문점. 목적점 「사주박사」 인터넷 쳐보세요!

우주大광명 천기(氣)도법
• 병원치료도 잘 안되고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분
• 가정불화, 질병, 우환 등 하는일이 잘 안되는분
• 조상천도가 잘 안되거나 천상으로 보내고 싶은분
• 빙의, 영적장애, 정신질환, 유전성질병, 불임여성
• 기도수행, 불법공부를 많이 하시는분
※참나를 찾아 잘살고 사후천상세계 갈수있음.
031)321-9555 일광사
011-586-6091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제)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빙의,49재,태중영가
알콜중독,우울증,자녀문제 묘터장애,사업부진,장기수양,기도
*SBS 등 TV 다수출현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054)383-8553
011-9585-4908

완벽한 사찰, 주지스님으로써 사찰 책임 관리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함안 가야읍 부근)
010-3846-2070

조계종 노비구승이 평생을 참선 정진하다 상좌인연을 놓쳐 산자수려한 이곳에 평생 운영관리를 이어받고 노승을 시봉하며 배우고 가르침으로 수행할 인연깊은 상좌될 소신있는 본종 비구니 원함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貴 한 인 연
50대 계사생 비구승입니다 도량운영을 믿고 맡겨주실 귀한 인연기다립니다 부족하지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010-2446-2626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60대 초반)
▷ 경남 진해시
055)545-7116
011-577-4705

기도중에 큰신을 받은 비구승입니다 서울이나 근교의 도심에서 불사를 이루고자 합니다 절이나 포교당을 운영하고 계신 스님, 보살님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7462-1513

일할 처사님 (농사 겸 청소) 모십니다
▷팔공산 북지장사
011-535-2763

불사함께하실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충북제천 서원사
010-4543-4580
043)644-4580

처음 시작하는 포교당입니다. 부처님을 모시려고 준비중에 어렵고 힘든시기에 놓였습니다. 부처님도량으로 만드는데 부족함 없도록 부처님,탱화,불단이나 각종 시설들을 불사해주실 소중하고 귀한 인연 꼭 기다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운영하실 스님도 연락주십시오
010-9512-9800

30, 40, 50대 비구니스님 구 합 니 다
▷문의내용은 전화상담 노비구니스님도 연락하십시오
010-9219-7695

서울 도심에 위치한 조계종 사찰입니다 참신한 40~50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591-0108
(사무장)

법당보살님 모십니다(경험자)
▷개원사
053)981-0995
016-400-0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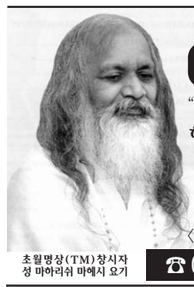
부전스님 모십니다
▷송광사 분원 길상사(창원)
010-5698-8769

서울 북한산 암자 비구,비구니,행자 수행하실 스님 모십니다
011-306-3504

여종무원 구합니다
(서울 관문사)
02)3460-5300

충북 청원군 산기슭 토굴 암자에서 적은 돈으로 내집처럼 함께 수행정진 하실 비구니스님이나 보살님 연락 바랍니다
010-8419-8004

기도 수행정진 하면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종무소 근무 할 불심이 강한 여 직원(PC가능자) 구함 숙식 제공,출퇴근가능
▷경북 군위면
054)383-0407
010-2750-4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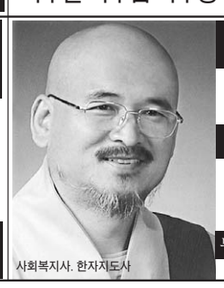
견성 체험 / 쉽다, 빠르다 - 이미 세계 6백만 애용!
초 월 명 상 (TM)
"생각을 초월하라(바라 아제)그것이 깨달음이다" - 반야심경
하버드 의대, 일본 노동성 등 600여 연구 효과입증
잠보다 3배 깊은 휴식 / 삼매경, 자아완성(깨달음)
학업성적, 집중력 증가 / 불안,스트레스, 불면증, 고혈압, 심장병, 뇌졸증, 당뇨, 비만, 우울증 퇴치
〈지도자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www.초월명상.kr
☎ 02)598-3152 지방 010-7443-1296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순례법회안내
부처님 진신사리는 태국 왓빤짜사원리마5세 태국국왕 왕사인 프라풋따지나윙샤무니 큰스님으로부터 사리를 이운받아 전 국민에게 친견시켜 드리려합니다. 종단을 초월 승속을 불문하고 불법을 포교하신다면 임법당, 포교원, 토굴이라도 초대하신다면 즉시 법회를 봉행하여 불사에 큰도움을 드리겠습니다.
(6과를 이운했는데 7과가 되었음. 신비의 진신사리)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010-2414-4984 서봉 합장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역 학 공 부
• 사주초급 : 토요반 모집 (정도형 선생)
• 사주 중급 : 월요반 3월 23일 18:30 개강 (이선종 선생)
• 전문가반 : 매주 금요일 18:30 (이선종 선생)
위 수강생은 관상, 주역 강의(화요일)를 무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 kbs.cc
• 사주 전 과정 45만원부터,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 등
월 간 역 학 교 육 원 1688-1137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최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신청하세요. 여자에 한함
명리학으로 성공 하실분 노크하세요.(여자에 한함)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천도 기도 떡 복용 완치
황토사는 원인모를 통증 · 질병 · 변비 · 아토피 · 비만 등 치료중
경북 안동시 길안면 묵계 2리
문의전화 011-9585-0383

만 행 화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풍산동 99% • 가격 : 15,000원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3월 동시모집
▶ 저렴한 학비, 실속 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오전반, 목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학력 · 연령 제한없이 누구든 입학가능!
● 출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불교대학"을 치세요.
행자 (예비스님) 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초급 중급 연구(격국)
●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 연구 3개월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 주간반 · 야간반(월요일 7시부터 10시 까지) 정규반
●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 / 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 작명학 연구반 : 1월초 개강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합니다.
http://kr.blog.yahoo.com/han103051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전화 02)2243-9598, 018-470-6314

백초귀장술 전수생모집
찾아 온 시간만으로 왜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알 수 있는 래정비법 공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현재에 당면한 일, 매매가 될지 안 될지, 금전이 구해지겠는지, 어려운지, 소송에 이기겠는가 지겠는가, 시험에 붙겠는지 떨어지겠는가, 취업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사업이 잘 되겠는가 그만 둬야하는가
현재 일어날 상황의 길흉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명쾌한 해결점을 답변할 수 있어야 포교가 원활합니다.
그리고 매사가 꼬이고,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나서 방해하는 것인지, 어느 조상천도재를 지내줘야 하는지 등을 한눈에 짚어낼 수 있는 비법은 백초귀장술로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수강등록시 교재무료제공 | 저자 백초스님 직강



1:1 강의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백초율력학당 02)3667-444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48-1 영등포역앞

빙의 (귀신들린병) 퇴마.사주.상담.
헛소리를 하십니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잡것이 보입니까?



*1:1지도
*공부를 하였으나 퇴마 못하신 분 이번에도 퇴마를 할 수 없다면
*당신은 퇴마할 자격이 없습니다.
전화주시면 안내장 발송 하여드립니다.

드디어 우리 활인천역자의 친견 임상 실기用 활용서 CD가 名品으로 최종 완결 되어 절찬리 판매 교환 中 입니다
"특히, 매일 매 시간별로 왜 왔는가? 어떤 정황인가? 어떤 수법이 필요한가? 일이 되는가, 안되는가? 장차 좋은가, 나쁜가?는 물론, 작사귀 · 병귀 · 부정빌미 · 산소탈침범여부와 그 해소 방법 및 각종 수법효과 유무 까지 미리알고 먼저 말할 수 있게 한 것은 육임학의 고등차원의 백미로서, 「적중도」와「효과성」을 동시에 보장시킨 이처럼의 상세한 전문가용 형이상법 책과 CD프로그램은 본「효사 것」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 효사 활인천역집 Ⅰ·Ⅱ·Ⅲ 에 이어 탄생된 이 시대 최고의 우리 活人天役者 用 CD프로그램 "완결판" 입니다.

효사활인천역집 CD완결판
정가 450만원 · 교환 70만원
효사육임산책(09 신간) /육임1년신수비결(09 증보판)/효사육임사주감정법(활용편)/육임대계전서(09 휴대용개정판)/도사에게물어봐(09 보정판)/출산길일길시택일비법(09 개정판)/성명학/월영도/효사숙사주/부적보감/동의보감/육임풍수/육임길흉성부단정법/육임래정비법(09 개정판 좌정 · 휴대용) 등 14종이 종합 장착되어 있고, 위 각 분개(分個) CD프로그램으로도 판매하며, 위 각 활용서, 위 각 CD와, 학습총서「효사육임강론」上 · 下(09 7판본 완결판)을 권해드립니다.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육임래정비법 1권 / 6권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2권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12권 · 육임대계전서 60권 · 효사육임복변집 60권〕에 이은 "최종판" 입니다.

효 사 육 임 산 책
정가 250만원 · 교환 90만원 · 부록 · 부연CD · 1800쪽(분할)
맞춤 권수선택 : 60갑자 60일치 1권 • 60갑자 각 순별6권 • 60갑자 매일 60권 中
맞춤 크기선택 : A5휴대용 • A4 좌정용 • A3 노안용 中
『지난 2000년도 이래 꾸준히 진화시켜온 저 고복자 효사의 위 각 육임활용서 · 학습서 · CD프로그램 들을 2009년 1월 현재 모두 개정 · 개편 · 증보 · 합산 · 교열 · 교정하여 「최종판」과「완결판」으로 재간행하였음을 전국 현인 · 기사 · 이인 제위께 알려 드립니다』
서울 02)833-8683 지역 담당 정용철 |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 부산 051)908-8683 지역 담당 진민경
www.taotemple.net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가로 7cm 70,000원
  규격 가로 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	●위치 : 강릉	●위치 : 부산
●법당 : 28평	●법당 : 20평	●법당,요사 : 150평
●요사 : 29평	●요사 : 50평	●부지 : 135평
●부지 : 167평	●부지 : 150평	●전세 : 11억
●전세 : 1억	●전세 : 9500만원	●위치 : 지리산 토굴
		●법당,요사 : 45평
		●부지 : 85평
		●전세:8500만원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근처
- 대지 총평수 1300평
- 법당 35평,요사채 80평(방10칸), 대종각
- 전통기와양식 내3포 외5포
  낙동강 전망 최고, 국도 근처
- 산세수려(큰 바위산) 계곡접
- 약 30억 불사 ●가액:12억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산신각
- 요사채 20평+10평+10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뒷편 산
- 텃밭 300평, 뉴타운 개발지역
- 양도가 9억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번화한 도심속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동
- 법당 : 45평
- 교통 : 지하철 7호선 남성역 5분거리
- 특징 : 2층 건물의 2층이며 옥상사용(소대,운동시설)
  도심속시장과 대형 할인마트가 옆에 있어
  도심포교의 최적지로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몸만오시면 바로 법회가 가능합니다
  청동,고불,3존불 모셔져있으며 상단, 중단,산신단,홍탱화로 모셔져 있으며 하단 극락도까지 모셔져 있습니다
- 가액 : 도합 4800만원(보증금 1500만원포함)
  월70만원이며 별도 관리비 없음. 꼭 하실분 절충가능합니다

02)597-1120 / 010-5478-1157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오라동
- 부지 : 194평
- 법당 1채, 요사채 1채
- 제주항공에 10분거리,
  신제주 5분거리
  구, 제주 10분거리
- 가액 : 3억 5천만원

018-590-3583

사찰안내 또는 전세

- 충북 단양 구인사 인근 위치좋음
  사찰 양쪽 계곡 물
- 대지 300평
- 법당 40평/삼존불 /산신각
  요사채 54 평/2층 방11개
- 양도가격 2억 5천
  전세가 2,500만원

연락처 011-845-3596

토굴 안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43번지
- 평수 : 대지 82평,건평 약 18평.
- 내용 : 시골집-지붕개량(칼러함석),
  현대식 싱크대 및 욕실,
  아궁이 온돌, 가스 온수,
  -부처님 모셔져 있음.
- 가격 : 3,000만원
  (가격절충 가능)

연락처:011-9235-0720

포교당 안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 평수 : 54평
- 거실,방2칸, 공양간,사무실大, 법당
- 아미타불, 소불(小佛) : 50분
  후불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1500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능)
- 건강문제로 급 양도
- 주방집기 및 가전제품 그대로 인수함
- 몸만 오시면 됨

011-238-3990

부산대사찰급안내

20년된 벚꽃나무 50종있습니다
- 기와법당1동, 기와요사3동
  명부전1동,산신각1동,종각1
  화장실2동,창고 2동,석불,
  약사여래불 15층, 용왕당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절내 주차시설 15대기능
  심야보일러 사용
- 대지 780평, 가액 11억5천만원

011-563-1545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 법당 25평
  요사채 50평, 대지 600평
- 삼존불, 신중탱화
- 가액 : 2억 6천 5백만원
  (절충불가) 융자가능

010-3996-203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57평, 법당18평(독립채),
  요사20평(심야보일러)
- 시내 중심가 큰 길변
- 가액 : 2억(절충가능)
- 스님 사정상(유학) 양도

010-7325-1259
019-375-9051

토 굴 안 내

- 위치 : 하동 악양,지리산자락
- 부지 : 680평
- 가옥 : 신축황토기와집
- 특징 : 마을 외곽 경치 좋음
- 가액 : 2억 2천만원

010-4782-211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천 중동역 3분거리
- 평수 : 약 70평
- 법당, 방3, 공양간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에,월12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7112-1823

포교당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
  아파트 대단지 밀집
- 천수관음탱화 5점
- 5층건물 중 4층 38평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소임관계로 급 안내

011-853-0051

포교원 안 내

- 위치 : 서대문구 홍은동
  유진상가 옆대로변
- 평수 : 22평
- 법당, 스님방1, 후원
- 삼존불, 대형후불탱화 5m
  신중탱화2m, 산신탱화, 인등
  범종(24관) 모두 최상급 작품
- 보증금 1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각종 집기물품포함)

011-274-3853

사 찰 안 내

- 위치 :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230-1
- 대지 360평
- 건물 : 임법당 40평
- 관세음보살계십니다
- ※ 100여가옥이 사는 마을
  맨뒷집(산자락)
  명당이라 첫눈에 반할 겁니다
  직접 와보세요
- 가액 : 7,000만원

011-621-9549

사 찰 안 내

도심포교 관심있으신분 중
10억 이상 불사
가능하신분 전화요망
- 위치 : 울산지역

010-4752-88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366평, 임야 40평
- 요사채 60평, 대웅전 33평
- 삼성각 10평, 실사용평수 약600평
- 7층석탑, 정남향, 조경잘되어있음
- 지하철 및 시내버스
- 가액 : 7억

011-9143-009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5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1-452-83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외동
- 대지 : 322평
- 한옥 법당 1동(25평)
  신축 요사채2층 100평 찜질방
- 빼어난 산자락밑 평지
  석탑 사지 인접(관광지)
- 가액 : 3억3천만원(절충가능)

011-835-6688

토 굴 안 내

- 위치 :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 대지 : 49평
- 방2, 마루, 부엌, 목욕탕,
  걸망풀고 쉴 수 있는 곳

010-2047-8376
010-9247-2488

포교원 안 내

- 위치 : 서울 수유동
  화계사거리 대로변
- 4층 건물 중 3층 약 40평
- 시설A급, 삼존불, 신중,
  산신탱화 등,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월6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2)900-8705

태백산 산좋고 물좋은 대사찰터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유원지 앞
- 연꽃 속에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남향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양쪽 계곡에 물이 흐르고 전기, 수도, 전화, 도로, 수백톤 자연돌과 조경이 잘 돼있음
- 관리지역 : 대지 200평, 건물 40평
- 전 4,410평, 총 4,610평
- 가액 : 7억5천(이민관계로 급안내)

018-223-2101 주인직접

신도시 부근 사찰

- 위치 : 경기 북부 시내중심가에서 도보로 15분거리,노송 우거진 풍치수려한 절
- 평수 : 680평(반영구적 사용가능한 실사용 평수 1000평 이상)
- 건물 : 대웅전20평, 요사채2동 (약100평,30평)창고2동, 시설좋음
- 교통편 : 매우 양호. 절에서 도보 30분거리전철역 개통예정 잠실과 강북에서차로 30분거리
- 장점 : 시내중심가이면서도 깊은 사찰같음. 인구유동성이 많아 포교와 수행에 최적지
- 가액:인근 그린벨트 주택가 평당 500만원선이나 상담후 절충,양도하고자함

011-393-0013
011-710-7294

토 굴 안 내

- 위치 :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 대지 : 49평
- 방2, 마루, 부엌, 목욕탕,
  걸망풀고 쉴 수 있는 곳

010-2047-8376
010-9247-2488

사 찰 암 자 안 내

- 전북 장수 강안산 덕산계곡
  상류 해발 800m 위치
- 사찰이나 암자 최적지
  (최고 명당터)
- 전체면적 523평
  목조 건물 24평 1동
  목조부속건물 20평 1동
- 가액 : 3억

011-644-256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평수 : 190평
- 법당 25평, 요사채 50평
- 방4개,산신각2평,용왕당1평
- 가액 : 3억 5천만원
  영 주 불 사

010-9798-109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시설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후 절충

010-4199-0047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 뒷쪽 입구
- 3층 건물 중 2층. 평수 32평
- 법당,삼존불,탱화 등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 450만원

051)759-4684
010-9208-2644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3층건물 50평
- 삼존불외 소불 108목후불 탱화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모든시설 갖추어져 있음

032)504-3467
016-339-162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창원시 신월동
  신월지구대 밑 토월상가 입구
- 외국 공부 관계로 급 임대함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건물주와 상담 후 결정
  시설비 1,000만원

055)274-1755
011-624-175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충북 충주 시내
- 1층 단독주택 33평
- 큰방1(법당) 외 큰방2, 거실
  주방, 화장실
- 삼존불, 각단탱화
  모든시설완벽, 현재 운영중
- 건강문제로 급 양도
  스님이나 법사,보살님께 최적
  동네가 조용하고 주차 편리함
- 전세 2200만원,
  시설비1500만원(절충가능)

010-4923-492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80평(슬라브 건물)
  2층 47평(법당),1층 47평(요사채)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 10, 법당 시설완벽
  석축 조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8천만원
  (절충가능, 융자가능)

010-2988-0267

사 찰 안 내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내
- 평수: 89평(시설일체완비)
- 보증금 4천만원 월30만원
  시설시 상담후 결정

010-2284-0737

포교당 안 내

- 위치 : 평택 시내
- 6층건물의 4, 6층
  (각 70평, 총 140평)
- 집기일체, 시설완벽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50만원(시설비 절충가능)

010-7460-1250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역 2분거리)
- 한옥주택(총50평)
- 방2, 주방, 욕실, 삼존불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사글세 30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2717-8088

토굴및불자수련원지안내

- 위치 : 강원도 인제
- 토지 : 3000평, 건물주택 70평
  통나무집 10평, 차고 20평
  창고 10평
- 외형 : ①반월지(명당터로써
  참선수행의 최적입니다)
  ②교통편리하며 입구까지
  아스콘 포장완료 ③토지분할가능
- 가액 : 7억 3천만원

011-9466-2296

사찰암자터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선남면 소재지에서 3분거리
  대구시 20분거리. 총 568평
- 대지 약 200평, 건물 1동
  나머지 답, 가건물 2동
- 관리지역, 계곡, 저수지접
  노송, 풍수 수려함
- 가액 : 1억 8천만원(주인직접)

017-804-1234
053)627-123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망미동 대로 사거리 코너
- 평수 : 4층 건물중 3층 33평
- 법당(삼존불)공양간,방,욕실
- 10년간 운영한 포교당으로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7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6220-1822

포교원 안내

- 부선 서면 부전1동 도심지
  신월지구대 밑 토월상가 입구
- 비구니스님, 보살님, 역학법당,
  포교원 불사. 기도처 위치최고
- 방3개 법당1, 공양실1, 욕실1
- 시설완벽, 조용한 기와집독채
- 전체 50평
- 마당넓음, 시설비 없음

051)807-7328
011-488-0316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
- 부지 : 270평
- 법당 : 16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급)안내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입니다
- 위치 : 보문동 ●대지 : 160평 법당45평
- 산신기도 토굴 40평
- 요사채130평, 해우소 별도3개
- 2층건물중 1,2층 모두사용
- 전세가 : 5억(시설비 포함)

018-575-4002

평생토굴분양

자격 참선수행에 득력한자로서 마음껏
공부하다 죽을 각오가 정리 되신분
- 분양가 : 3천만원(1인 1실 방 93개 선착순)
- 대상 : 비구, 비구니, 거사님, 보살님, 종단불문
- 위치 : 서울시 정릉 4동 북한산입구
  남향 명당혈 버스종점 5분거리
- 혜택 : 숙식, 난방, 수도, 공과금
  모두 지원해드림(공부만 하면됨)
- 자가용 소지자는 절대분양못함

02)914-423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포교당(급)안내

대중 소임 사는 관계로 포교당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평수 50평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법당, 방 2,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 /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6739-6426

토굴(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매전면
- 평수 : 총 550평(방 3개 법당)
- 마당 가운데 개울 및 소. 도보 20분 거리 80m 폭포. 폭포위에 동굴(기도처). 명당. 경관수려.
- 가액 : 1억 8천

연락처 : 011-9526-1388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읍에서 10분거리 산밑
- 건평 30평(창고 있음)
- 건물 등기필. 1년 도지세 3만원
- 상수도, 우물있고 텃밭 있음
- 가액 : 2천 5백만원

043)834-9108 / 010-4860-6377

포교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2동 광안해수욕장 5분거리
- 반지하 55평 ●법당 1, 공양간 1, 방 1
- 삼존불,지장,신중,산신,용왕, 칠성,
  시설완벽,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월30만원
- 이주관계로 급 안내
- 생활상담 하실스님이나 무속인 최적지

011-9526-9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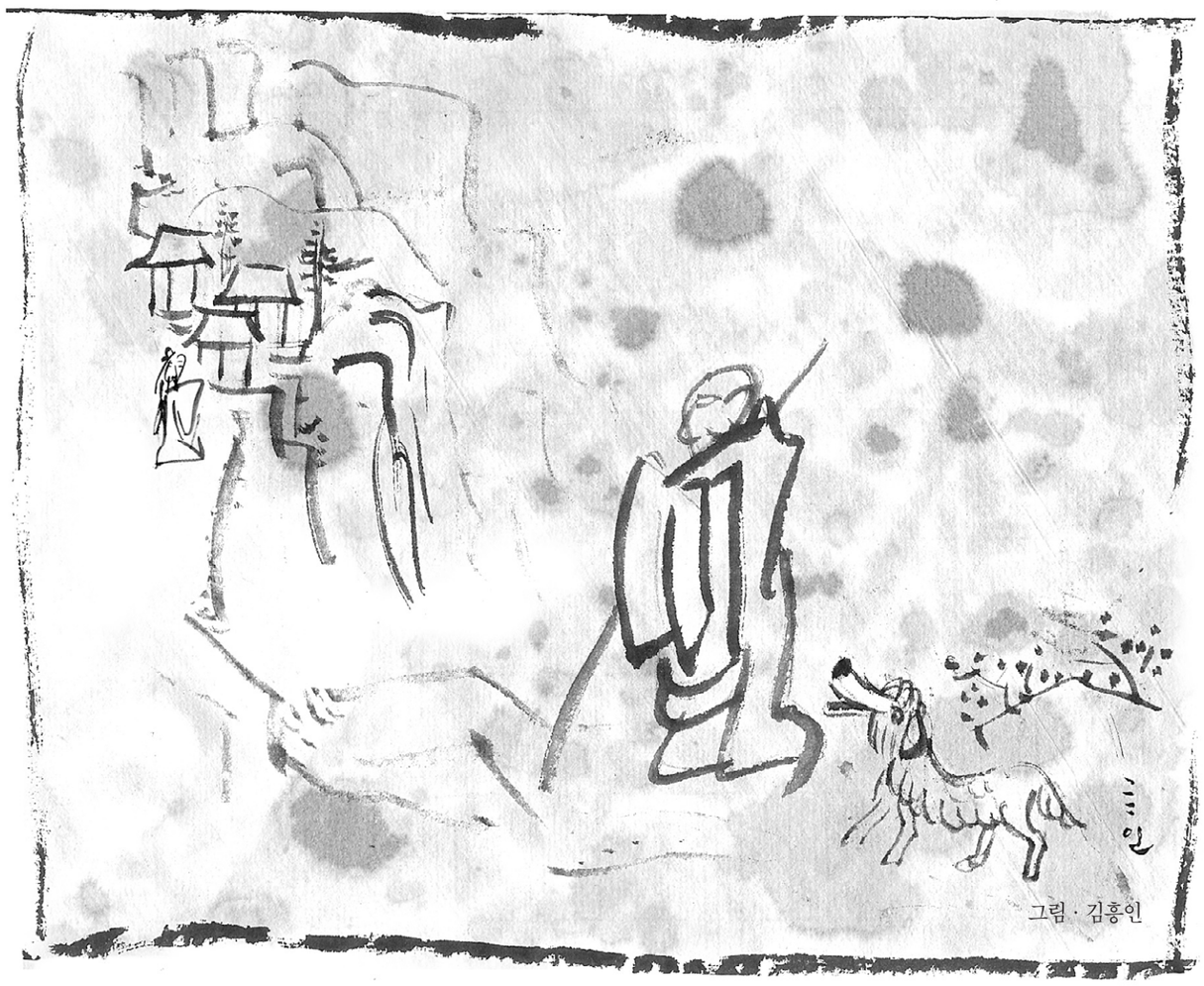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경북도청부근 대구역,중심가 3분거리
- 평수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보증금 2000만원, 월115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5층 스님실 25평 포함시- 월 45만원 추가
- 구조 : 최신건물 A/V有, 아미타 삼존불
- 지장,삼성,신중,사천왕탱화, 500인등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0-9598-9117

지장 보살이 주는 구원에 민중들 희망 걸어

<30> 구화산 김지장 스님과 비관경 거사


그림 · 김홍인

지장신앙 중국서 본격 일어난 계기는 지장 스님 '행화'
'구화산 화성사기' 찬술한 비관경 거사 구화산서 수행

중국에서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이 일어나게 된 것은 비교적 늦은 당대(唐代)에 이르러서였다.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등에 따르면, 지장보살은 부처님의 부촉을 받아 과거의 오랜 겁(劫) 동안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고자 항하사(恒河沙)와 같이 발원하였다고 한다. 이른바 "지옥이 텅 비지 않는다면 성불하지 않겠노라[地獄不空, 誓不成佛]"라는 언구로 대표되는 지장신앙이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일어나게 된 계기는 바로 구화산에서 신라 왕자 출신인 김지장(金地藏) 스님의 행화(行化)라고 하겠다.

구화산에 지장도량이 형성되는 과정과 김지장 스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비관경(費冠卿) 거사가 원화(元和) 8년(813)에 찬술한 <구화산화성사기(九華山化成寺記)>(<전당문> 권694)이다. 이에 따르면, 지장 스님은 바로 "신라왕자로서 김씨의 근속으로, 목이 솟아 골상이 기이하고 키가 7척(尺)에 달하며 힘이 장사였다. 출가해 바다를 건너 구화산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한 이로부터 세속과 단절해 수행에만 전념했다. 지덕(至德) 초년(756)에 이르러 제갈절(諸葛節) 등이 구화산에 올라 지장 스님의 수행하는 모습에 감동 받아 보시를 해 땅을 매입하고,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찰을 창건했다. 건중(建中) 초년(780)에 지주(池州)태수 장암전(張巖典) 거사가 스님의 덕을 우러러 보시를 두텁게 해 사찰을 중건하고 옛 현판을 옮겨 안치했다. 이로부터 구화산의 지장도량은 널리 알려지게 됐고, 신라에까지 명성이 퍼져 "본국에서 소문을 듣고 서로 바다를 건너왔는데 그들이 무리를 이루자, 대사는 식량이 없음을 걱정해 돌을 들어 흙을 파니, 그 색은 청백(青白)으로 모래가 섞이지 않아 밀가루와 같았다. 여름에는 흙을 섞어 먹고, 겨울에는 옷으로 불을 아끼고,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밭을 일구고 땔나무를 캐서 자급했다. 그 대중들은 법을 청해 식량으로 삼았고, 먹는 것으로 목숨을 이어가지 않으니 남방에서는 그들을 '고고중(枯槁衆)'이라고 칭하며 높이 우러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구화산화성사기>에는 지장 스님의 입적 당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대사의 나이 99세, 정원(貞元) 10년(785) 여름, 홀연히 문도들에게 고별해 간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산이 울고 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 무정(無情)도 감동했구나. 시적(示寂)에 있어 비구니 시자가 와서 미처 말하지 않았는데, 절에서 종을 울리니 소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함(函)중에 결가부자(結跏趺坐)의 자세로 모시기를 3년이 지나서, 함을 열고 탑에 모시고자 하니, 얼굴이 살아계실 때와 같았고, 옮길 때 골절이 움직여 쇠사슬 움직이는 소리가 울렸다. 경전에 이르기를, 보살의 몸은 쇠사슬과 같아서 모든 뼈에서 울림이 난다고 했다. 그 탑이 세워진 땅은 마치 불타는 것과 같이 빛을 발해 원광(圓光)을 이루었다."

이러한 묘사는 지장보살과 관련된 여러 경전에서 나타나는 바와 상당히 일치해 지장 스님은 지장보살의 현신으로 추앙받게 됐다. 점차로 구화산은 지장보살도량으로 명성을 얻게 돼 중국의 4대 성지(聖地)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로부터 지장 스님에게 귀의한 거사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구화산이 지장보살도량으로 형성됐음을 알게 한다.

<구화산화성사기>를 찬술한 비관경 거사에 대해서는 <전당문> <당척언(唐摭言)> 등에 아주 간략한 전기가 실려 있다. 거사의 자(字)는 자군(子軍)으로 지주(池州) 청양(青陽; 현 安徽省 青陽縣) 사람이다. 본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젊어서 출세하고자 10년 동안 집을 떠나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원화(元和) 2년(807)에 진사에 급제했다. 그러나 진사에 급제한 후 노모가 위독하다는 편지를 받고 급히 집으로 갔지만 이미 장례를 치룬 뒤였다. 이에 거사는 3년을 수묘(守墓)한 후에 "관록은 바로 모친을 잘 모시고자 했던 것이었다. 이제 관록이 왜 필요하겠는가!"라고 한탄하며 관직을 포기했다. 이로부터 구화산에 은둔해 수행에 힘썼다. 15년 후, 장경(長慶) 2년(822)에 전중시어사(殿中侍御使) 이행수(李行修)가 거사의 '효절(孝節)'이 뛰어남을 인정해 추천하자 목종(穆宗)황제는 거사에게 우습유(右拾遺)의 높은 관직을 하사했으나, 거사는 끝내 거절하고 수행에만 매진하다가 임종 후에 구화산에 묻혔다. 거사는 비록 관직에 몸담은 적은 없지만, 황제가 우습유의 관직을 제수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거사를 존중해 '비습유(費拾遺)' '비정군(費征君)'으로 칭했다고 한다.

거사와 지장 스님은 동시대의 사람으로 <구화산화성사기>의 끝부분에 "어려서 듣고 본 바[幼所聞見]"를 "경건하게 기록한 것[謹而記之]"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에 따라 후인들이 "천추에 믿을 수 있는 사료[千秋信史]"라고 평가하고 있다. 찬녕(贊寧)의 <송고승전> '감통편(感通篇)'의 김지장전에서도 역시 거사의 <구화산화성사기>를 인용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후대에 구화산이 지장도량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다양한 전설이 부가되고, 여러 가지 고사들이 삽입되게 된다.

중화민국 시기 출판된 <구화산지(九華山誌)>(上海國光印書局, 1930)에는 지장 스님의 출신은 신라의 왕실이며 성은 김이고 이름은 교각(喬覺)이라고 한다. 또한 24세, 당시 당 고종 영휘(永徽) 4년(653)에 삭발하고, 흰 개인 선청(善聽)을 데리고 바다를 항해해 중국으로 건너와 청양 구화산에 이르렀다. 산에서 75년을 단좌(端坐)해 개원(開元) 16년(729) 7월 30일 밤에 도(道)를 이루었다. 또한 각로(閣老; 벼슬이름, 員外라고도 함) 민공(閔公)이 있어 매번 100명의 스님을 공양했는데, 반드시 한자리를 비워놓고 동굴의 스님을 청해 100명을 채웠다. 동굴의 스님이 바로 지장 스님이다. 또한 "스님은 바로 가사(袈裟) 한 벌이 덮을만한 땅을 보시하라고 해, 민공이 허락하자 스님은 펼친 가사를 펼쳤다. 스님이 펼친 가사가 구화산을 모두 덮자 민공은 덮은 만큼 모두 희사했다. 또한 그 아들이 출가하기를 원했는데, 바로 도명(道明)화상이다. 민공도 후에 또한 속진을 벗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은 비관경 거사의 <구화산화성사기>에 나타나는 연대와 맞지 않는다. 그러나 민공이 땅을 희사했다는 것과 도명 화상 등의 이야기는 민간에 전설로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오대(五代) 이후에 제작된 지장보살과 관련된 회화나 조각상 등에는 신라로부터 데리고 왔다는 흰 개 선청과 민공, 도명 화상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아마도 오대 무렵에 형성된 전설이 아닐까 한다.

중국의 지장신앙은 바로 구화산 김지장 스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후대에 출현하는 지장보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회와 민간에서 유행하는 전설 등이 모두 지장 스님과 구화산 지장도량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장신앙의 유행은 지장 스님의 수행과 교화에 기인한 것이지만, 또한 비관경 등 거사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안사(安史)의 난 이후에 피폐해진 당조(唐朝)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맞물려 지장보살이 주는 구원의 희망에 민중들이 몰입했던 것은 아닐까 한다. 실제 당말(唐末), 오대(五代) 혼란한 정치상황에서 실의에 빠진 수많은 사대부들이 구화산 지장도량으로 은거했던 사실은 그 반증이라고 하겠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불자정보 724호 | TEL 02) 2004-8219(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도로가 건물, 바로앞 버스정류장
- 평수 : 약 30평
- 법당 약 25평, 요사10평
- 교통 매우 편리,즉시법회가능
- 전세 4천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9411-5302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동
- 2층 50평
- 대형 재래시장 주변
- 법당 25평,방3,주방,주차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75만원 시설비 약간(절충가능)
- 지방 이전 관계로 '급' 양도

011-9342-9794

포교원(급)안내
- 위치:천안시 쌍용1동 대로변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 40평
- 상가 : 4층건물중 2층전체
- 구조 : 방3개 법당 시설완비 즉시법회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2259-6787

포교당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영동 명진사
- 특징 : 약 50평, 삼존불 외 모든 시설 갖춰져 있음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 35만원 시설비 500만원
- 꼭 하실분 연락바람

010-3163-5014

팬션같은 암자 토굴안내
- 위치 :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 대지 250평, 건물 25평
- 황토벽돌,기와지붕,목욕탕 수세실화장실,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 방문 답사 후 결정
- 매수자가 법당 지을시 법당터 무상보시(스님들 한해서)

010-3169-536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소불 200불
- 전세 1억 3천만원(사글세 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서울 이동 관계로

010-3019-2236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평수 : 대지 300평
- 법당 25평, 방3, 욕실, 주방,
- 아미타삼존불,법당공양실물품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전세금 2천만원

010-2204-8375

수련원 연수원 부지(급)안내
- 위치 : 경기 포천 성동리 (서울 30분 거리)
- 대지평수 : 약 11,000평
- 건물 : 200평1동, 100평3동

※ 이전 종교연수원 시설 (기본시설 완비)
- 가액 : 16억(절충가능)

010-4111-7523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산시 북부동
- 평수 : 86평(법당46평) 방 3칸, 공양간
- 삼존불 (아미타불,관세음,대세지보살)
- 전세35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및 비품대는
- 상의 후 결정

010-8011-7444

사찰(터)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에서 5분거리
- 아늑하고 아름다운 바위와 산이 어우러진 영동에 최고의 위치, 상권을 가지고있고 영동을 지나가는 길목에 항상 차량통행이 많으며 사찰,토굴 무엇이든지 할수있는 입주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관리지역 : 평당 85만원,평수 300평 주변에는 국유림 약 2만여평
- 사찰임대 구합니다,교환가능합니다

010-9468-4235
010-4046-6637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월배시장앞)
- 대단위 아파트, 2층건물 1,2층 합35평
- 3층 옥탑방,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9368-9104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웃음보살 불등거사 〈40〉

구성 : 김흥인



낙타 가죽과 비싼 천

〈백유경(百喩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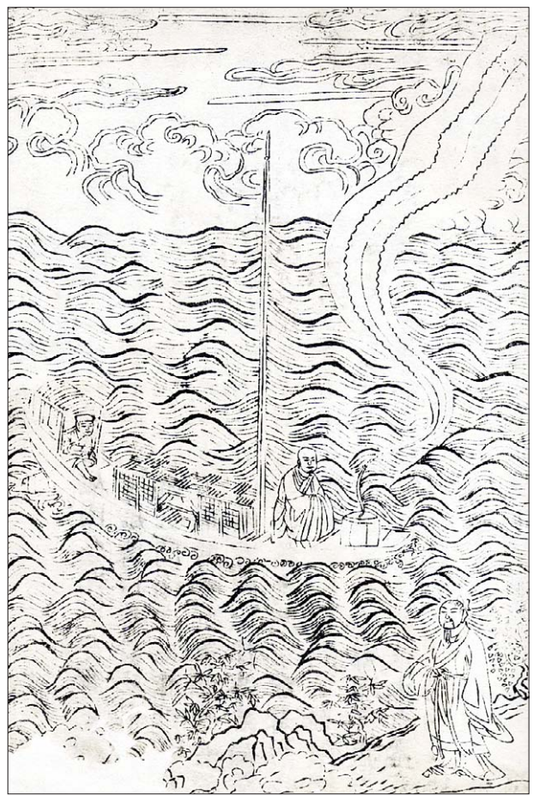


어떤 장사꾼이 장사하러 다니는 도중에 낙타가 갑자기 죽어 버렸다. 낙타 등에는 여러 가지 보물과 곱고 부드러운 천과 갖가지 물건이 많이 실려 있었다. 낙타가 죽자 상인은 곧 가죽을 벗긴 뒤 두 제자에게 말했다. "낙타 가죽을 잘 간수해 젖거나 썩게 하지 말라." 그 뒤에 비가 왔다. 두 제자는 어리석어 좋은 천들로 낙타 가죽을 덮었다. 천은 모두 썩어 허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어 비싼 천으로 가치 없는 가죽을 덮었던 것이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와 같다. 살생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천에 비유한 것이요, 낙타 가죽은 재물에 비유한 것이며, 비가 와서 젖고 썩은 것은 방일함으로써 선행을 깨뜨리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살생하지 않는 계율은 곧 부처님이 되는 최상의 묘한 씨앗이다. 그러나 그것을 닦지는 않고 다만 재물로써 온갖 탑을 만들고 공양하면서, 그 근본을 버리고 끝을 취한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뜰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는 계율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옛 판화의 세계

고국으로 돌아가 법을 전하다 환국전법(還國傳法)



고판화박물관수장 선사원류傳燈氏原流〉중 환국전법還國傳法 편. 목판(삽화) 1673년 간행. 반곡사판 27.2×18.0cm

이 삽화는 의상 스님이 당나라에서의 공부를 모두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의상 스님(625~702)은 644년 황복사에서 승려가 된 후, 661년 해로로 당(唐)나라에 가서 지엄(智儼)의 문하에서 화엄종을 연구하고 670년 귀국했다. 676년(문무왕 16) 왕명에 따라 부석사(浮石寺)를 짓고 화엄학을 강론, 해동(海東) 화엄종의 창시자가 됐다. 전국에 10여 개의 화엄종 사찰을 건립했으며, 그의 문하에서 오진(悟眞)·지통(知通)·표훈(表訓)·진정(眞定)·진장(眞藏)·도융(道融)·양원(良圓)·상원(相源)·능인(能仁)·의적(義寂) 등 '의상십철(義湘十哲)'이라 일컫는 고승들이 배출됐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묘와 얽힌 애틋한 사연과 승려로서의 철저한 수행정신을 느낄 수 있다. "그는 배를 타고 중국 등주에 도달해 어느 집에 이르자 그 집에서 의상 스님의 얼굴색이 매우 뛰어난 것을 보고 그 집 문하에 계속 머물게 했다. 그렇게 한 지가 오래되자 그 집의 소녀가 고운 옷을 입고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름을 선묘라 했다. 그 소녀가 교태를 부리며 그를 유혹했으나 의상의 마음은 바위와 같아서 돌릴 수 없었다. 선묘는 의상 스님을 유혹해 보아도 대답을 받지 못하자 홀연히 도심이 일어나 발원했다. '세세생생에 목숨 바쳐 화상에게 귀의해 대승을 익히고 배우겠습니다.' 신라에 환국한 후 의상 스님의 법문을 들은 신라국의 왕이 흠모하고 존중해 전장(田莊:신라의 녹읍)과 노복을 보시했다. 이에 의상 스님은 말했다. '우리 법은 높고 낮은 계급이 없이 평등하며 귀천이 같은 길을 걷습니다. 경에 여덟 가지 부정한 재물을 말하고 있는데 어찌 나에게 전장이 있어야 하며 어찌 노복이 있어야 하나이까? 빈도는 법계를 집으로 삼고 지어서 곡식이 여물기를 기다립니다. 법신의 혜명은 여기에 기대서 살아갑니다.' 의상은 강선하고 부지런히 수련해 세계를 장엄하고, 따뜻하고 서늘한 것을 가리지 않았으며, 오직 3의만을 갖고 물병과 발우 이외에는 한 번도 다른 물건이 있어 본적이 없었다." 이러한 의상 스님의 철저한 수행정신이 의상십철이라는 고승대덕들을 길러냈으며,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정신이 된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명상과 피어싱

가부좌 틀고 손바닥을 하늘로 펼친다
일곱 개의 차크라가 꿈틀거린다
회음, 꼬리뼈 마디마디 올라오는 호흡
상단전을 지나온 신열에 들뜬 알갱이들
투둑 콧등에 떨어진다, 나는
사라지는 내 몸뚱이를 바라본다

나는 어디든 날 수 있는 새
천개의 빛이 정수리를 파먹는다
몸바이, 카브리해, 아프리카로
날아간다
열대우림을 지나 초원을 빙빙 돈다
대지에 울려 퍼지는 북소리를 좇아
젖은 겨드랑이를 펼치는 순간,
장신구만 남아 있는 나의 몸
–박미산/시집〈루낭의 지도〉에서

화제의 불화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불멸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

지니는 가정마다 평생 부귀 영화와 건강 장수하게 축원불공 마쳐!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불력!

■여의주를든 관음도는 가정번영을 약속!
■여의주를든 관음도는 사업성공을 약속!



규격 : 가로67cm 세로85cm

■가정과 사업장의 재난과 액운을 쫓고 번영 보는순간 감탄 거실과 사업장에 걸면 품격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권세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칠귀의 액란에서 벗어나 건강장수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

〈관세음보문품경에서〉

속령만족제희구(速令滿足諸希求)〈불경〉
저희들의 온갖소원 하루속히 이루옵고〈해설〉
수지신시광명당(受持身是光明幢)〈불경〉
법을모신 이 내몸은 큰 광명의 깃발이요〈해설〉
수지심시신통장(受持心是神通藏)〈불경〉
벌을지닌 이 내 마음 신동력의 곳집이라〈해설〉
소원종심실원만(所願從心悉圓滿)〈불경〉
원하는 일 마음대로 모두다 이루리다〈해설〉
(천수경 강의 중에서)

여의주를든 백의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백의 관세음보살의 밝은모습으로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으로 부귀영화와 명예까지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조선시대 그려진것으로 우리나라 한점밖에 없는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기도속에 불력과 영험으로 재현해 판화한 영험의 명작으로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백의 수월관음도를 보는순간 누구나 감탄을 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최고급표구 액자와 100% 천연코튼판화지에 판화된 백의 수월관음도는 수백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게 베르린왁시까지 처리한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가보로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특급택배로 특별선물 보궁여의주와 함께 안전하게 보내드리며 받으시면 삼배하면서 소원기도 한다음 소장인란에 서명하시고 거실 또는 사업장에 걸면됩니다. 가격245,000원

문의전화:(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문의환영)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http://club.cyworld.com/kapilla

보궁여의주 특별선물

여의주를 든 관음도와 인연이된분께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를 구입하시는 불자님께 한시적으로 보궁여의주를 특별히 드립니다. **각종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슬때에 남섬부주에서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 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누구와 경쟁을 해도 승리하며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음 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를 이루워지게 하는 관세음 부처님의 약속의 구슬입니다.** 바다속 천연 녹색 원석으로 불교에서는 일명 용궁석이라하며 집안의 가보로 수험생이 있는 집에는 시험날 가방속에 넣고 시험장에 가면 지혜의 영험의 나타난다는 영험의 구슬입니다. 불가에서는 여의주를 영험의 보물로 인정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법구입니다.



이런저런 것 다 불문에 부치고 모든 것 주인공에 놓아라

(지난 호에 이어서)

몰라서 그렇지마는 이것을 다 공부해서 지혜롭게 되면 그때는 하나하나 체험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권투를 잘하는 선수가 조그만 애들 막 주먹질하는 걸 보고 피식 웃고 섰듯이 말입니다. '아이구! 그거 뭘 저런 걸 가지고…. 에이! 그냥 말할 것도 없구나!' 하고선 그때는 말수가 적어지죠. 공부를 하다 보면 말수가 적어지고 또 욕심이 적어지고 집착이 적어지고, 높고 낮고 이런 것에 집착이 적어지고 반항이 적어지고 남을 원망하는 게 적어지고 매사가 다 그렇게 달라집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냥 자꾸 개선이 되죠. 이렇게 해서 금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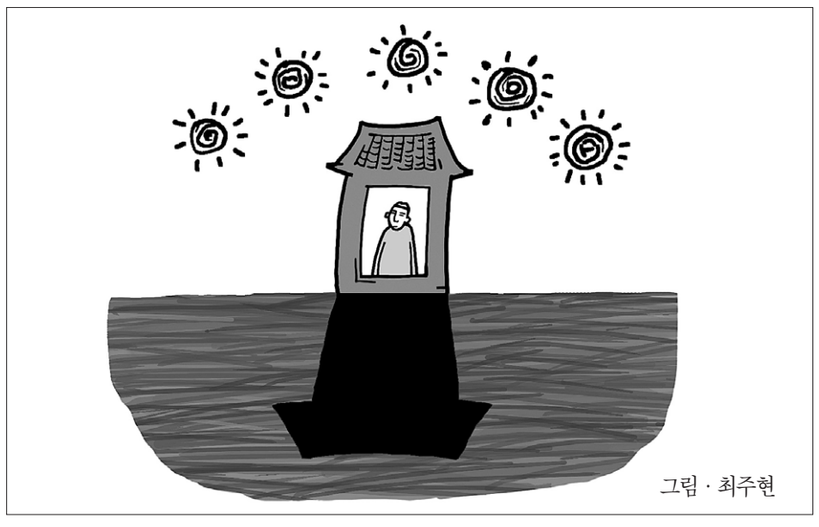
이런 것인데 누구를, 형상을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허공을 믿습니까? 또는 이 스님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습니까? 아니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세 가지가 다, 행과 말과 뜻이 똑같은 사람이라면,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따르라 이겁니다. 따르라! 믿는 것은 바로 자기 한마음 주인공만 믿어라 이거죠.

악업 선업, 업식이 자기한테 잔뜩 들어 있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벌써 현실에 자기가 끼고 있으니까 없는 거죠. 현실에 끼고 있으면서 미래로 자꾸 연결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단번에 이 자리에서 해결해 버려라 이겁니다. 업식으로 나오는 모든 거를 그저 거기다가 가차없이 '네놈이 하는 거니까, 네놈한테서 해결을 할 수밖엔 없지 않느냐!' 하고 맡겨 놔요.

질문자1(여):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음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도량을 마련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국민 개개인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한 사람을 큰 부자로 만들어 주고 두 사람, 세 사람 만들어 주고 그랬으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스님의 법문을 접하고 보니 '아! 이것이로구나.' 하고 느낀 바가 큽니다. 스님, 우리 국민 개개인을 마음 부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도량을 마련해 주신 이 감사함을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서원을 세우기를 '나로 인해서 딴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하고, 단 하나의 악한 일도 하지 않겠다.' 하고 발원하면서 걸어왔는데 부족하다 보니 어떻게 딴 사람에게 거슬리는 짓을 할 때가 많은가 봐요. 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께 질문합니다.

큰스님: 한 가정에서 식구가 모여 살면서 생기는 제일 어려운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죠. 자손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말썽을 일으키는 수가 있고, 부부지간에도 어려운 문제가 많죠? 그냥 증오하면서도 말은 못하고, 말을 하려니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냥 참다 참다 가슴이 멍이 들게 되는 수도 많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고 해서 그것을 거죽으로 "요놈의 새끼야, 왜 공부를 안 하느냐?" 남편이 그런다 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내 복장을 썩이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면 항상 대립이 되기 때문에 쌍방이 업을 더 많이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들이라는 것, 남편이라는 것이 전부 가설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인연줄의 가설입니다. 생명이 둘이 아니듯이 내 주인공과 저 주인공이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자식이나 남편이나 모두가 주인공 자체는 둘이 아니니까, 그저 주인공 당신만이 그렇게 안 하게끔 할 수 있고, 당신만이 공부 잘하게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서 불을 켜는 것과 같아서 저쪽에도 불이 전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죽으로는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을 하면서 그저 잘 이끌어 가면 따뜻한 데로 고이게 돼 있거든요. 애도 어른도 다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배부르게 먹을 데로 고여들고, 또 추울 때는 따뜻한 데로, 부드러운 데로 고여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내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가 참, 아주 제일 좋구나.' 하고선 가정으로 얼른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뒷면의 인연의 줄이, 법망의 줄이 이어져서 불을 켜 주니까,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불이 들어오니까 전부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런 분이 있었죠. 직장 일이 끝나도 집에 들어가고 싶질 않고 괜히 마음이 헛헛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가서 술 한 잔 흥건하게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도 다 귀찮고 다 메다 패대기치고 싶고 그렇대요. 이것을 억지로는 못하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의 부인에게 그랬어요. "당신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당신 남편의 업이 미워. 그런데 당신의 업도 그 남편의 업도 둘이 똑같지? 어느 하나도 기울고 트는 게 없어. 보는 놈이나 하는 놈이나 똑같다 이거야." 하하하…. 그러니까 깡통은 깡통끼리 모였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 업을 모두 없애려면 남편 탓 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자식이 그렇더라도 내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거기다 놓고 녹여라. 그러면 거기까지도 녹여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들어오더니 "내가 왜 이랬는지 몰라. 내가 괜히 술 먹어서 돈 없애고 세간 부수고…. 내가 미쳤나봐. 여보, 나 참 미쳤나봐." 그러고는 수박 한 덩이를 건네주면서 "이거 술 먹을 걸로 수박 사 왔지." 하하하! "아니, 소쿠리 하나만 부서져도 내 손해인데, 내가 또 사다 놓아야 될 텐데, 손해 나는 일을 괜히 했어." 그러고는 아주 우스워서 죽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날부터 가정이 화목해지고 좋아져서 잘 살게 됐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아십니까?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라. 위로는 네 자성불을 섬기고 아래로는 네 몸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해라. 그러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제도가 돼서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서 나투느니라. 털구멍을 통하고 눈구멍을 통해 나투면서 모든 사람에게 약사도 되고 칠성도 되고 산신도 되고 지장도 되고 용신, 지신까지도 돼 주느니라. 누가 응해 달라고 하든지 응신이 돼서 전부 천백억으로 나투느니라.' 이러셨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머리 깎은 스님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유마힐 거사 아시죠?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마힐 거사도 그렇게 나오신 것입니다. 그게 다 부처님들입니다. 머리 깎고 입산한 사람이나 입산을 안 한 사람이나 마음 닦는 것은 같다는 그 뜻을 여러분 앞에 보여주고 또 여러분도 공부해라 하는 뜻에서 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서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제도해야죠. 모두가 그렇게 해서 시급히 업식들을 녹이고 다스리면서 실천을 해 나가는 이러한 공부가 됐으면 합니다. 또 누구 없습니까?

그러니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요놈 자식, 왜 공부는 안 하고 요렇게 나가서 돌아다니기만 하면서 집에 안 들어오느냐?" 하고 그냥 밖으로만 야단하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러지 말고 안에다 놓고 "얘! 너 밥이나 먹고 다니니? 잠은 어떻게 자니? 집에 들어와서 자야 편안하지 않겠니?"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인의롭게 말해 주세요. 봄에 꽃피듯이 말입니다. 겨울에는 보잘것없었던 고목이 봄이 되어 잎이 나오고 꽃이 피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향기가 나오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때에 비로소 조건 없이 모든 게 들어옵니다.

질문자2(여): 저는 안양까지도 몇 번 올라갔습니다마는 질문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서 못했는데 이렇게 마산에 오신 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공부를 딴 분보다 많이 못했습니다. 마음자리에 다 맡기는 공부를 저 혼자서 하긴 했는데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서 감당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큰스님: 사람은 한 찰나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그놈은 누구고 그놈은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는 놈은 누구고 자다가 일어나는 놈은 누구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꾼 놈은 누구고 생시에 이렇게 다니는 놈은 누구냐?' 이 모두를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옹졸했을 뿐이지 생각이 넓다면 이 우주를 그냥 단번에 삼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삼천대천세계를 단박에 삼키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면 이게 뭔 소린가,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참 멋진….

그래서 우리가 그 도리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냥 삼킬 수 있다' 이런 말이 참, 위로는 평등공법이 되고 아래로는 칠활궁공법이 되고, 셋째번에는 팔수레공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들고 나면서 다양하게 자재할 때 비로소 '자재할 것도 없다. 자재한 것도 없다. 나는 그런 걸 하려고 생각한 예도 없다. 나는 말한 것도 없고 생각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그게 나오죠. 그러니 모두가 나 아님이 없는데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 감당할 수 없는 그 보살님의 마음이나 감당하기 어렵게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그거나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허!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나는 것도 네놈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하고 거기다가 그냥 맡겨 놓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놈은 누구고 감당하기 쉬운 놈은 누구냐?' 하곤 그냥 거기다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맡겨 놓을 수 있고 무조건 감사할 수 있고 그렇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샘터에서 샘물이 꾀약꾀약 나올 때에 샘물 맛을 알겠죠.

질문자3(여): 오늘 이 자리에서 스님을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나 되는 것 같고 하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심장판막증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수술을 받으라고 하는데 정말로 수술을 받아야 나을지, 저는 수술받기가 굉장히 싫거든요. 그래 어떻게 해야 좋을지 스님께 감히 질문을 드립니다.

큰스님: 그건요, 댁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질문자3(여): 마음에요?

큰스님: 예. 수술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진짜 자기 자성

☞26면으로 계속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토종약초 향토이야기

달마스님
KBS, MBC, SBS 방송출연 토종약초 30년간 연구 식약청 약초약품 허가. 팔도명산 바위틈에서 자생하는 각종 야생약초 만병초, 칠선초, 당귀, 용담, 천상무, 오가피 그 외 100가지 보유
*비만, 다이어트, 뱃살제거(한달에 2.3 KG 빠짐) - 칠선초 ₩88,000
*아토피-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 확실 ₩87,000
*골다공증, 뼈부러진데 - 토종약초 ₩85,000
*허리 아픈데 - 토종약초 ₩86,000
*당뇨(합병증), 간경화, 위장병, 고혈압 - 토종약초 (특수비방) ₩88,000
*만성변비- 토종약초 별 방법해도 안되시는 분 ₩80,000
*코골이, 비염 - 토종약초 특수비방 ₩85,000
*어린아이, 학생, 성장발육 - 만병초, 녹용, 차가버섯 38가지 ₩150,000
*각 종 암 - 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가지 토종약초
그 외 필요한 건강무료상담. 성불하십시오

달마도 ₩ 58,000
인생상담 전화상담환영
TEL : 051)866-1138, 010-6413-1388
농협 813083-52-062061 정광채
네이버 검색 부산 천황사 방송보기 클릭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09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기초과정(2개월)
◆송주 : 도량석, 종송 등
◆예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권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전문과정(4개월)
◆시련,대령,관욕,옹호게(신중작법104위),지장청,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바라춤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화의제바라
◆나비춤 : 오공양,유원송,요잡작법
◆사 물 : 태징,북,광쇠,호적(태평소),전통의식타법
◆특 강 : 괘불이운,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달림(다비),예수재의식 등
라. 강주 : 김법운스님, 이현진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입 학 식 : 2009년 3월 5일 오전 11시
◆개 강 : 2009년 3월 5일 오후 1시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접수기간 : 상시모집
9.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 정 청봉
총무원장 혜봉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1-82호 법인 설립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종단 입종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buddhanews.com

이 모두가 한 찰나 생각하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25면에서 계속

신을 믿어야 되죠. 딴 신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신을 믿는 거예요. '나를 수억겁 동안 이렇게 진화시키면서 사방팔방으로 끌고 돌아다녔구나.' 하고 내 주인이 나를 이끌어 온 거를 진짜로 믿을 때, 진짜로 마음의 주인을 믿을 때 성과가 있겠죠. 진짜로 믿는다면 안 해도 좋고요, 진짜로 믿지 못한다면 바깥으로 끄달릴 거고요. 그거는 당신의 생각에 달린 거죠. 그건 당신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질문자3(여): 그래도 마음의 중심이 안 잡히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큰스님: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댁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사가 되고요, 약사가 되려면 약사가 되고요, 또는 마구니가 되려면 마구니가 되고요, 사람 끌어가는 사자가 되려면 사자가 되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허허허….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참선이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냥 질문해도 됩니다. 남이 뭐, 나를 금에다가 얹어 놓겠습니까. (삼 배 하는 질문자에게) 한 번만 하세요. 그 한 번마저도 나한테다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야 뭐 한 번을 하든 안 하든 상관도 없어요. 저 부처님도 그러실 거예요. '열 번을 해 봐라, 나한테다 하는 건가.' 하고. 하하하…. (대중 웃음) 부처님은 속지 않거든요. '백 번, 삼천 번을 해 봐라, 나한테 하는 건가.' 그러시죠, 허허허….

질문자4(여): 스님, 가까이에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애써 주신 회장님과 여러 신도님 덕택에 이렇게 가까이 뵈올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큰스님: 어유! 그런 걸 아시니까 공부가 되겠습니다. 하하하!

질문자4(여):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공부가 안 되고 몰라서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평소에 저는 신문에서나 뭐 나쁜 기사를 보면 '주인공! 저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옳은 공부 방법인지요.

큰스님: 사람이 아주 친밀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에나 괜히 마음내고 이러질 마시고요.

질문자4(여): '심주를 잡아라'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심주가 안 잡혔는지 통…. 그리고 시동생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현재 눈이 안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마음을 내서 그런 건지, 머리로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수술을 하기 전에는 '내가 공부가 잘됐더라면 저 시동생을 수술까지 안 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큰스님에게 맡기면 될 텐데 내 힘이 약해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 혼자만 애를 태웠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도 가망이 없어서 뭐 소련까지 가느니 어쩌니 하고 지금 집안에서 의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어떻게 안양에 가서라도 큰스님 한 번 뵈었으면 했는데 스님께서 마음을 내셔서 여기까지 오시니 가까이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스님: 마음을 낼 때도 침착하게 결정을 지어서, 모든 걸 한군데에다가 놓으실 줄 알아야 되고, 한군데서 나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 개가 묶여서 끌려가거나 소가 도살장으로 가거나 닭이 전부 백숙 하는 데로 가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한생각에 무명을 벗겨 줄 수 있거든요. 수만 개를 갖다가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효대로가 아니라 만 개를 한데 합쳐서 한 사람으로서 그 무명을 벗겨주려도 벗겨줄 수 있는 거고, 개개인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마는, 이렇게 인구가 많은 상태니까 그 씨를 너무 많이 벌일 필요가 없으므로 그저 나한테다 넣어서 굴려서 생산이 되게끔 한다면 아주 적은 수효로 나가죠.

지금 시동생 문제도 그렇습니다. 모든 건 자신이 하는 것이 외려 더 중요하죠. 그리고 주위에서도 함께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몸이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데 칼을 대서 변경하거나 한 뒤에 자연법칙으로 자생력에 의해서 나으려 하면 참 힘든 문제가 많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다 불문에 부치고 모든 거를 다 주인공에 놓아 보세요. 병원에 가도 법, 안 가도 법이니까 '그저 가는 것도 법, 안 가는 것도 법. 네놈이 알아서 이끌어가지고 가는 거니까 당신만이 고쳐줄 수 있어. 당신만이 이끌어줄 수 있어.' 하고 믿을 수 있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그거는 자기 마음에, 모두의 마음에 달려 있지 태양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하하…. 예를 들어서 태양은 높고 낮음이 없이 여러분을 비춰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달을 지워 놓고선 태양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는 아니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벽을 탁탁 털어 버리고 태양 빛을 쬐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이구! 벽이 없으면 안 되지.' 하고 벽 속에서 컴컴하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벽을 만들어 놓고 태양 빛을 쬐려고 한다면 그거는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죠.

질문자4(여): 스님께서는 저희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요? 전 아직 공부가 어떻게 된 건지 감을 잡지 못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큰스님: 공부가 어떻게 됐는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것조차 거기다가 맡겨 놓으세요.

질문자4(여): 제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큰스님: '해결 못한다' 하는 생각도 그냥 무조건 거기다 맡겨 놓으세요.

질문자4(여): 감사합니다. 끝으로 큰스님 이렇게 뵈어도 친견이지만 저의 시동생이 직접 좀 친견하기를 희망합니다.

큰스님: 그렇게 '거죽으로 본다. 거죽으로 뵙는다. 거죽으로 봐야만 되지.' 이런 생각은 좀 어두운 생각이 아닐까요? 이것 보세요. 보이는 거는 전자와 전자지마는 불이 확 켜지는 거는 그 전자와 전자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작용을 해야만 불이 들어오는 거지 마음과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열심히 그저 자기 자성불을 진짜로 믿고 해 보세요. 자성불이 공해서 그냥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니까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주인공! 당신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그렇게 하세요. 본인더러도 그렇게 하라 하시고요. 또 주위의 보호자들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거뿐이 아니라 그저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넣으세요. 그럼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새로 생산이 돼서 착착 나갑니다. 자동적으로요.

> 마음속에서 향기가 나오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때에
> 비로소 조건 없이 모든 게 들어옵니다

질문자5(여): 반갑습니다. 저는요, 합천 해인사 자운 스님 사리 친견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니까 수녀님이 그 사리를 친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은요, 여기 한마음선원에 다니면 한마음선원에만 가야 되는 거다. 딴 절에 갈 때는 그 절에 구경하러 간다 생각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먼젓번에 어느 회관에서 한 스님께서, 절에 갈 때는 부처님을 믿고 가는 거지 스님의 썩을 육신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절에 계시나 부처님은 다 같은데 왜 꼭 딴 절에 갈 때는 그 절에 구경하러 가는 것처럼 하고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세계 어디에 있든 부처님은 한 분이고 제 마음이 부처이듯이 서로가 다 부처님은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의 시어머님께서 그러시니까 사실 시어머님이 조금 밉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님한테 이 궁금증을 질문드립니다.

큰스님: 말씀 잘하셨어요. 참 말씀 잘하셨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헤아릴 수 없이 생명들이 태어났어도 보살님 하나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무효입니다. 그렇죠? 없죠?

질문자5(여): 예.

큰스님: 그렇습니다. 상대도 없고 아무것도, 미움도 고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댁에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상대가 생기고 세상이 모두 벌어진 겁니다. 그런 거와 같이 '모든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다.' 하는 것은 평등한 생명! 평등한 생명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다. 한 생명이다.' 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절에 사람이 없다면 부처가 없느니라." 그것이 왜냐? 생명은 다 똑같지마는 씀씀이는 다 달라요. 차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점이 모두 다르게 돌아가는 거죠. 그건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 불을 모셔 놔도 석가세존은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또 문수보살은 생각을 내는 법신을 말합니다. 법신이 생각을 한다면 보현신은 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현신! 즉 말하자면 화신이자 보현신이죠. 자기 다리가 어디에 부딪치면 자기 다리를 자기가 만지죠? "아이구, 아퍼!" 하고요. 이게 보현신의 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생각을 내는 그 자체가 바로 법신입니다. 그러니 한생각에, 한마음에 의해서 마음을 내고 몸이 움쭉거리고 하는 것을 문수 보현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한마음이 동방에는 아촉불, 서방에는 아미타불, 이 세상은 관세음보살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고, 또는 지천국에는 지장으로 이름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어찌 그 이름들만 지어 놨겠습니까?

여러분, 고걸 여러분 가정에 비유해서 본다면 그 이름이 말입니다, 자식 노릇을 할 때의 아들이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사위라는 이름, 얼마나 많습니까? 형이라는 이름, 아우라는 이름, 친구라는 이름, 그렇게 이름이 많듯이 부처님의 그 마음으로서 부처님의 이름도 그렇게 많단 말입니다. 아촉불이다 아미타불이다 뭐 또…. 그러니까 찰나에 바뀌어서 돌아가는 대로 이름은 다른 것입니다, 전부.

예전에 조선시대 때에 불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그냥 스님들 붙들어다 볼기를 때리고 이랬기 때문에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칠성이다 독성이다 용왕이다 하고 전부 붙여 놨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교 탄압을 하지 않는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라고 얘기한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 속에서 나부터 알아야만이 모두 돌아가면서 둘 아닌 도리와 둘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알기 때문에, 나부터 알아야 되겠기에 내 집의 전화통부터 놔라 이 소립니다. 내 집에 전화 놓을 때까지는 남의 집에 전화 놓은 것 쫓아다니면서 간섭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의 집에 전화 놓은 거에 가서 전화를 좀 하고자 하고 전화를 받고자 하고 이러는 짓을 하지 말아라. 내 집에 전화를 놔서 전화 받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할 때에 비로소 딴 절에 가 보면 알 수 있느니라.

질문자5(여): 그래서 저도 이 한마음 공부를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고 있고, 제 주인공을 그만큼 믿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시간이 없어서 절에 못 올 때 제가 딴 절에 가면 어머님 하시는 그 말씀이 뇌리에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꼭 스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아야 되겠다고….

큰스님: 그것도 자유입니다. 병원에 가지 마라, 가라 이런 게 아니죠. 병원에 가는 것도 법, 안 가는 것도 법인데 그것이 안 되고 되는 것은 그 마음에 따라서 되고 안 되는 것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거는 억지로 '가지 마라,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질문자5(여):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이끌리는 대로 제 주인공이 하는 대로….

큰스님: 예!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질문자5(여): 감사합니다.

큰스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는 것도 누가, 아니 업식이 많아서 도둑질을 시키는 수도 있고 강도질을 시키는 수도 있고, 또 정말 좋은 일을 시키는 수도 있고 아주 악한 일을 시키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다스려서 잘 해 나가는 데에 멋진 도리가 있는 거지 아, 그걸 다스릴 줄 모른다면 안 되죠. 그냥 구덩이에 빠져도 법, 구덩이에서 나와도 법이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것도 법이라면, 그러면 잘못돼도 좋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마는 그건 자유에 맡깁니다.

사회자: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질문하시고요, 노래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곡목은 '선종관문 알아보세'입니다.

큰스님: 한 사람, 두 사람만 더 했으면 좋을 걸, 아주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그저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위 법문은 1992년 4월 26일 국내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 있는 출가 수행승려와 재가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 하고자 알립니다

◈ 자 격 :
1. 삭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 분 (재가불자)

◈ 교육기간 :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과정)

◈ 교육내용 : 불교 각단 예불 및 천도재의식

1. 각종 전문 재의식
2. 사물 다루는법
3. 천수바라
4. 사다라니바라
5. 오공양작법
6. 요잡

▫ 불교의식무용반 : 연화무, 해원무, 학춤
▫ 연구반 : 안정사범음범패

◈ 수 강 일 :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 수 강 료 : 월 10만원
◈ 교육장소 :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원(강원) 승헌스님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 문의전화 : 055)649-6711, 010-8533-6775 팩스 055)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

모 집 공 고

기도스님 2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법당보살 1분도 모십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수행 경력이력서를 제출해 주십이요. (팩스)

팩스번호 031)906-5108
사찰전화 031)905-6088
사무장直 011-743-4757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시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사군자 떡

나눔과 자비의 정신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단용, 제사용, 법회용, 개인 행사용 모든 떡을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모든 떡 일체 문의 : 사군자 떡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다동 2호
031)843-3372 / 017-302-3372 일심행 합장



불자 세상보기

김 헌 식
대중문화평론가

대중 연예계의 명암

故 장자연씨의 자살 사건을 두고 문건 속 리스트가 연일 매체의 중심에 있다. 리스트의 몇 명만이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인식, 제도적, 시스템의 모순이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화려한 불빛은 불나방의 생명을 빼앗는 것처럼 화려한 조명아래 대중 연예계는 수많은 생명을 빼앗으면서 마치 모든 이들의 영생과 꿈을 이뤄주는 것처럼 허장성세를 부린다.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서 그런지 승자독식이라는 말이 매체에 자주 오르내린다. 골고루 나눠갖지 않는 문화에서는 착실하게 결실을 축적하기 보다는 대박의 환상이 횡행하게 되고 근실한 노동은 천대받는다. 독식의 달콤한 열매는 크고,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하는 처지는 매우 비참하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되기 위해 반칙도 일삼게 한다. 실력보다는 편법이 더 우선되기 쉽다. 이런 승자독식이 강한 곳이 대중 연예계다.

대형스타가 독식한다. 많은 스타 지망생들은 대형스타로 파이를 독식하는 꿈을 꾸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특히 연예기획사는 이들에게 꿈의 실현보다는 냉혹함만을 주기 쉽다. 연예계는 비즈니스의 세계이나 공정한 시장질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상도(商道)조차 보기 힘들어진다.

故 장자연씨 사건의 핵심에 한국 연예기획사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속도전과 결과주의가 강자 위주로 형성된 것이다. 한국의 연예기획사는 일본과 중국의 시스템을 결합했지만 기형적인 모습이 됐다. 일본의 연예기획사는 가족적인 개념이나 발굴에서 교육, 홍보, 캐스팅 과정을 관장한다. 미국식 시스템은 대행 에이전시에 해당한다. 자기 권리를 위한 자유계약이 핵심이다. 한국의 연예 기획사들은 신인들에게는 가족 같은 경영을 하면서 권리 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가족주의가 누군가의 무한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신인들은 소속사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야 했다. 자유계약이 아닌 종속적인 방식이 됐다. 요컨대 소속사는 안정적인 수입을 일정하게 주지 않으면서 신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대형스타들의 확보에 집중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특히 신인여배우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접대를 제공하는 일이 벌어진다. 문제가 많으니 소속사를 자주 옮기게 된다. 자신의 어려운 신인 시절의 희생을 보상 받으려는 심리가 생기기도 한다. 이때 소속사 분쟁이 일어나고, 해당 연예인을 두고 법정 싸움이 벌어진다. 그 가운데에서 연예인들은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무엇보다 현재 대중 연예계 시스템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약자들이 강자에게 착취되는 구조를 고착화 시키는 점이다. 여기에서 착취는 생명에 대한 착취다. 마음의 안정이나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며, 스트레스 속에서 스타 지망생들은 생명이 단축된다. 그 대가는 대형 스타와 대형 투자 자본이 가져간다. 화려한 스타들의 영생은 수많은 불나방들의 생명으로 연명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승자의 저주와 같다. 1등에게는 천국이 열릴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이다. 故 최진실씨의 자살 사건은 승자의 저주인지 모른다. 과연 1등, 스타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진정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그 자체의 만족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가며 화려한 빛을 영위할 수만은 없는 것이 본질이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구조를 고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관음(觀淫)주의와 선정주의로 치닫는 것보다는 연예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제도적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어떤 호미를 들고 있는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경남 진영 봉화산에 특이한 관세음보살상이 조성됐다. 관세음보살님이 호미를 들고 나타나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다. 호미를 든 관세음보살상은 어려운 시대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극복해 나가려는 원력의 표현이었다.

호미는 잡초를 제거 하고 희망을 심는 불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를 전통 양식을 벗어난 파격적인 관음보살상이 상징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불교의 모습 우리사회의 모습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 경제 문화 인습 등이 모두 격랑을 헤치며 급하게 변해왔다.

호미 든 관세음보살님을 조성하던 그 마음이 잘 지켜진 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면도 있다. 산중불교에서 도심불교로 변모해 오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고 '호미질' 보다는 '엉뚱한 짓' 으로 세간의 비난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승불교의 정신은 훨저한 대승이다. 현대사회의 지향도 대승이다. 즉,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호미를 들고 나투신 것이다. 그 50주년을 기념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그 호미의 정신을 오늘날 불교계의 과업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는지는 의문이 든다. 사부대중이 자신을 향해 교단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어떤 성질의 호미를 들고 있는지 겸허하게 돌아볼 기회를 가져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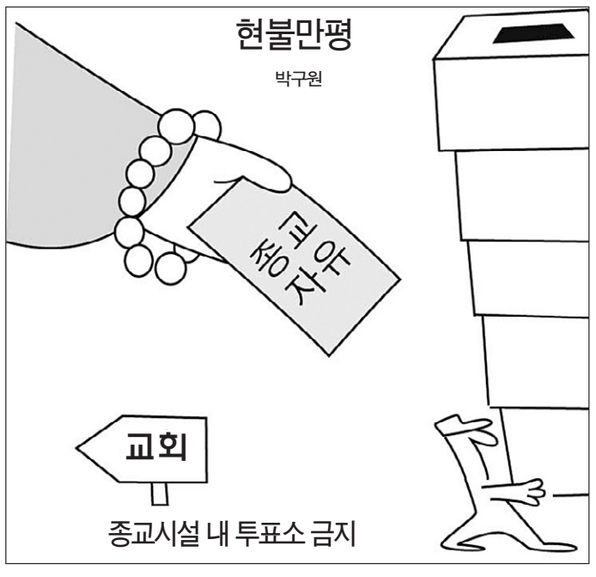
포교 일선의 목소리 경청하라

조계종 포교원장은 참으로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포교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교의 미래도 없다. 더구나 다종교사회에서 포교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조계종 포교원은 현재 다양한 포교종책을 개발하고 실행에 착수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포교원의 업무 역량과 재정적 한계는 너무나 쉽게 드러난다. 예산 편성만 해도 총무원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현대사회에서 포교는 재정지원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종단 예산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면 포교종책도 예산확보와 함께 구상돼야 한다. 그래서 늘 포교 현장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역대 포교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다 효율적인 포교를 위한 견해를 공유했다. 포교원이 역대 원장들 견해에 귀 기울이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 자리에서 역대 원장들이 내놓은 생각은 원론적인 것이었지만 그러한 자리가 마련됐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임이 이루어진단 것은 매우 희망적이다. 이러한 모임이 활성화 되면 현재 포교일선에서 체크되는 애로사항들도 조금씩 해소될 것이다.

포교원은 이 자리에서 형성된 여론과 아이디어들을 업무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반영해야할 것이다. 역대 원장들이 지적했듯, 포교는 종단의 정치와 무관하게 주체적으로 꾸준히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포교원이 불교의 미래를 탄탄하게 다지는 길 가운데 하나가 포교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것이다. 앞으로도 역대원장들의 견해와 더불어 일선 포교사들의 의견을 크게 듣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지금 이 순간 확고한 마음자리 지키자

3월의 테마-처음처럼

어느새 3월의 중순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제법 봄내음을 맡을 수 있다. 츱고 긴 겨울은 벌써 지나가 버린 것이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니 수첩이나 책상머리에 저마다 한 가지 바람이나 결심들을 적어 놓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된다. 하루는 잘 지키고 해나가더라도 처음에 먹었던 마음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다.

지난 학기 불교와 인간 수업을 하면서 도대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을 바는 어떤 것이었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 12연기, 8정도 등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란 좀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108배와 사경을 시작해 보기로 했다. 절을 시작할 때는 몸이 뻣뻣하고, 중간정도에 이르면 언제 끝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또한 사경을 하고 있으면 해야 할일들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급기야는 좋지 않은 과거의 기억 역시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이다. 아! 수행은 정말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었다.

불가에서는 출가해 처음에 배우는 책으로 <초발심자경문>이란 것이 있다. 이는 수행자 스스로를 경책(警責)하기 위한 것으로서 몸(身)으로는 살생, 도둑질, 간음을 입(口)으로는 거짓말, 이간질, 독설을 뜻(意)으로는 탐냄, 분노, 시기, 질투 등을 행한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참회하고, 그릇된 모든 행위를 돌이켜 마음을 살펴 몸과 입과 뜻을 항상 경계하기 위해 지어졌다. 우리네 옛 조사들은 처음 수행에 입문해 깨닫는 그날까지 한 마음(一心)인 마음자리를 지키면서 끊임없이 정진해왔던 것이다.

우리네 삶도 그러하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는 쉬우나 도중에 여러 장애가 생기면 실망하고 곧 주눅이 들어버려 마침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게으른 생각에 젖어 버린다. 직장에서도 힘든 일이 생길 때면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까란 마음으로 다른 곳을 살펴보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이 순간, 이곳에서 자신의 확고한 마음자리를 일심으로 지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모든 중생들은 제자리 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마음속에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없이 찾아오는 손님 같은 번뇌에 휘둘려 그 씨앗을 돌보거나 발아시키려는 원(願)은 잊어버리고, 마실을 나가 돌아올 줄 모르기 때문이다. 한번 손님을 따라 나간 마실에서 다시 돌아와 본분을 다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영원히 그것에 빠져버려 돌아오지 않는 이도 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을 우습게 알고 나중에 가서 일이 안 되면 그 얼마나 한(恨)이 되겠는가? 이 세상의 일이 어렵지만 마음 한 번 돌이키면 쉽고, 또한 이 세상의 일이 쉽지만 어렵다는 것을 바른 지혜로서 알고 몸과 입과 뜻으로 온전하게 체득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이 자리, 마음자리에서 무한한 지고의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강향숙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상임연구원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만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설명함으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듣는 것과 같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로 풀이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테이프 13개와 교재대 포함 20만원)
녹음 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은 한번 잘 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작명서들이 한결같이 수리와 오행에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은 수리와 오행이라면 똑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좋은 이름은 수리와 오행뿐만 아니라 주역(周易)에 맞추어 지어야 한다. 주역을 몰라도 누구나 알기 쉽게 찾아 볼수 있도록 하였다. (정가 : 30,000원)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著者 : 孫中山 (75세) 韓國陰陽學會 會長
◆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10-9391-5699

패철 보는법
하루 저녁이면 깨우치는
동수지리 이기론 핵심
나경 사용법
전용 원지음
연습용 19층 갈라 나경 도해 삽입
이 책 구입한 분 www.kbs.cc에서 나경 사용법 강의 무료 시청
나경을 쉽게 배운다
양택론 음택론
명당 잡는법
수맥 측정과 수맥파 차단법
진산
패철은 나침반이다. 어려울 이유가 없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패철보는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명당잡는법까지 하루밤에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본문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장본. 정가 2만5천원 할인가 2만2천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천 이상 구입시 권당 2천원 추가 할인.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 주문전화: 1688-1137
명당탐지기 관룡자 있음(할인가 66만원+각종 사은품)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상 · 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육임학당 5기수강생 모집
육임학당에서는 1월중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에 계신분은 공부하고 싶으셔도 직접 오실수 없으셔서 공부할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화상 강의을 하고자 합니다. 직강을 할수 없는분들을 위하여 생생하게 직강을 화상으로 공부하실수 있습니다.
※ 수강료 : 수강완료까지 100만원(6개월)
육임CD판매
▶ 육임에 대오인 초사를 새로운 어법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 일에 성사여부 판단, 매매, 결혼, 주식과 선물시세여부, 시험, 이사방향과 날짜, 이혼여부, 질병에 병명과 치료여부, 임신여부, 적성판단, 기도 관재승패여부, 취직, 사업사, 돈(구재어부)…
▶ 육임에 비술인 백법을 각국수에 붙쳐 놓았습니다.
▶ 지금까지 누구도 실어 놓지않은 정단사례 150여개를 6년동안 실재로 정단한것중 특별한것을 찾아서 실어 놓았습니다. 실재로 생생한 것이므로 정단은 물론이고 공부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판매가 : 150만원
육임운세 보기
■ 본 학당에서는 자동시스템으로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운세를 보실수 있습니다. saju79.com에 오시면 1대1 상담은 물론이고 자동으로 운세를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고명한 선생님들과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 02)793-7333(전화 상담도 가능)
■ 홈페이지 : www.saju79.com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예금주 : 박옥자)

절대 고요 속에서 빛나는 가르침의 정수

⑨ 통도사(상), 종갓집의 그윽한 매화 향기

국지대찰(國之大刹)
불지종가(佛之宗家)

영축산 통도사(通度寺)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명료한 말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 안의 큰절이요 불교의 종갓집'이라는 명명(命名)이 아니고는 통도사를 설명할 길이 없었기에 일주문에 무궁한 기상을 뿜어내는 서체의 주련을 당당하게 달았을 겁니다.

매표소를 지나 주차장 건너 근래에 세운 일주문이 '영축총림'이라는 현판을 달고 우람하게 서 있지만, 단호한 휘호의 주련을 달고 있는 옛 일주문 앞에서 슬며시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바싹 전지(剪枝)가 된 가지에서 뽀오얀 웃음으로 피어난 매화 향기가 코끝을 맴 돕니다. 종갓집을 찾아 드는 나그네는 뭔가 모를 경건함에 긴장이 되는 참인데, 진한 듯 옅은 듯 코끝을 간질이는 매화향기에 마음이 환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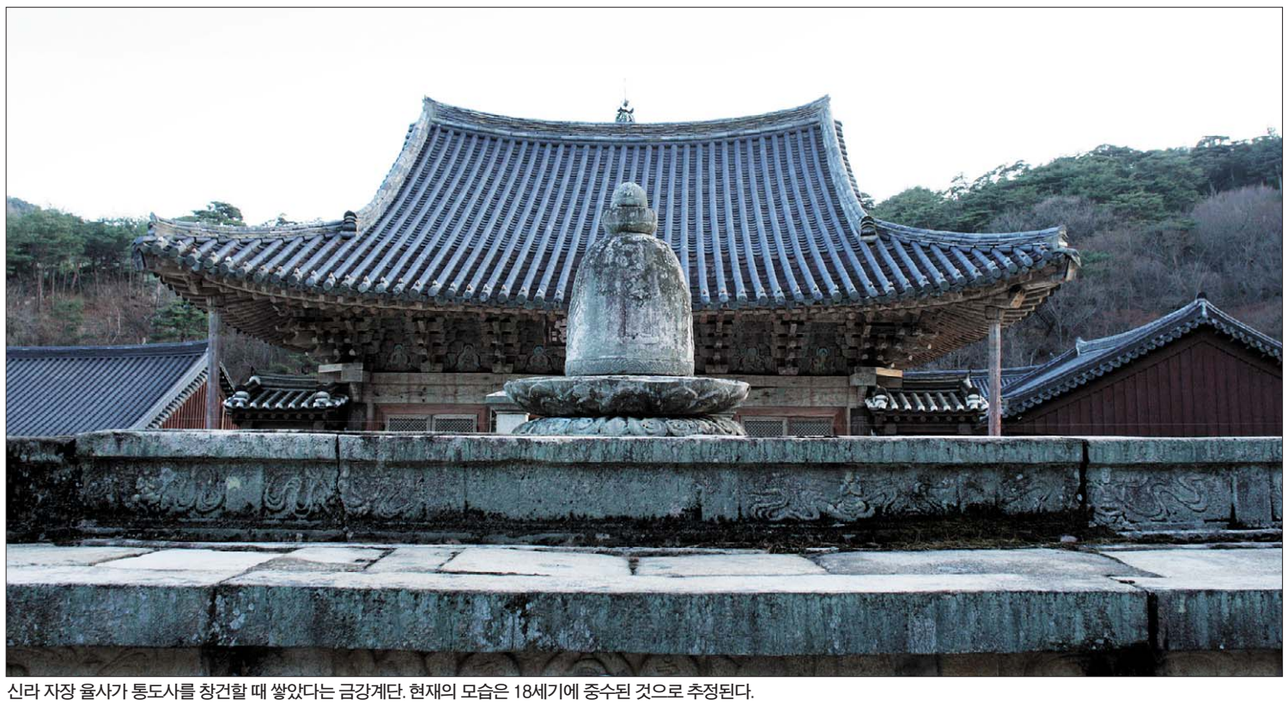
새로 세운 일주문 오른쪽에 웅장하게 펼쳐진 비림(碑林)이 눈에 들어 왔지만 그냥 지나칩니다. 통도사를 찾아 온 이상, 어떤 일도 금강계단(金剛戒壇)에 참배하는 것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부도밭 기행을 나선 나그네가 부처님의 부도탑이 모셔진 금강계단 참배를 뒤로 미루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문 위쪽에 가로 걸린 '영축산통도사(靈鷲山通度寺)'라는 선이 굵은 글씨는 흥선 대원군의 솜씨입니다. 황금 빛 현판을 올려다보다가 문득 우스개 소리 한토막이 생각납니다. 통도사의 도(度) 자는 법, 법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헤아린다는 의미로 쓸 때는 '탁'으로도 읽습니다. 어느 날 한 선비가 일주문 앞에 서서 "통탁사라, 거 글씨 한번 시원스럽게 잘 썼구나" 하고 큰 소리로 식견을 자랑했다는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도'로 읽는 경우가 많고 유교의 경전에서는 '탁'으로 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과 불이문을 지나 곧장 계단으로 갑니다. 대웅전에 들어가 삼배를 할 것도 없이 말입니다. 계단 정면에 서서 허리를 깊게 구부려 삼배를 올리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너그러운 웃음으로 인사를 받아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자 그 제자들은 스승의 유훈대로 7일 만에 법체를 화장(火葬)했습니다. 부처님의 사리(舍利 유골)는 마가다국과 바이샬리의 리차비족, 카필라바스투의 샤카족 등 8종족들이 나눠 갔으며 각기 탑을 세워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고 살아계시는 스승을 모시듯 했습니다.

거대한 불탑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물과 권력 노동력 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했으므로 불탑 하나가 세워지기까지는 건립의 주재자를 중심으로 많은 대중의 울력과 시주가 필요했을 겁니다.


신라 자장 율사가 통도사를 창건할 때 쌓았다는 금강계단. 현재의 모습은 18세기에 중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장 율사 금강계단 설치, 진신사리 모셔

시대 이어오며 가꿔진 성보… 지계의지 다지는 불보종찰의 핵심

석문 신장상 등 근엄함 속 아름다움에 숙연

그 자체로 하나의 신앙적 상징이 된 불탑은 부처님의 몸과도 같이 숭상됐고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조각과 부조물 등으로 탑을 장엄했으니 불교미술의 시원도 불탑이었을 겁니다. 초기 불교에 있어 불탑은 부처님의 법신(法身)은 물론 위대한 가르침을 상징하며 중생에게는 귀의의 대상이고 승단에는 지엄한 계율과 수행의 지표였던 것입니다.

통도사 금강계단도 그와 같습니다. 절이 창건된 때부터 계단이 있었고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란가사가 모셔졌으니 이 도량이야말로 부처님의 법이 상주하는 도량인 것입니다. 오늘날 3보(三寶) 사찰을 일컬을 때 통도사를 불보(佛寶) 사찰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금강계단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라 선덕여왕 15년(646)에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慈藏律師 생몰미상)는 당대에 가장 존경 받았던 율사입니다. 왕이 국사로 임명하려 하자 거듭 거부했습니다. "취임하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고 엄포를 놓자 "나는 차라리 단 하루를 계를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파계를 하고 백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왕은 이 단호한 율사를 더 이상 종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장 율사는 636년에 칙명을 받고 당나라로 구법을 떠납니다. '통도사사리가사적약록'에는 자장 율사가 통도사를 건립하기까지의 과정이 잘 소개돼 있습니다. 즉, 당나라에 도달한 자장 율사는 종남산 운제사(雲際寺) 문수보살상 앞에서 지극하게 기도를 드리고 마침내 화현으로 나타난 문수보살을 친견합니다. 문수보살은 가사 한 벌과 진신사리 100과(顆), 불두골(佛頭骨)과 손가락 뼈, 염주, 경전 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촉했습니다.

"그대는 말세에 계율을 지키는 사문이 될 것이므로 내가 이것을 그대에게 주노라. 그대의 나라 남쪽 취서산(鷲栖山, 영축산의 옛 이름) 기슭에 독룡이 사는 못이 있는데, 그 용이 사는 연못에 금강계단을 쌓고 이 불사리와 가사를 봉안하면 재앙을 면하게 돼 만대에 이르도록 멸하지 않고 불법이 오랫동안 머물러 천룡이 그곳을 옹호하게 되리라."

귀국한 자장 율사는 왕과 함께 취서산 남쪽의 용이 사는 연못을 찾아 메우고 계단을 쌓았으니 그 자리가 지금의 통도사 자리라는 것입니다. 대웅전 옆의 구룡지와 주변의 마을 이름(오룡동 삼곡동 등)에도 이 이야기를 증명해 주는 설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강계단은 자장 율사의 시대 이래로 매우 성스러운 영역으로 보호되고 섬겨져 왔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18세기 이전에 중수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자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습니다. 합장한 채 금강계단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며 불교의 역사, 불법(佛法)의 전승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고한 원력이 심어지고 시대를 이어가며 그 원력을 성취해 나가는 깊은 믿음의 결정체로 하나의 보배가 맺혀지는 것 말입니다. 통도사 금강계단의 우뚝한 존재야 말로 수행의 기틀이 되는 계율의 지엄하고 존귀함을 만대에 설해주는 무언의 설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강계단이 위대한 것은, 부처님의 가사와 진신 사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눈에 보이는 인연이 아니라 진정 부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계와 율에 의지해 청정한 수행을 하도록 발심 시켜 주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에서 구족계를 설하고 출가자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재가자 역시 이 계단에 예배를 하는 동안 삼귀의와 오계를 벗어나지 않으리란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금강계단은 아름답습니다. 시대를 이어가며 다듬고 가꾸어 온 계단의 화려한 석문(石門) 앞에 서면 영혼을 씻어 그 문 안으로 들여보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잡스러운 것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세워 둔 신장상이나 겹을 두고 조성한 난간들에는 근엄한 기운이 흐르고 단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 석종은 지상에 단 한 송이 밖에 없는 꽃입니다. 그 꽃향기는 철을 가리지 않고 중생계를 향해 흩뿌려지고 그 단아한 자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무한한 발심을 하게 합니다. 금강계단은 닦고 또 닦아 반드시 성불 하리라는 대원력을 심어주는 자비의 공간입니다.

금강계단과 함께 국보 제290호인 대웅전은 방향에 따라 다른 이름의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금강계단 쪽에서 보면 '적멸보궁(寂滅寶宮)'입니다. 사리는 적멸의 상징입니다. 모든 번뇌를 끊어 버리고 절대의 고요 속으로 들어간 수행자가 세상을 향해 남겨 둔 마지막 법문의 결정(結晶)이 사리입니다. 우리나라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이 다섯 곳이나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당연히 통도사도 그 가운데 하나이며 그 중심이 금강계단입니다.

산 그림자가 계단을 덮을 무렵 키가 훤칠한 스님 한 분이 계단으로 들어와 허리를 숙이고 사방에 세워진 석등마다 불을 밝힙니다. 석등의 화창은 유리 막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호롱이 들어 있어 거기 아롱아롱 불이 켜집니다. 호롱불 너머 석종의 윗부분이 보입니다. 거기서도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합니다. 마음이 따듯해집니다. 대웅전 주련에 적혀 있는 자장 율사의 '불탑게(佛塔偈)'를 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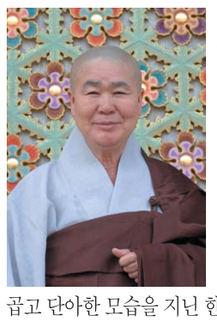
만대의 전륜왕 삼계의 주인
쌍림에 열반하신 뒤 몇 천추던가
진신사리 오히려 지금도 있으니
널리 중생의 예불 쉬지 않게 하리.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날이 저물자 호롱불을 밝힌 금강계단. 호롱불 너머 석종이 보인다.

■ 기본참고자료
〈역대고승비문〉시리즈, 이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도〉 정영호, 대원사.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엄기표, 학연문화사. 〈전통사찰총서〉 사찰문화연구원. 〈답사여행의 길잡이〉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돌베개. 〈동사열전〉 김윤세 역, 광제원. 〈잊혀진 가람탐험〉 장지현, 여시아문. 등.

아름다운 인연-곱단이는 친환경을 추구합니다.



인간과 자연을 생각합니다.

순수 자연주의를 표방한 자연친화적인 바디케어 제품
"아름다운 인연 곱단이" 출시 -

심청골 무각사 주지스님이 제안하는 '아름다운 인연'
-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며 보급합니다. -

곱고 단아한 모습을 지닌 한국의 여인 '곱단이'
전남 곡성군 무각사 주지 성효스님은 출가 후 부처님 인연으로 순수 자연성분의 목욕용품을 만났습니다.
최근 인기 TV프로그램(스펀지)과 언론 등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세정제품 (헤어, 바디샴푸 등)에 석유화학 첨가물인 계면활성제(SLS, SLES, ALS, ALSE)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계면활성제는 우리 피부에 뻣뻣함과 노화를 촉진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순수 자연성분인 야자유와 콜라겐 펩타이드, 아미노산으로 제조된 곱단이의 세정제품은 죽어가는 세포를 생분해시켜 다시 재생하는 유일한 세정제품입니다. 부처님은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다' 고 설 하셨습니다. 성효스님은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염원하고 불철주야 기도 정진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모든 불자님들이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스님의 마지막 회향 발원입니다.
이를 위해 성효스님은 순수 자연성분 세정제품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하고자 석유화학 첨가물 계면활성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좋은제품을 만들어 목욕용품 전문업체 '아름다운 인연-곱단이'를 설립, 불자님들께 권합니다.

[곡성 무각사 주지 성효 스님 합장]

SLS와 SLES는 샴푸나 목욕용품에 널리 쓰이는 음이온계 계면활성제로 아토피염을 유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포름알데히드와 SLES에서는 심한 피부병 증상이 일어났다. (중략) - 연합뉴스 08.4.24 -

http://www.gobdanee.com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제품 설명과 구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곱 단 이 를 검색하세요

총 판 대 리 점 모집중

판매원 : 아름다운인연-곱단이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309)
소비자 상담실 : 080-363-8985
제조원 : (주)펩티모

곱단이

곱단이의 모든제품에는
석유화학 첨가물을 사용하지않습니다.
SLS, SLES, ALS, ALES (석유화학 첨가물)등의
일반적인 계면활성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정제 주원료 100%
야자유와 콜라겐 펩타이드&아미노산을
사용합니다.

아름다운 인연

- 곱단이 나노 콜라겐 야자유 트리트먼트 헤어 샴푸
- 곱단이 나노 콜라겐 야자유 젤 바디 샴푸 (건성 피부용/지성 피부용)
- 곱단이 나노 콜라겐 야자유 젤 클렌징 (황토 / 녹차)
- 곱단이 피부 컨트롤 나노 콜라겐 스킨 (모든 피부용)
- 곱단이 나노 콜라겐 파우터 로션
- 곱단이 나노 콜라겐 야자유 헤어 트리트먼트
- 곱단이 먹는 콜라겐 & 글루코사민

2008 INNOVATION ENTERPRISE & BRAND 스포츠서울 LIFE BEST www.sportsseoul.com 2008 베스트 이노베이션 기업 & 브랜드

[현재 불교TV에 광고 중]

